

K O R E A

W O O D

2022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 W A R D S

D E S I G N

A W A R D S

K O R E A

W O O D

2022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 W A R D S

D E S I G N

A W A R D S

발 간 사



독창적인 디자인과 재료의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목구조 건축물, 목재 하이브리드 구조물,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건축물,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및 조경시설물 등의 발굴을 통해 목재 및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개최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목재는 인류와 함께 공존해 온, 없어서는 안 될 지속 재생 가능한 소중한 친숙한 재료이면서, 인간에 의해 생산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친환경 시대에 탄소저장 소재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목재를 사용한 고층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등 목조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본 대전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건축계는 물론이거니와 건축학도 나아가 일반인에게도 홍보하여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탄소중립 등 친환경 목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고 목재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와 진행을 맡아 주신 이재혁 건축가 위원장님, 출품된 작품들을 서류 및 현장을 통해 엄격하고 세밀하게 심사해 주신 조남호 심사위원장님, 김정임, 이승택, 최원준, 황경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대한건축사협회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대전을 이끌어 주신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조건축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되려면 어느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건축가와 시공자, 국민과 정부 등 모두가 혼연일체로 함께 연구하며 변화에 적응하면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지나온 20년에서 못다 한 점들을 보완하고 개발하여 앞으로의 20년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며 목조건축의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자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대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이 국 식

격려사



2022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개최와 함께 올해 본 대전에서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대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조건축의 재료가 되는 목재는 산림이 흡수한 탄소를 그대로 저장하는 '생활 속의 숲'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저장 소재이자, 건축·가구·종이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국산목재의 이용은 수입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국내 산림경영을 활성화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입목재와 달리 그 이용량이 우리나라 탄소감축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약 51퍼센트 가량 적고 사용된 목재만큼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목조건축을 조성한다면 대표적인 탄소배출원으로 불리는 건축물을 오히려 탄소흡수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고, 이는 400m²의 소나무숲이 6년 6개월 동안 흡수하는 탄소의 양과 동일합니다.

이에,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임업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건축물에서는 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1월, 목조건축의 높이와 면적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목조건축이 지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담은 목조건축을 활발하게 조성해나감으로써 범국가적인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친환경 자원인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은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장이자, 산업 간 교류를 통해 목조건축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무엇보다 목조건축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한국목조건축협회를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은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국내 목조건축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산림청장 남 성 현

축사



목조건축의 우수성과 목구조의 미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2022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이국식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2003년에 시작된 공모전으로 목조건축 활성화에 기여코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작품을 통해 목조건축에 대한 우수성과 재료에서 오는 친숙함, 그리고 목재 이용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대전이 목조건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재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목재 이용량(20년)은 2,726만^m³이며, 그 중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만^m³입니다. 국산 원목 중 건축용인 제재용으로 사용되는 양은 54만^m³으로 전체 우리나라 목재 이용량의 2% 수준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되기 위해 탄소저장 능력을 가진 목재의 이용 확대가 중요하며, 특히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용재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목조건축에 관한 연구와 고층 목조건축물 확산 등 목조건축 보급이 활발하며, 우리 정부도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 확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우리나라 목조건축 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환경 시대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목조건축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임업진흥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20회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개최와 수상자분들께 축하 말씀을 전하며, 성황리에 본 대전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한국임업진흥원장 이강오

축사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2022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와 함께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건축계는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친환경 목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은 물론, 목재의 수요 창출, 목조건축물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며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 목조건축대전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무는 예로부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던 친환경적인 건축의 대표적인 소재입니다. 특히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에서처럼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추구하는 우리의 전통건축에서는 매우 중요한 건축형태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이 우리 인간의 삶에 쾌적한 환경과 쉼터 공간을 제공하듯 목조건축의 보급은 각종 공해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현대건축에 밀려 사라져 가던 우리의 목조건축은 삶의 질에 대한 고민과 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 다시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1995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목조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목조건축협회와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2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한국목조건축협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목조건축대전이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진흥과 발전을 견인하는 매개체로서 지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수상하시는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석정훈

축사



2022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국목조건축협회에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긴 여정을 마치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신 21팀의 수상자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 건축대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2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공모전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공정한 심사와 우수한 작품의 선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조남호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시대적 소명 속에서 친환경 목조건축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조건축의 고도제한이 없어지면서 우리도 목조아파트를 상상 속에서가 아닌 실물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목조건축대전은 미래 건축가인 건축학도들에게 목조건축의 미래를 그려볼 기회와 더불어 우수한 목조건축물을 발굴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목조건축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조건축은 환경친화적이고 친건강적인 건축물입니다. 목재에 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의 훌륭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대학의 건축학과에서는 목재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나 커리큘럼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건축은 환경과 함께해야 하며, 그 대안은 목조건축에 있습니다. 우리 임업인, 목재인 뿐만이 아니라 건축계와 함께 나아가야 밝은 목조건축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약관이 지난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의 역할은 더욱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수상자에게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힘써주신 협회 관계자와 후원사, 심사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목재문화진흥회 회장 이 남 호

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차 례

- 03 발간사
- 05 격려사
- 07 축사
- 09 축사
- 11 축사
- 14 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개요
- 16 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심사평

- 18 준공 부문 수상작**
- 20 대상 | 빛의 루; 진주 물빛나루쉼터 (Pavilion of Floating Lights)
- 28 최우수상 | 종암스퀘어 (Jong-Am Square)
- 34 최우수상 | 하동 한옥문화관 (Hadong Hanok Culture Center)
- 40 최우수상 | 묘각형주택 (Cat-tagonal House)
- 46 최우수상 |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Myeongseok-myeon Community Cultural Center)
- 52 우수상 | 춘천시 지역먹거리 직매장
(Chuncheon Local Food Market)
- 56 우수상 | 켈크하우스 (Kelk Haus)
- 60 우수상 | 곱작골 마음센터 (Gobjakgol Maum Center)

- 64 계획 부문 수상작**
- 66 대상 |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하는 TCP Complex
(TCP 유닛이 적용된 목조-콘크리트 혼합형 구조의 고층 복합문화업무시설 계획안)
- 70 최우수상 | 고궁박물관 리노베이션 (전통건축의 현대적 가능성)
- 74 최우수상 | 트리드 하우스
(난민과 이재민을 위한 목조 모듈 재난거주시설)
- 78 최우수상 | 아크 (도심 속 사람과 철세의 휴식처)
- 82 최우수상 | 도심 속 도서관, 삼목 (목재 활용의 다양한 스케일)
- 86 우수상 | 법고창신 (지속가능한 목조 건축 계획안)
- 88 우수상 | 들林 (광화문광장의 새로운 시민청 제안)
- 90 우수상 | 木·造·建·築 박물관
(한국 목조건축 산업화와 활성화를 위한 건축적 제안)
- 92 특별상 | 삶과 죽음의 중개적 장소
(죽음에 대한 재해석과 글루램 활용을 통한 후암동 납골당, 커뮤니티 복합시설)
- 94 특별상 | 플로팅 온 한강 (목구조를 활용한 한강 수위 상승 대응 방안)
- 96 입선 | 빛과 그림자의 구조
(용도에 맞춰 변주하는 빛, 정자의 현대적 재해석)
- 98 입선 | 우회하다 (목구조를 활용한 청소년 복합 문화 센터 계획안)
- 100 입선 | 기억 이-음 (목구조를 이용한 광화문 시민청 & 전시관 계획안)
- 102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하는 일
- 106 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협찬사
- 108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활동 회원사 리스트

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개요

본 '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산림청과 함께하는 행사로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사업임.

응모 부문 및 대상

계획 부문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 재료인 목조는 근대의 시기를 거치며 철과 콘크리트 구조가 이루는 구조적 단순함과 불륨의 건축으로 대체되었다. 친환경의 인성과 성능을 갖는 목조는 공학목재의 발달에 힘입어 미래 건축의 중요한 대안으로 그 비중을 더해갈 것이다. '가벼움'은 목조의 특성이자 현대건축의 중심을 이루는 감각이다. '가벼움'에 상대적 개념인 '무거움'을 더해 2022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주제로 제안한다. '가벼움과 무거움'은 재료 자체의 속성이고, 구조체의 특성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경골목구조와 중목구조처럼 상대적인 개념이 되기도 한다. 그 밖에 참가자들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맥락으로 해석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 응모 작품: 목구조·목조 친환경 디자인 등의 공법과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미래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미발표 창작물 또는 목재를 활용한 미래 새로운 건축재료나 구조에 대한 제안.
- 응모 자격: 제한 없음(단, 국내 거주자)
- 응모 작품 수 및 인원: 응모자 1인당 1작품, 공동 출품은 3인 이내

준공 부문

- 응모 작품: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2019. 8. 27. 이후) 준공한 국내 목구조 건축물, 혼성 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건축물,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및 조경시설물 등의 제 분야
- 응모 자격: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혹은 제작자), 건축주로서 출품 건축물의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
- 응모 작품 수: 응모자 1인당 최대 3점 이내

심사위원회

- 위원장: 조남호(주.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대표)
- 위원: 김정임(주.서로아키텍츠 대표), 이승택(주.stpm건축사사무소 대표), 최원준(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황경주(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접수

- 계획 부문:
 - ▷ 1차(작품계획안) : 2022. 8. 16(화) ~ 2022. 8. 26(금)
 - ▷ 2차(패널, 모형) : 2022. 9. 21(수)

- 준공 부문:
 - ▷ 포트폴리오 : 2022. 8. 16(화) ~ 2022. 8. 26(금)

심의

- 일시 및 장소:
 - ▷ 계획 부문 1차 포트폴리오 심사 : 9월 7일(수) / 서로아키텍츠
 - 2차 공개 심사 PT : 9월 21일(수) / 금성건축
 - ▷ 준공 부문 1차 포트폴리오 심사 : 9월 7일(수) / 서로아키텍츠
 - 2차 현장 심사 : 9월 22일(금) / 작품 소재지

전시회 및 시상식

-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2일(수) / 서울특별시청 본관 1층 로비

주최

(사)한국목조건축협회 www.kwca.or.kr



수상 결과

준공 부문			
구분	작품명	수상자	소속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빛의 루: 진주 물빛나루쉼터	한양대학교 김재경	(주)대조건설 조건호
최우수상(서울특별시시장상)	증암스퀘어	심플렉스건축사사무소 박정환, 송상헌	(주)소보건설 허수구
최우수상(산림청장상)	하동 한옥문화관	(주)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조정구	(주)토왕건설 문혜란, 토담건설(주) 홍일표, (주)아라한건설 이성준
최우수상(산림청장상)	묘각형주택	(주)비유에스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박지현, 조성학	신민철
최우수상_건축구조상(산림청장상)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주)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신성진, 손경민	류앤드김종합건설주식회사 여한영, (주)수피아건축 이주석
우수상(한국임업진흥원장상)	춘천시 지역먹거리 직매장	studiothewon 원계연	백남용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장상)	켈크하우스	(주)에이디모베건축사사무소 이재혁	(주)수피아건축 이주석
우수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곱작골 마음센터	(주)숨비건축사사무소 김수영	(주)청현

계획 부문			
구분	작품명	수상자	소속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하는 TCP Complex	우정윤, 박성우, 조승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최우수상(서울특별시시장상)	고궁박물관 리노베이션	이재윤, 유영주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최우수상(산림청장상)	트리드 하우스	우나경, 현동은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최우수상(산림청장상)	아크:도심 속 사람과 철새의 휴식처	김민준, 백승인, 조성호	동서대학교 건축학과
최우수상_건축구조상(산림청장상)	도심 속 도서관, 삼목	여태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우수상(한국임업진흥원장상)	법고창신	이상민, 이건희, 김강인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장상)	들림	김지원	명지대학교 건축학전공
우수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木·造·建·築 박물관	전해인, 김유경, 서지형	명지대학교 전통건축전공
특별상(목재문화진흥회회장상)	삶과 죽음의 중개적 장소	이상규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특별상(목재문화진흥회회장상)	플로팅 온 한강	박예진, 최승주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입선(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빛과 그림자의 구조	권나희, 유채린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입선(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우회하다	김민제, 정여원	부경대학교 건축학전공
입선(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기억 이-음	김수정	명지대학교 전통건축전공

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심사평
생태환경미학의 가능성

코로나 팬데믹은 미래로 여겨졌던 환경위기를 순간 이동시켜 우리 코앞으로 옮겨 놓았다. 그동안의 친환경 담론이 주로 산업과 연계한 대체에너지나 저에너지 중심에서 탄소 중립의 실천으로 옮겨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공법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산정기준이 마련되고 제도적으로 운영된다면 친근한 인상에 머물러 있던 목조건축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목조건축의 미래는 이미 목재에 내재된 친환경적 장점에만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목조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도시건축의 제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조건축대전 심사에 참여하며 물리적 관점의 생태환경과 미래의 건축미학이 통합된 '생태환경미학'의 출현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올해 목조건축대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목조건축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을 전제하지 않았다. 목조건축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일반적인 건축과 구별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편적 건축 영역에서 평가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목조건축대전의 성과에 비춰 볼 때, 양과 질에서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올해의 준공 부문에는 30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경합했는데, 공공건축 분야의 성과가 확연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목조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거나 적어도 관대해진 분위기를 반영한다. 대상작인 <빛의 루, 진주 물빛나루센터>는 건축가의 지속적인 목조시스템 연구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진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축석루에 건주어 현대적인 '루'로 재해석해 장소와 역사성 속에 통합한 수작이다. <하동 한옥박물관>은 한옥을 목조건축대전에서 다루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한옥을 재해석한 공간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 <묘각형 주택>은 가벼운 골강관 안에 경골목구조를 이중

구조화한 두터운 외피에 주택으로 상투적이지 않은 중심형 주택을 만들었다. 최우수상 <종암스퀘어>는 교각 하부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 시설로, 목재와 철골을 혼합해 모듈화된 부재들이 엄정함과 섬세한 디테일이 이루는 특유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성취하고 있다. <명성면 주민복합문화센터>는 소박한 동네 안에 공공시설이 갖춰야 할 덕목을 균형 있게 이루고 있다. 단순함이 주는 존재감과 초입 부분의 낮은 스케일, 구화제를 칠한 외장목재마감, LVL 서까래 지붕 아래 융통성 있는 주민공간을 구현하고 있다.

계획 부문에는 전국의 다양한 학교에서 33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예년에는 상위 수상작들에서 일정한 패턴화 되는 경향이 보였으나 올해는 다양한 학교에서 출품이 늘어나면서 작품의 성향들도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여 고무적이다. 대상인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하는 TCP Complex>는 철근콘크리트와 목조의 하이브리드 구조를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기술적 해법에 머무르지 않고, 미학적인 수준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도심 속 도서관, 삼목>은 건축의 주요 구조와 외피, 지붕을 각각의 체계로 해석하여, 한 건축물 안에 통합하고 있다. <고궁 박물관 리노베이션>은 경

복궁의 맥락에 비추어 기존 질서를 해체해 재구성하는 데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조를 역으로 뒤집어 해석하고 형태로 재현하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으나 구조적 완성에는 이르지 못해 아쉬웠다. <트리드 하우스>는 모듈화된 그리드시스템을 반복해 재단을 위한 시설로 만들었다. 짧은 시간에 이동 조립이 가능하다는 맥락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고 단순한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풍경을 이루고 있다. <아크, 사람과 철새의 휴식처>는 박공 형태의 목구조가 이루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잘 짜여진 구법에 의해 섬세한 완성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 조남호(심사위원장, 솔토저민건축사사무소 대표)

기후 우울증(Climatic Depression) 신드롬이 있다고 한다. 태생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쓰고 땅을 파헤치는 일을 하는 건축가로서 해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현상을 보며 걱정과 회의가 밀려오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4, 50년이면 철거될 운명인 마치고 천년만년 서 있을 것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박고 지어지는, 그리고 해체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졌다. 목조건축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그것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조형성과 편안한 공간감보다는 좀더 가볍게 짓고 해체될 순 없을까 하는 환경적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심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환경적으로 가볍게' 장소를 점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해법이 차곡차곡 쌓여 이제 우리 건조환경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축법에 있어서 한옥의 전통적 방식이나, 서양의 경골목구조, 최근의 엔지니어드 우드로 지어지는 대공간, 콘크리트나 철골과 복합하여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까지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는 현상도 흥미로웠다. 목조건축에 대하여 순혈주의적 엄격함을 벗어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은 활용 범위의 확장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규모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준공건축물 부문에서는 중소 규모 건축에 적용되고 있지만 계획 부문에서는 대형 목조 오피스나 박물관, 도서관 등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조건축의 활성화는 건축을 장소에 대한 일시적 점유 행위로 인식하고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작업

(On-site)이 많은 우리나라 건설문화를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Off-site 건설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정임(서로아키텍츠 대표)

학생들이 참여하는 계획 부문에서는 전통건축의 현대적 표현에 대한 역사적 선례를 기반으로 한 제안, 재료나 구조, 공법 등 측면에서의 연구를 더한 계획안, 재료 간 수명의 차이를 통한 시간적 변화가 하나의 이야기로 도입된 작품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적 적용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이를 넘어 애초의 의도로 평가받는 것은 학생작품이 마땅히 가질 권리일 것이다. 대상 수상작은 고층 목구조 건물에 대한 일반해적인 접근으로, 타워와 저층 매스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공간적으로도 잘 풀어냈지만 콘크리트 구조를 혼용한 구조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무의 재료적 친밀성과 표현성을 활용한 새로운 조형적 시도들도 의미가 있지만, 시스템적 접근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여 널리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가치가 있다.

준공 부문에서는 작은 개인 주택부터 한옥

집합체, 장스팬의 대형공간까지 다양한 건물 유형이 접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목조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산업적 효율성과 지원도 크게 증가하여, 목조 혹은 목조를 다른 재료와 혼용한 구성은 이제 많은 건축가들이 구사하는 하나의 선택이 되었다. 2차 현장심사 대상으로 오른 작품 중에는 목조건축을 일찍이 구현해와 목조건축대전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젊은 건축가의 새로운 시도들도 있었다. 순수하게 올해 접수된 작품의 성취만을 놓고 평가하고자 했다. 새로운 구조 형식을 시도한 사실보다는 그 구조의 효용성을 들여다보고자 했고, 전통적인 목조건축 분야인 한옥의 경우도 그 형식 속의 새로운 성취들을 꼼꼼하게 보고자 했다. 작품상이 갖는 의미는 작품과 상호작용하면서 목조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의 폭과 깊이,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의 구조에 있으며, 올해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03년도에 시작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그 사이 목조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나 사회적 배경도 많이 바뀌었다.(목조건축대전 웹사이트www.kwda.or.kr에는 지난 20년간의 변화가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UN 산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체인 IPCC에서는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환경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기온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소배출의 40%를 차지하는 건축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들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나무가 생애에 걸쳐 품은 탄소를 그대로 담아둘 수 있는 목조건축은 더욱 큰 가능성을 지닌다. 목조건축대전이 향후 이러한 이슈까지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목조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 최원준(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KOREA WOOD DESIGN AWARDS

2022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준공 부문 수상작

대상 | 빛의 루; 진주 물빛나루쉼터 (Pavilion of Floating Lights)

최우수상 | 종암스퀘어 (Jong-Am Square)

최우수상 | 하동 한옥문화관 (Hadong Hanok Culture Center)

최우수상 | 묘각형주택 (Cat-tagonal House)

최우수상 |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Myeongseok-myeon Community Cultural Center)

우수상 | 춘천시 지역먹거리 직매장 (Chuncheon Local Food Market)

우수상 | 켈크하우스 (Kelk Haus)

우수상 | 곱작골 마음센터 (Gobjakgol Maum Center)

준공 부문 | 대상

빛의 루(樓); 진주 물빛나루쉼터

Pavilion of Floating 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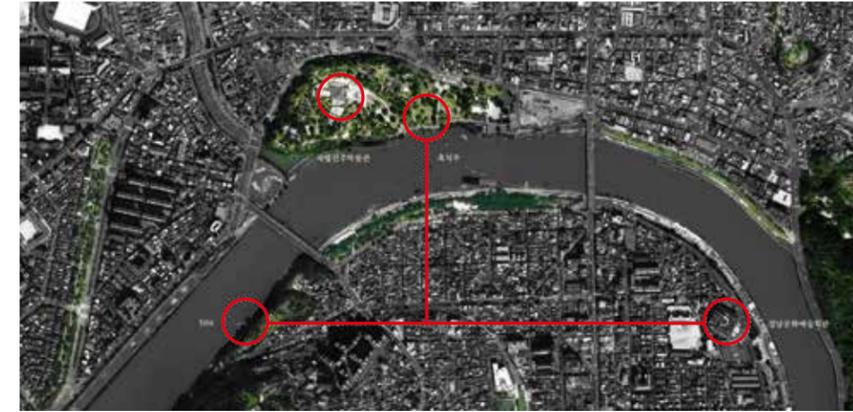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634
 대지면적: 268,212m²
 연면적: 119,19m²
 건축면적: 109,98m²
 규모: 지상 1층
 구조: 상층부-목구조 (자작나무 합판), 저층부-철근콘크리트
 준공일: 2022. 5. 2
 설계자: 한양대학교 김재경
 시공자: (주)대조건설 조건호



축석루와 남강이 가진 기억과 역사적 가치

진주의 건축은 축석루(14세기),
 국립진주박물관(1984), 그리고
 경남문화예술회관(1988)과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에 비해
 평가받아야 하는 운명에 있다.
 이것은 건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전통의 해석에 관한 평가이기도 하다.
 우리 건축에서 전통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있다. 현대 건축이

전통 건축과 필연적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지만, 지역성이 남아 있는
 곳이라면 다르다.
 축석루와 남강이 가진 기억과
 역사적 가치는 진주에 위치할 건축이
 가져야 할 정체성을 규정한다.
 따라서 진주의 건축은 김종업과
 김수근이 했던 도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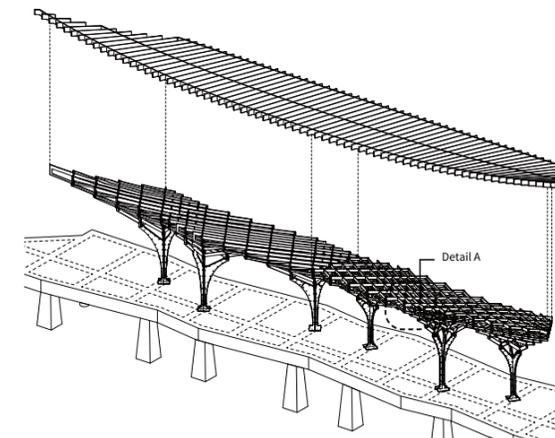


site 대지



대지의 위상

전통의 의미에 더해 '빛의 루'의 장소는 프로젝트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남강변에 위치한 대지는 도시적 측면에서 축석루와 국립진주박물관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서편에서 대응해야만 한다. 프로젝트가 규모의 측면에서 앞선 세 걸작과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대지의 위치가 가진 위상은 이처럼 규모를 초월한다. 이런 중요성과 진주의 건축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Structure 구조시스템

Exploded Isometric

목조건축의 복권

처음으로, 전통을 계승이 아닌 창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립진주박물관과 경남문화회관에서 보인다. 축석루의 떠있는 큰 지붕이 현대 진주의 건축에 영감의 대상이 된 것은 지명하다. 전통 가구식 목구조는 경남문화회관에서 콘크리트 기둥과 주두로 재해석되었다. 서까래로 이루어진 깊은 처마는 국립 진주박물관에서 추상적인 선이 중첩된 수직적인 지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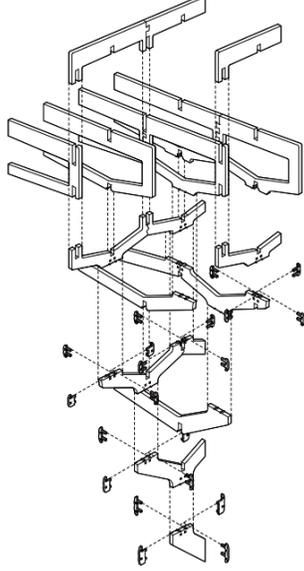
콘크리트를 사용한 두 기둥의 선례와 다르게 '빛의 루'는 목조건축의 복권을 선언한다. 새로운 시대의 목조건축인 '빛의 루'는 알고리즘 설계, 증강 현실(AR)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특히, '빛의 루'를 지탱하는 6개의 나무는 전통 건축에서 기둥과 지붕을 연결하는 공포(栱包)와 같은 가구식 구조 결구를 컴퓨터를 이용해 재창조한 것이다.

디지털 페브리케이션으로 다시 탄생한 축석루 6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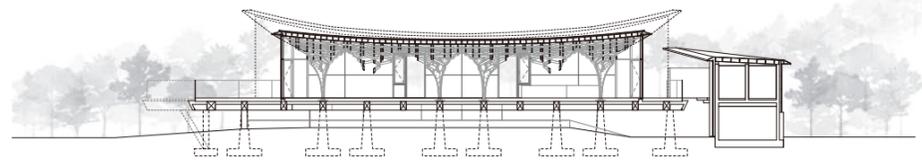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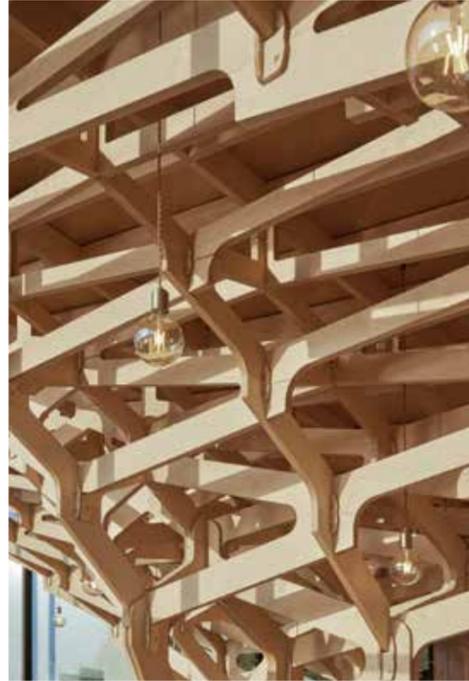
6개의 나무 구조는 축석루 6량의 현대적 재해석이자 오마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빛의 루'는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건축이다. 전통 건축에서 모티프를 가져왔지만 설계에서 제안하고

시공에서 구현한 방식은 온전히 최신 기술의 도움에 의한 것이다. 전통 목구조는 우리 시대의 공학 소재와 디지털 페브리케이션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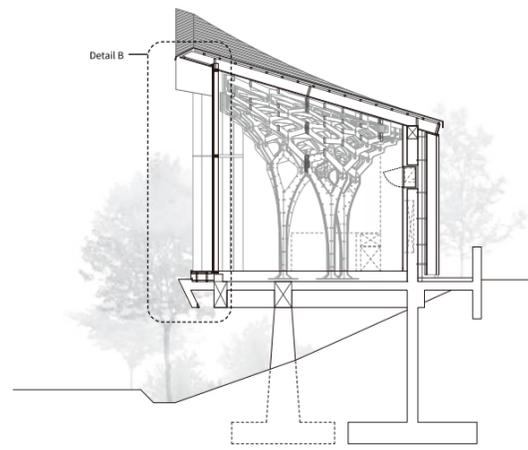
목재접합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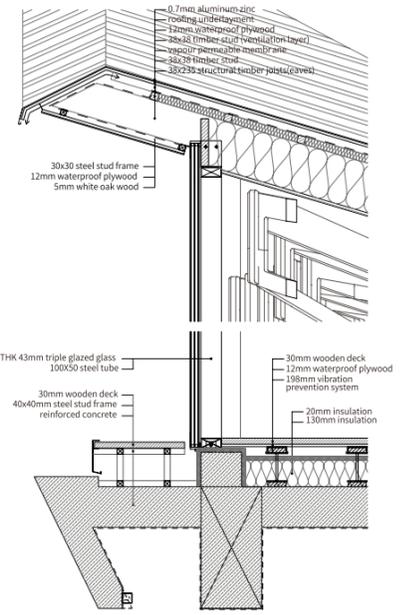
Detail A



Longitudinal Section (scale: 1/200)



Section (scale: 1/70)



Detail B (scale: 1/15)



21세기 공공 누각 건축

다음으로 '빛의 루'는 누각(樓閣)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다. 누각은 현대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 유형이다. 누각은 영어로 파빌리온으로 번역된다. 현대 건축에서 파빌리온은 형태와 기능에서 자유롭고 개념에 충실한 건축 프로토타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파빌리온의 현대적 의미로 봤을 때 누각은 파빌리온과는 다름이 분명하다. '빛의 루'는 21세기 누각 건축이다. 실험적 건축이지만 공공 건축으로 시민들이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색다르게 경험하는 공간이 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증강현실(AR)을 이용한 목업 제작과 시공



유등이 되어 남강을 비추다

'빛의 루'의 전면과 좌·우측 3면은 열려있어 방문자들은 주변 환경이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후면의 벽은 나무 구조체의 그림자를 담은 추상적인 배경이 된다. 벽은 3개로 분리되어 건물 뒤 숲을 제한적으로 내부에 보여주기도 한다. 진주 유등축제에서 '열림'의 개념은 반대가 된다. 내부 조명에 의해 건축 자체가 유등이 되어 남강을 비추는 것이다.

촉석루가 몇백 년을 지나 계속 발전했다면 어떤 모습을 지녔을까? 특정 계층을 위하고 특수한 목적을 가졌던 누각 건축은 기술의 발전과 공공성의 대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르게 진화하였을지도 모른다. '빛의 루'는 이러한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빛의 루'는 새로운 누각이다. 21세기 촉석루이다.





준공 부문 | 최우수상

종암스퀘어

Jong-Am Square

위치: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1288

대지면적: 1,455m²

연면적: 693.77m²

건축면적: 751.06m²

규모: 지상1층

주구조: 철골구조, 목구조

준공일: 2020. 12.

설계자: 심플렉스건축사사무소 박정환, 송상현

시공자: (주)소보건설 허수구



개선이 필요했던 고가 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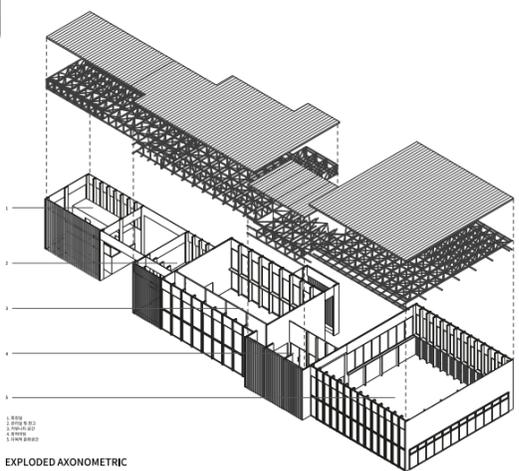
서울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가져온 철도, 교량 등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주변의 도시적 맥락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됐다. 아직 그 흔적이 시내 곳곳에 남아 있는데 그중 한 유형이 바로 고가도로의 하부공간이다. 고가도로 하부는 대부분 특별한 쓰임새 없이 방치되거나 쓰레기 적치장과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과 방범 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진 공간으로 인식되어온 고가도로 하부는 인구에 비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개발지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을 알아본 서울시는 고가도로의 하부를 활용하여 사회기반 시설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했다. 종암동 고가도로 하부 프로젝트도 그 사업의 일환이다.



머물기 어려웠던 교통섬

높이 10m의 고가도로 하부에 위치한 중앙사거리의 유휴공간은 15~20m 도로에 둘러싸여 있고, 북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의 교차지점이라는 상습적으로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이다. 그 중앙사거리를 지리적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돈암1동, 월곡1동, 중앙동은 대규모 주거단지과 여러 교육시설이 들어선 곳이지만 공원, 녹지 등의 공공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네다. 대지 동쪽으로 산책로를 갖춘 정릉천이 있지만,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악취가 심하고 미관이 좋지 않다. 서측 블록의 상업지역과 왕래하는 보행 흐름이 빈번함에도,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로 조성되는 시설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 겸 쉼터의 역할이 요구됐다.



원활해진 보행 흐름

어긋난 모양의 두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대상지는 정릉천으로 진입하는 보행 경사도와 이어진다. 만약 이 공간이 정비된다면 사람들의 보행 흐름을 잘 이어줄 것 같았다. 그래서 세 방향의 접근동선을 방해하던 기존 데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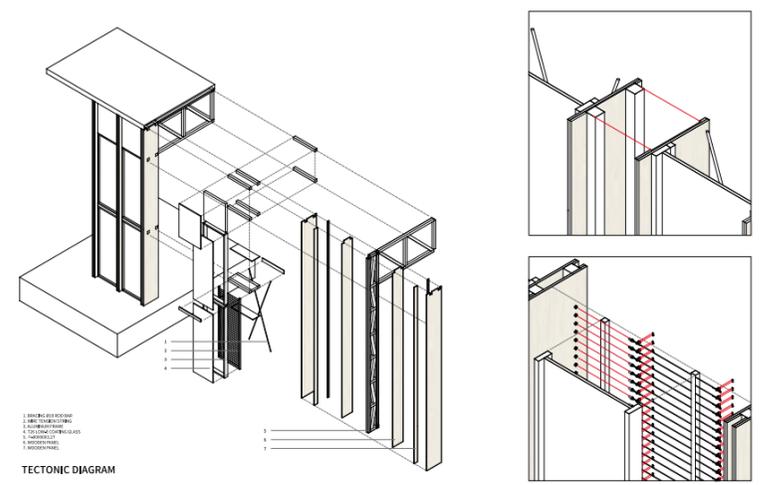
중앙 분수대는 철거했고, 그곳에 분절된 듯한 형상의 건물을 놓았다. 매스 사이의 공간들이 공공보행로로서 작동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와 이웃들과 함께 활동할 것이라 기대했다.



프로그램에 따라 변하는 공간

분절된 매스들은 도로 사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각각의 고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중 다목적 문화공간은 운동, 공연, 강연 등 활동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영역으로, 커뮤니티 공간은 필라테스, 전시, 소규모 모임 등 비교적 정적인 행위를

담는 영역으로 계획했다. 창작마당과 다목적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 사이에는 자유로운 공간 확장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폴딩도어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한 공공보행로에는 건물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목재 선반, 벤치 등의 설치물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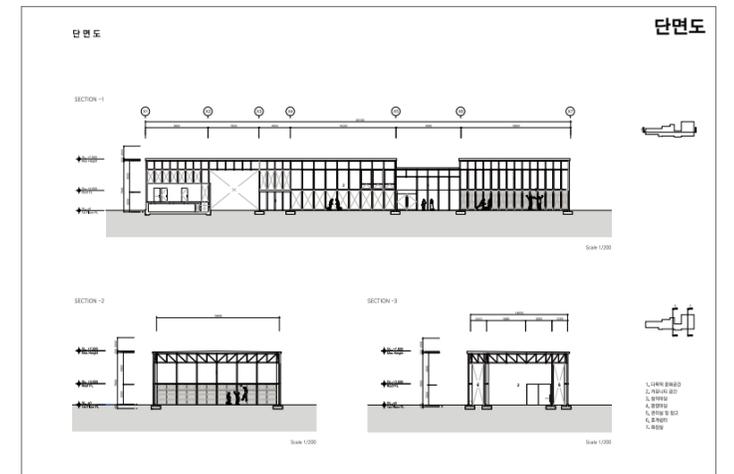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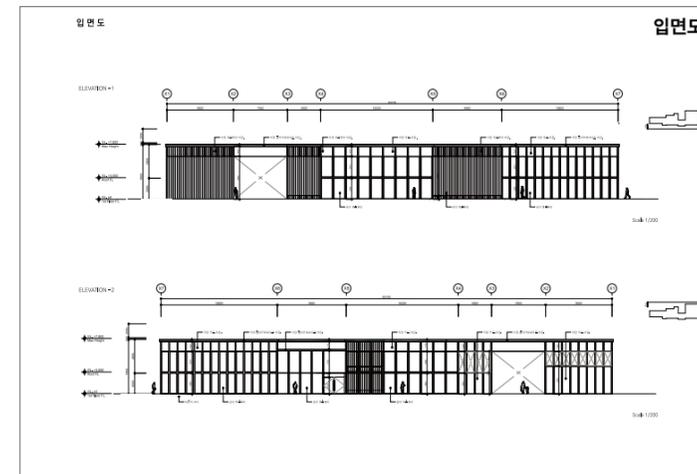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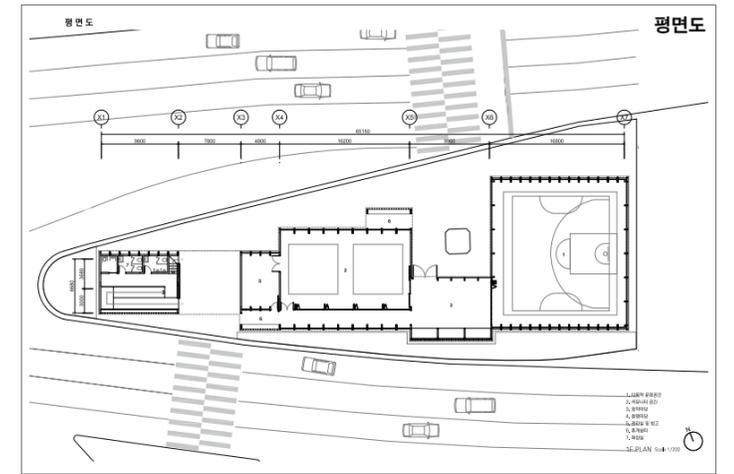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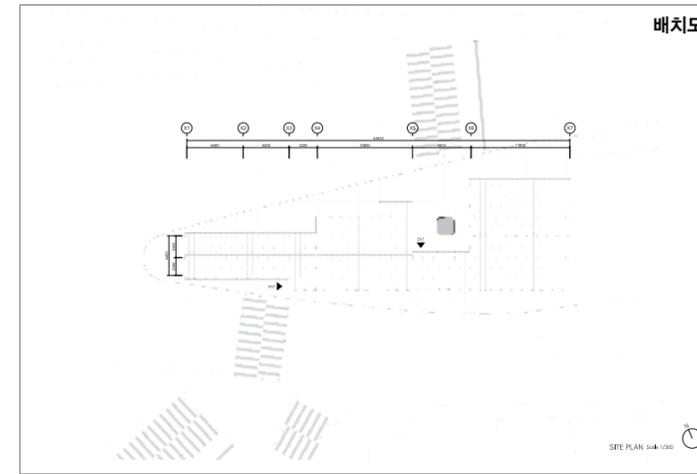




내·외부의 소통과 차폐

공모 단계에서는 공사 예산을 고려하여 각 프로그램을 반 외부 공간으로 계획했으며, 내·외부가 소통하면서도 시각적인 차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실내공간으로 변경했다. 증암스퀘어의 형태와 구조를 설계하면서 극심한 교통량으로 인한 소음, 매연,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인 취약점을 차단하는 것을 우선

고려했다. 목재로 이루어진 전체 구조물이 시각적으로 바깥의 모습을 차폐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사이를 채우는 유리 창호와 목재 루버는 소란스러운 외부환경을 극복하면서도 내·외부 간의 시각적 소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건물 위 지붕은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마감하여, 고가 밑에 머무는 비둘기의 배설물로 생기는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햇빛을 안으로 들인다.



사진제공 © 박정환

철골과 목재의 조화

초기 계획안은 건물 전체를 목구조로 구성하였으나, 목재만으로 하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비용적인 한계가 있어, 철골로 전체 구조를 형성하고 거기에 목재를 덧대는 현실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안정감 있는 철골구조와 목구조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목재 루버의 흐름이 더해져 실내에서 보이는 외부의 시각 환경을 차단한다. 남북방향으로 형성된 구조체는

철골구조 양쪽에 적삼목을 덧붙인 형태를 취해, 구조미를 드러내면서도 목재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그리고 건물 바깥에 마감된 적삼목 패널을 실내로도 들여와 내부 벽체에 시공된 자작나무 합판과 함께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반복되는 널 틈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철골과 목재의 조화를 통해 고가 하부의 삭막한 위기를 활기차게 바꿔보고자 했다.

준공 부문 | 최우수상

하동 한옥문화관

Hadong Hanok Culture Center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대지면적: 9,513m²

연면적: 안채 : 91.85m², 사랑채 : 64.65m², 별채 : 35.31m², 관리동 : 202.27m²

건축면적: 안채 : 91.85m², 사랑채 : 64.65m², 별채 : 21.12m², 관리동 : 142.74m²

규모: 안채, 사랑채-지상1층, 별채, 관리동-지하 1층, 지상 1층

주구조: 안채, 사랑채-한식목구조, 별채-철근콘크리트, 한식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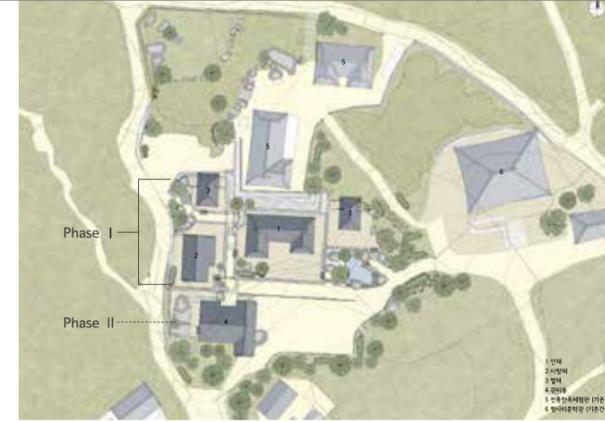
관리동-철근콘크리트, 한식목구조, 경량목구조, 중목구조

준공일: 한옥체험관-2019. 11., 관리동-2021. 3.

설계자: (주)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조정구

시공자: 한옥체험관-(주)토왕건설 문혜란, 토담건설(주) 홍일표,

관리동-(주)아라한건설 이성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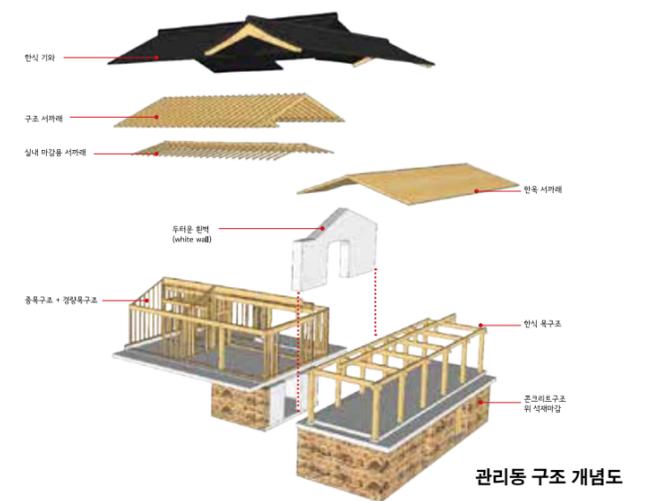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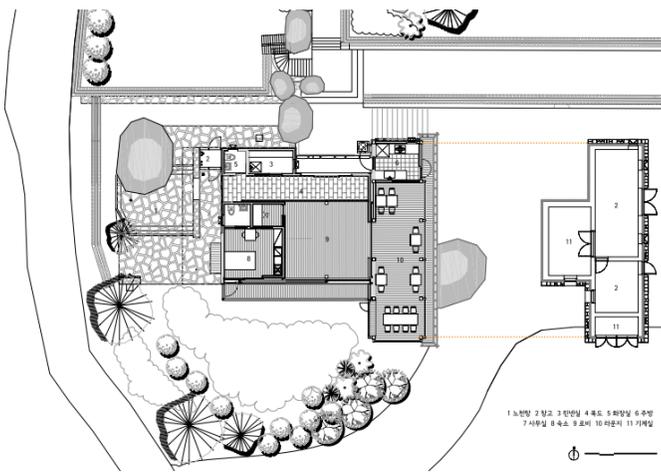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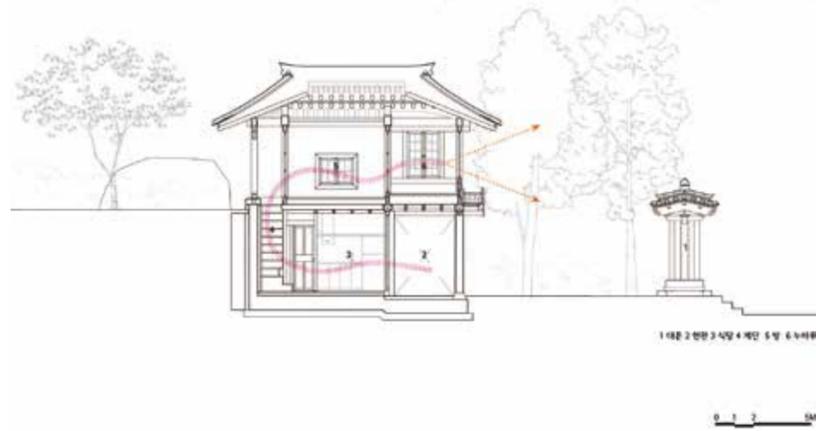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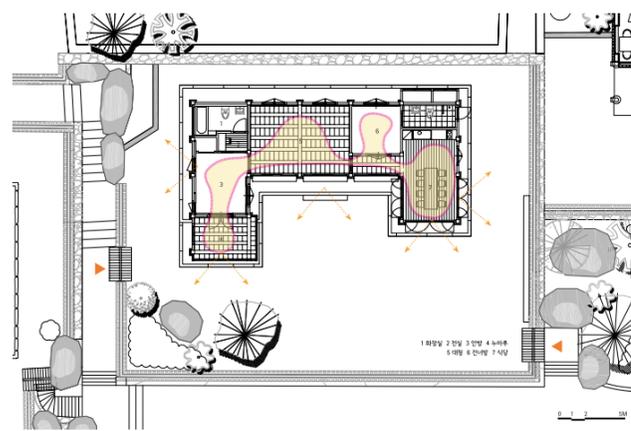


Phase I 숙박동, 3가지 유형의 한옥을 제안하다

하동 한옥문화관은 하동군 평사리 최첨판댁 뒤편에 자리한 한옥숙박시설이다. 경사진 대지는 멀리 남쪽으로 평사리 평야와 섬진강이 보이고, 주변으로 가깝고 먼 산에 둘러싸여 자연경관이 뛰어난 천혜의 땅이다. 기존에 문학가들을 위한 지원시설로 지은 한옥 두 채가 맨 위쪽에 있고 그 아래로 골목과

담장을 둘러 안채, 사랑채, 별채 3가지 유형의 숙박동 4채를 계획하였다. 전통 한옥에 기반하여 지은 기존 한옥은 기능적으로 불편하여 사용률이 저조한 상태였기에 새로운 숙박공간을 생각하면서 사용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각각의 매력을 가진 한옥을 고안했다.





수평적 서사 구조와 수직적 서사 구조

안채는 가족이나 수행원과 함께 오는 VIP 손님을 위해 계획되어, 독립된 방과 욕실을 두고 마당과 대청, 개방적인 식당과 주방 등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계획하였다. 사랑채는 모임에 적합한 주방과 식당을 두고, 남쪽으로 박공을 뺀 지붕 아래 평상과 쪽마루를 두어, 눈앞에

펼쳐지는 풍광과 햇볕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안채 뒤편 양쪽으로 지어진 두 채의 별채는 작은 2층 한옥으로, 단출한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 계획한 공간이다. 한옥으로 오막과 같은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미니 한옥이다. 안채의 경우, 안방과 누마루, 마당과

대청, 개방적인 식당 등, 수평으로 펼쳐진 하나의 평면에서 체험자는 공간을 이동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간과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서사'는 전통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서사구조라 할 수 있다. 한편, 별채는 작지만 '수직적인 서사구조'로 계획하였다. 누마루 아래로

들어와, 주방을 지나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면, 그 위에는 한지로 싸인 단출한 방과 그 앞에 딸린 누마루가 보인다. 누마루에 올라서면 대지 레벨에서는 볼 수 없던 하동의 풍광이 펼쳐지며 체험자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홀가분한 느낌을 경험한다. 오두막에서 착안하여 이제까지 없는 새로운 유형의 한옥을 만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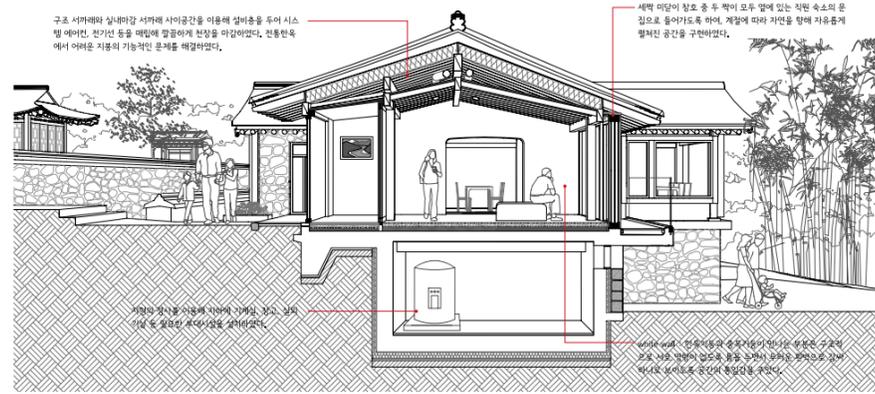
Phase II 관리동, 엄마와 같은 공간

새로운 숙소가 완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자, 관리동 설계를 추가로 의뢰받았다. 숙박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관리동의 성격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가족을 돌봐주는 엄마 같은 공간, 사람들을 맞이하는 포근한 공간'을 구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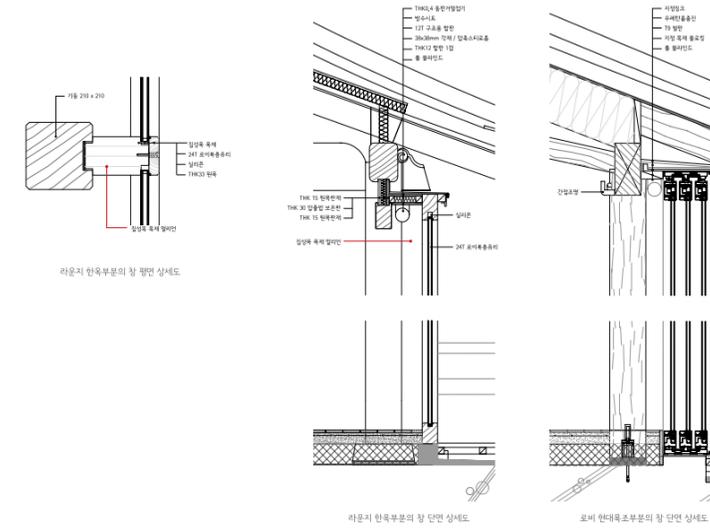
중간 계단참과 가까운 자리에 관리동을 배치했다. 접근이 쉬워 동선이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건물에 진입하며 눈앞에 펼쳐질 '대나무 숲의 전경'을 상상하며 설계하였다. 더불어 바위 위에 떠있는 루와 같이 투명한 공간을 라운지로 하여 입구의 로비와 결합하였다.

부드러운 하이브리드와 white wall

계획을 진행하면서 로비 부분을 한옥구조에서 중목구조로 바꾸었다. 주어진 예산에 맞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들보가 없는 시원한 공간'이 개방적으로 열리는 창호 시스템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와지붕을 받치는 구조 서까래 아래에 실내 마감용 서까래를 두어 낮은 경사의 포근한 공간을 만들고, 양쪽에 흰 벽을 주어 아늑함을 주려 하였다. 특히 식당과 홀 사이에 두터운 흰 벽(White Wall)을 두어 어지럽게 서있는 한옥 기둥과 목조 기둥을 감싸 내부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요한 매개요소로 활용하였다. 서로 다른 구법의 공간이지만 기와지붕을 덮어 전체적으로 한옥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하이브리드'를 시도해보았다.



시공 과정



투명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위한 창호 디테일

멀리 있는 풍경을 안으로 들고자 기둥만 서 있는 듯한 '투명한 공간'을 만들려 하였다. 로비에는 기둥과 도리 뒤로 부재가 안 보이게 큰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여 언제나 자연을 향해 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구현하였다. 한편, 한옥구조로 지어진

라운지 공간에는 기둥보다 폭이 좁은 집성목 멀리언을 붙여 유리창을 설치하고, 블라인드 역시 접어서 보이지 않도록 상부에 공간을 마련하였다. 전통의 미가 느껴지면서, 동시에 우리 시대에 맞는 여유와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공간을 의도했다.



사진제공 © 박영재



미래의 경계에 서다

공간을 열어 자연의 바람을 쐬며 시원하게 하동의 풍광을 누릴 수 있는 집을 생각했다. 한옥을 고집하지 않고, 쉽게 짓는 방법을 찾았다. 한옥과 중목구조가 지금은 부드럽게 하나가 되었지만, 어쩌면 앞으로의 한옥은 전통 목구조가 없는 기와지붕 집이 될 수도, 그것마저 사라진 한옥이란 말이 거주장스러운 '어떤 집'이 될지 모르겠다. 이 집은 그 미래의 경계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준공 부문 | 최우수상

묘각형주택

Cat-tagonal House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대지면적: 258m²

연면적: 199.91m²

건축면적: 51.45m²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주구조: 지하RC구조 및 경량목구조

준공일: 2020. 7.

설계자: (주)비유에스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박지현, 조성학

시공자: 신민철



맥락이 부재한 땅

처음 동천동의 땅을 방문했을 때 땅 주변은 토지 조성을 위한 토목 작업이 한창이었다. 토목 공사로 각종 중장비들이 오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이제 겨우 윤곽을 드러낸 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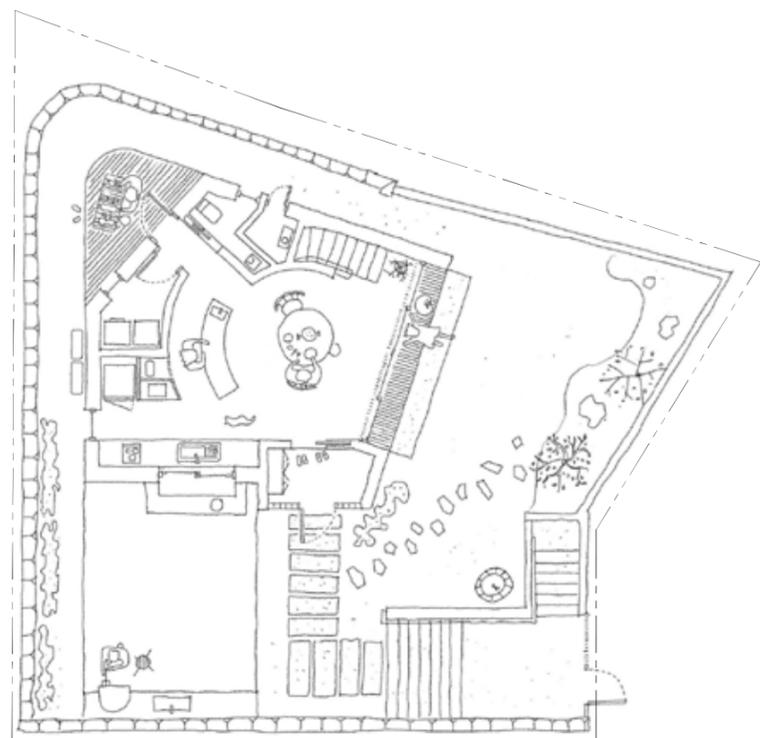
건축가들이 그러하듯 우리 또한 건축을 고민하는 가장 첫 출발은 땅을 통해서 그 주변을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을 찾는 일일 것이다. 땅 계약을 마치고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는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땅 한 곳을 보여주었다. 다르게 말하면 땅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지에서 비 선호되던 땅인데 우리에게 그 땅이 이미 계약된 토지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주택단지에 건축을 완성하는 일은

매우 낮은 경험이다. 남들보다 빠르게 집을 짓는 것이 좋은지 혹은 주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실체를 확인하고 조금 나중에 짓는 것이 좋을지는 아직도 선뜻 무엇이 좋다는 답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판교의 주택단지가

그러하듯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집들은 이웃집들을 등지고 내향적으로 생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시간이 누적되어 집집마다 서로의 여백을 보완하며 조성된

자연스러운 마을의 모습과는 분명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중 다행인 점은 동천동의 주택은 도시의 주택단지과 다르게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건축의 면적에 비해 마당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1층 평면도

오각형

집의 평면은 오각형이다. 오각형은 다각형 도형 중 처음으로 모든 모서리를 둔각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이다. 집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집의 어떤 모서리에서도 직각이 없다는 점은 결국 "낭비되는 공간이 많이 생긴다"로 결론이 날 것이다. 대부분의 가구와 가전 그리고 시스템화된 불박이장 등의 것들이 직각의 벽을 전제로 제작되기

때문에 앞서 나온 결론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집에서 우리가 둔각 모서리를 제안한 이유는 그 부드럽게 열려있는 끝의 모습 때문일 것이다. 집뿐만 아니라 동네의 골목길을 걷는 경험에서도 직각의 모서리보다 둔각의 모서리를 만났을 때의 기분은 막힌 벽을 마주한 것과 열린 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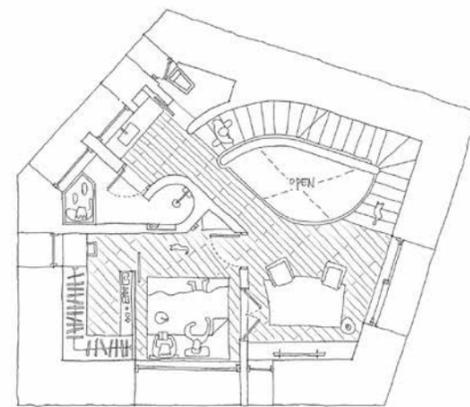
만나는 것처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지면과 만나게 되는 단독주택의 환경을 땅과 연계하여 연속하는 경험으로 치환시켜주는 꽤 유용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조경가인 아내는 다른 조건의 별이 드는 마당이 필요했고 남편 또한 나머지 80%의 외부공간을 하나의

통합된 마당이 아닌 여러 세분화된 목적에 맞춰 사용하길 원하였기 때문에 오각형인 집의 배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다. 최근 글을 쓰기 위해 오랜만에 다시 묘각형주택을 방문하였고 내부의 빼놓아진 모서리들을 다시 스치며 지나는 기분은 여전히 몇 번을 반복하여도 낯설고 기쁜 감정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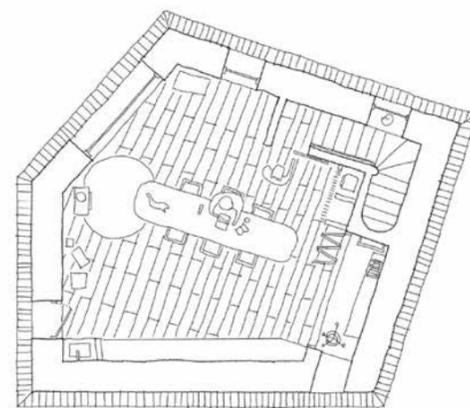


경량목구조의 집

묘각형주택은 건폐율 20%의 땅에 건축되며 여백의 건축면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땅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 3층의 벽을 하나의 지붕처럼 구성하여 1층에는 처마를 만들고 2, 3층에는 적당한 깊이의 창이 되도록 하였다. 벽이자 지붕인 외벽을 만들기 위해 구조용 목재를 경사면과 수직면을 목조트러스와 같은 형식으로 연결하여 일종의 이중구조를 이루도록 하였고, 이는 배수관이 이동하는 설비층이자 외부의 일사로부터 보호하는 통기층의 역할을 하게 된다.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시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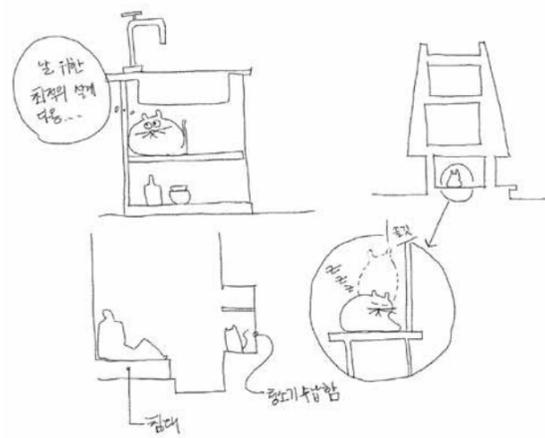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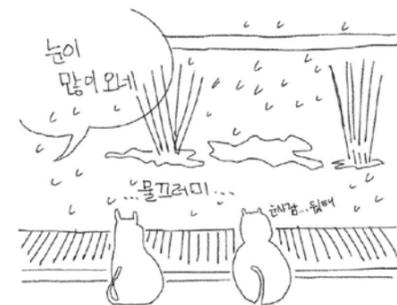




고양이와 사람

묘각형 주택에는 망고와 탱고 두 마리 고양이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집을 설계하던 첫 시점부터 고양이와 사람이 어떻게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지가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였고, 집사들의 입을 통해서 두 고양이의 성격과 필요한 공간의 기능들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고양이와 함께 사는 집을 설계했는데, 그 경험에서 느낀 점은 고양이도 사람처럼 고양이마다 성격 차이가 있고 각 고양이마다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별적 성격의 차이에서 생기는 번곡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양이와 사람이 서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면 화장실과 옷 관리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양이가 본인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전용 화장실 마련은 필수이고, 고양이가 뽀내내는 털을 적절하게 차단하려면 고양이 접근이 제한된 드레스룸을 만드는 것은 집사들의 공통적인 설계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그 외에도 두 망고와 탱고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진 창문과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창 뒤로 간살의 목재 창을 두어 안전하게 외부와 만날 수 있게 하였다.



동그란 계단

집은 건폐율 20%를 적용하여 한 층당 15평씩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실과 침실 그리고 작업실이 세 개의 층에 각각 나뉘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고양이들에게도 하루 중 수 번에 걸쳐 수직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직 이동의 경험을 부드럽고 더 완만하게 만드는 방식을 고민하며 집의 계단을 수차례 수정하여 현재의 계단의 모습을 완성하였다. 이 계단을 중심으로 1층과 2층은 열려있으며 어디 숨어있을지 모르는 고양이와 계단을 통해

매번 숨바꼭질하게 된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계단 뒤에 머리를 빼꼼 내밀어 새로운 사람들을 궁금해하는 탱고를 만나는 일은 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를 행복한 감정으로 이끄는 기다림의 순간이다.



사진제공 © 노경

준공 부문 | 최우수상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Myeongseok-myeon Community Cultural Center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305-3

대지면적: 2,400m²

연면적: 270.64m²

건축면적: 270.64m²

규모: 지상 1층

주구조: 목구조(철골조+LVL)

준공일: 2021.10.

설계자: (주)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신성진, 손경민

시공자: 류앤드김종합건설주식회사 여한영, (주)수피아건축 이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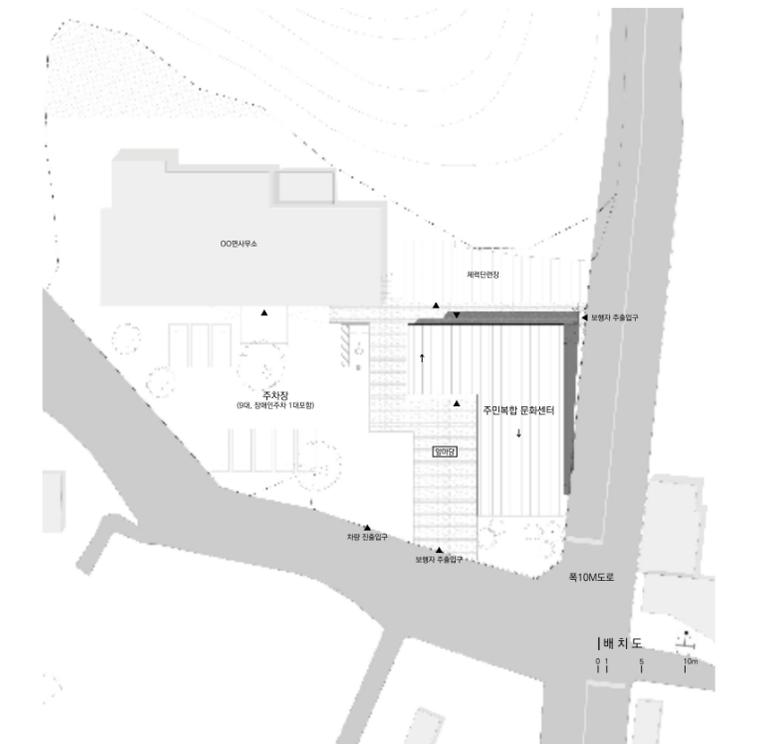


주민자치거점으로서의 회복

명석면사무소는 기존에 청사의 2층 공간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그 역할을 대체해 왔으나 다양한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증가 및 협소한 공간과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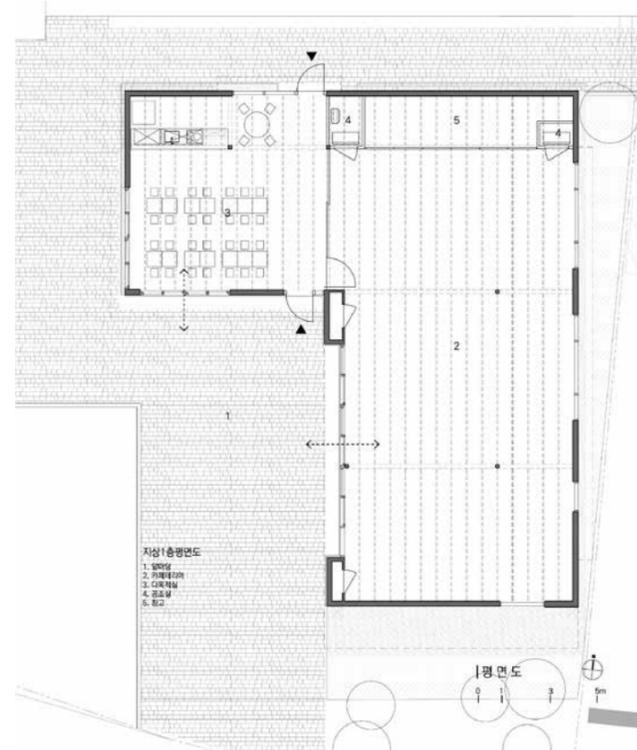
새로 지어진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는 단순히 넓고 접근하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농촌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차원의 공간 및 문화, 교류 활동을 수용하여 제공하는 주민자치 거점을 조성하는데 집중한 결과물이다. 또한 기존 면사무소 전면 보차 구분이 없는 주차장을 통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었으나 주민복합문화센터 전면에 넓고 안전한 보행전용 통로를 확보하여 면사무소 및 주민복합문화센터로의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함께 조성된 면사무소와 주민복합문화센터 사이의 안마당은 넓게 열리는 창호를 통해 실내와 연계하여 다양한 주민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기존 농기계창고 및 각종 농업자재들이 적재되었던 창고의 일부를 체력단련장 및 공중화장실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복합문화센터와 긴밀히 운영되는 생활밀착형 주민행정기관으로서 역할하도록 하였다.





천장고 최대 약 4m 최소 약 2.1m의 변화가 있는 다목적실은 지붕 주요 구조부인 LVL Rafter(서까래)의 방향성과 함께 공간구조의 깊이감을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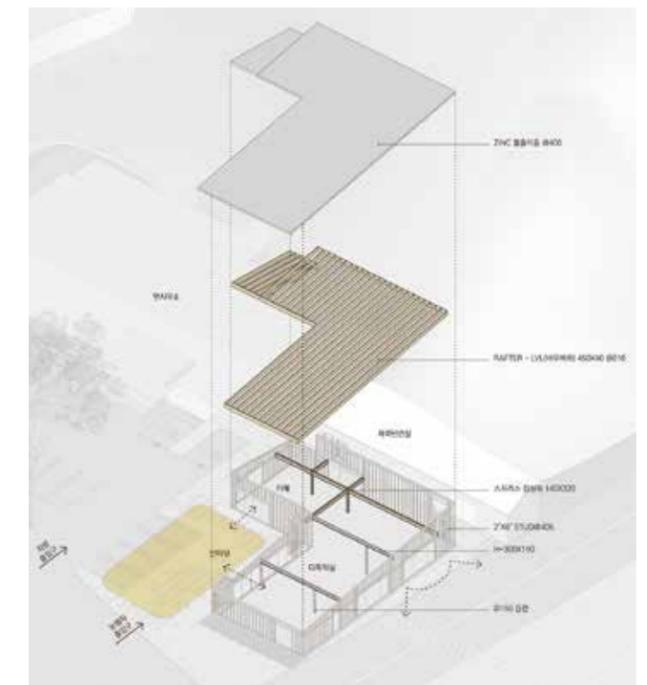


원만한 외경사 지붕의 형태는 주변 야산의 능선에 순응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주변 건물과 정연히 어우러지는 적절한 스케일을 통해 새로 들어서는 센터가 거부감 없도록 하였다.



LVL + 글루램 + 철골 + 경골목구조

경골목구조를 이용하여 전체 볼륨을 잡고 장스팬이 필요한 구간은 철골과 글루램을 이용하여 대공간을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위에 올려진 세장한 450x50 LVL(바우비취-Laminated Veneer Lumber) 라프터는 지붕의 변화와 방향성을 그대로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게 하여 목구조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준공 부문 | 우수상

춘천시 지역먹거리 직매장

Chuncheon Local Food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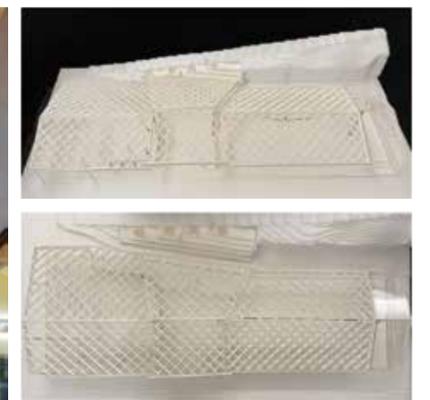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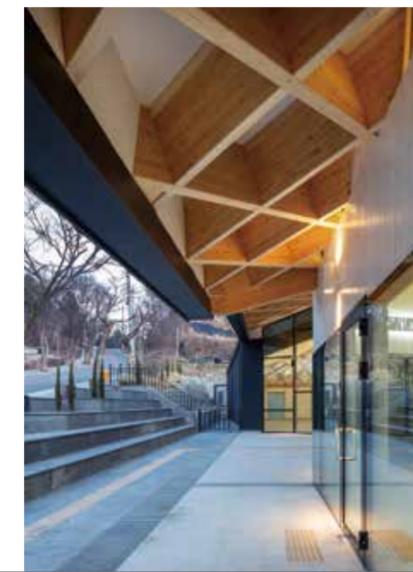
위치: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830(삼천동)
 대지면적: 1,211m²
 연면적: 587.46m²
 건축면적: 590.94m²
 규모: 지상1층
 주구조: 일반목구조 (중목구조+철골+경량목구조)
 준공일: 2022. 3.
 설계자: studiothewon 원계연
 시공자: 백남용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춘천시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 '지역 먹거리'라는 이미지와 부합하는 목구조 건축물을 제안하여 당선된 프로젝트다.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목구조를 과감하게 제안하기 위해, 공모단계에서부터 구조기술사와 협업하였다. 이 시설은 (재)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하나로 생산자(지역 농민 등)가 농산물 등의 가격을 책정하여 매장에 직접 진열하면, 판매대행을 해주고 생산자에게 판매금액의 90%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여러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형식은 '공공건축'이나 결과적으로 '주인 없는 건축'이 되는 경우이다. 공모에 당선된 설계자가 이러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차선책으로 설계 초기부터 운영자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다행히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었고 공사감독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자와의 만남이 설계 초기에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필요한 기능과 공간 구성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건축물의 쓰임 면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반 외부공간인 옥외 데크는 인도에서의 보행 접근과 공영주차장에서의 접근 시 진입마당 역할을 한다. 상황에 따라 판매장(시장)의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고 판매장과 문화공간을 통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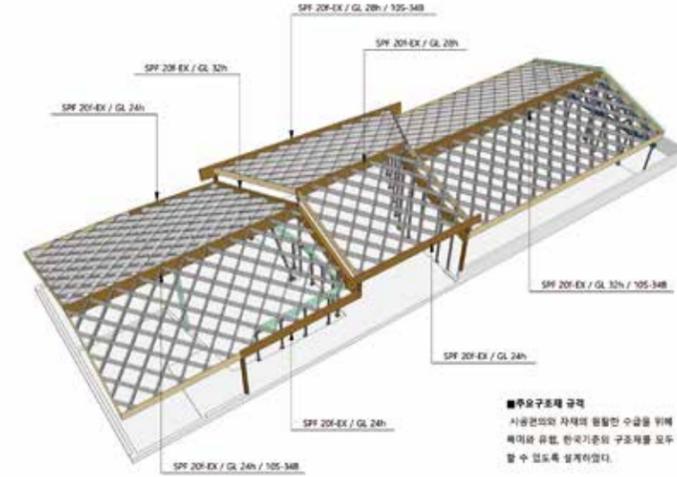




사진제공 © 박관순

평범한 박공지붕의 반전미

이 건축물의 지붕은 평범한 박공 형태이나, 전통적인 목구조에서 박공지붕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방법(기둥+보+서까래)에서 벗어나 벽체와 지붕에 마치 벌집구조와 같은 diagrid(waffle)구조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diagrid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현장집성을 병행하는 구조적 방법을 제안하였고, 건축물 전체의 지붕은 와플 형상의 글루램만으로 풍하중과 설하중 등의 모든 구조를 담당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옥외 데크 부분에 천창을 자유롭게 배치한 것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구조의 시도였기에 협업 구조기술사의 역량이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목구조 시공자의 축적된 시공 노하우와 자재 수급, 가공 역량도 한몫하였다.



▶주요구조재 규격
시공안전과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벽체와 유한 한계기종의 구조재를 모두 적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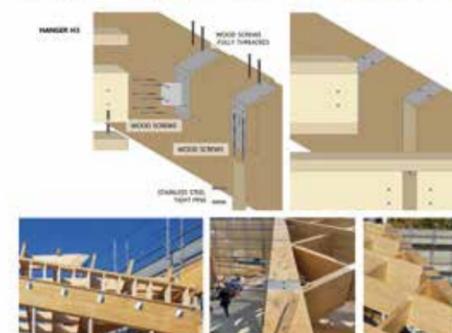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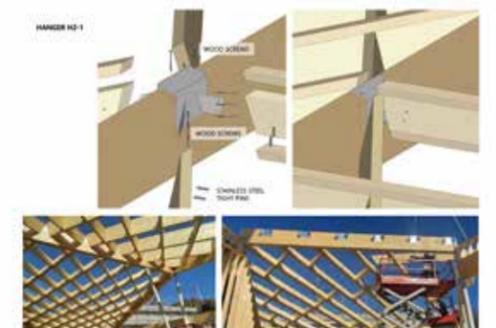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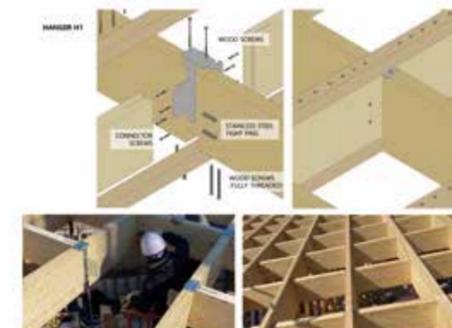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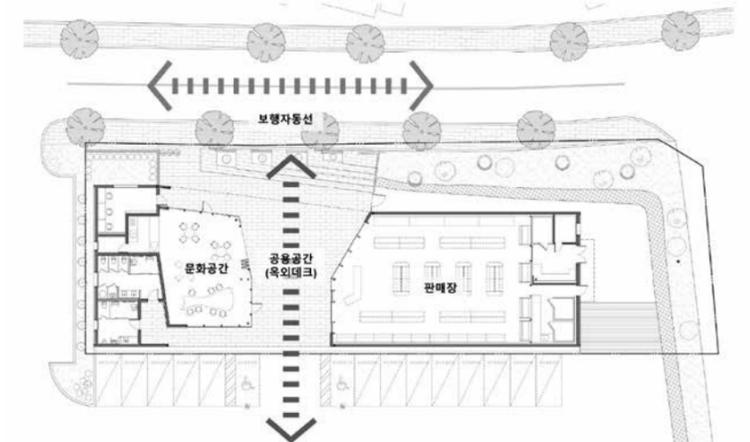


전세배치도

목구조 건축의 확장 가능성

중대형 목구조는 접합이 얼굴이다.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에 부합하며 공사비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구조부재의 접합을 구현해 내는 일은 구조기술사와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구조형식을 구현하기 위해

공모 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구조기술사와 협업하며 부단히 노력했다. 이 프로젝트가 현대식 목구조 건축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먹거리 직매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길 기원한다.



준공 부문 | 우수상

켈크하우스

Kelk Haus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대지면적: 80.07m²

연면적: 119.92m²

건축면적: 45.24m²

규모: 지상3층

주구조: 중목구조

준공일: 2021년 9월

설계자: (주)에이디모베건축사사무소 이재혁

시공자: (주)수피아건축 이주석



독일 생활의 추억을 담은 집

켈크하우스는 상업시설 지역과 아파트단지 사이 주택가 구시가지에 위치한 24평 작은 땅에 지어진 협소주택이다. 이 프로젝트의 건축주는 독일 주재원으로 장기간의 출장을 떠나기 직전 한 번의 상담 후 온라인을 통해 설계과정을 함께 진행하였다. 독일 주재원으로 있는 동안 독일에서 잔디 마당과 계단이 있는 집을 경험한 부부는 코로나 격리 기간에도 단독주택의 이점을 독특히 누리며 생활했고 더 이상 층간소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부부의 아이들은 “축구를

할 수 없는 곳은 집이 아니다.”라고 했다지만 우리는 서울 구도심 작은 땅에 아래위로 펼쳐질 아이들의 놀이터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건축주는 독일 집의 아치문 등 몇 가지 요소를 요청했다. 건축주는 퇴근 후 메일을 쓰고 하루를 마감하였고 나의 일과는 메일을 여는 일로 시작했다. 긴급 상의할 일은 건축주가 출근하기 전 시간에 맞춰졌다. ‘켈크하우스’는 협소주택이지만 겉보기와 다르게 내부에 아주 특별한 계단과 공간을 갖추게 되었다.



계단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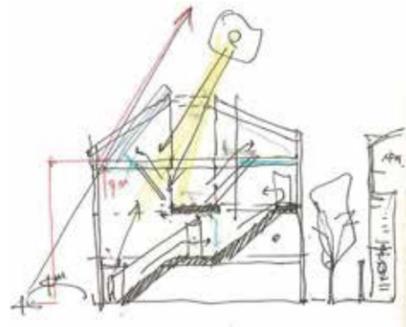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 1층 현관에 서면, 중문에서 3층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기다란 계단과 마주하게 된다. 계단을 따라 책장이 3층 끝까지 연결되는데 ‘가족서가(家族書架)’라 불린다. 이 ‘가족서가’는 책을 위한 역할 뿐 아니라 책상, 옷장, 장식장 등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계단과 각각의 공간을 분리해주는 역할도 한다. 건축주 부부는 3층 계단참에서 긴 계단을 내려다보며 ‘계단 멍’을 즐기고, 아이들은 층마다 달라지는 공간의 변화를 놀이의 시선에서 바라본다.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이동하면서 층마다 달라지는 빛의 변화와 축소되며 돌아가고, 확장되며 개방되는 공간의 변화를 즐기게 된다.





**평면 구성:
빛이 깊이 침투하는 빛 우물집**

2층은 독일 집을 닮은 아치문과 둥근 '공부방'이 있는 곳이다. '공부방'을 중심으로 아들과 딸을 위한 각각의 방을 좌우로 배치하고 욕실 공간을 그 사이에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이 있는 3층은 '켈크하우스'의 가장 넓고 높은 공간으로 두 개의 천창과 오각형 창을 통해 풍부한 광량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천창으로부터 떨어지는 빛은 원형의 바닥 창을 통해 2층 공부방까지 비춘다. '빛 우물집'이라 부르는 이유다.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2층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바닥 창을 통해 보인다. 적당한 분리와 적당한 연결이 실현된 공간이다. 주방에서 계단을 오르면 다락 공간이 있다. 다락은 낮은 층고를 극복하기 위해 돌출된 천창을 만들었다. 이 공간은 부부침실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밤마다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유년의 추억을 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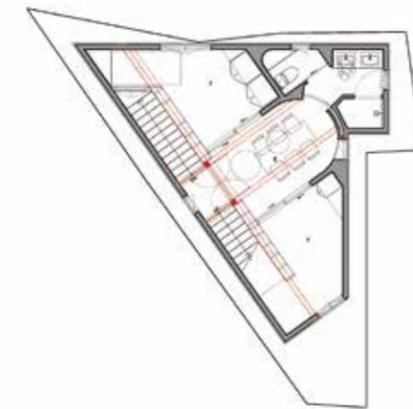
사진제공 © 김장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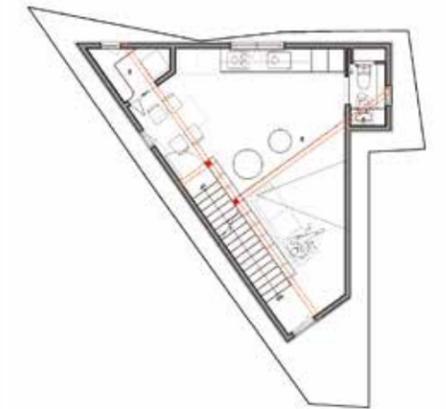
주택에서 필요한 주차 1대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끝부분을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로 처리하여 공간을 알뜰하게 사용하였다. 목구조에서 이런 캔틸레버 구조는 처짐을 발생시켜 장기적으로 건물이 변형되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계산된 공학 목재를 이용하여 구조적 처짐을 잡았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준공 부문 | 우수상

곶작골 마음센터

Gobjakgol Maum Center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효자길 52

대지면적: 1,145m²

연면적: 156m²

건축면적: 249.3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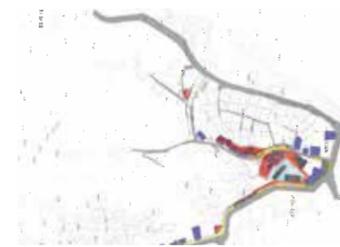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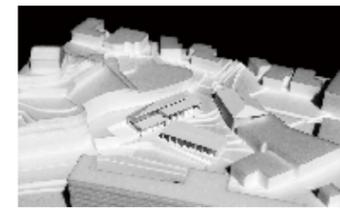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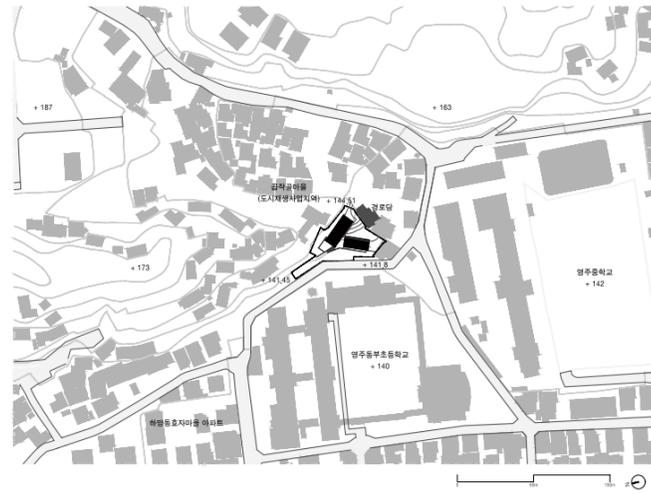
규모: 지상 1층

주구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준공일: 2021. 12.

설계자: (주)숨비건축사사무소 김수영

시공자: (주)청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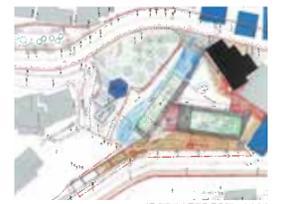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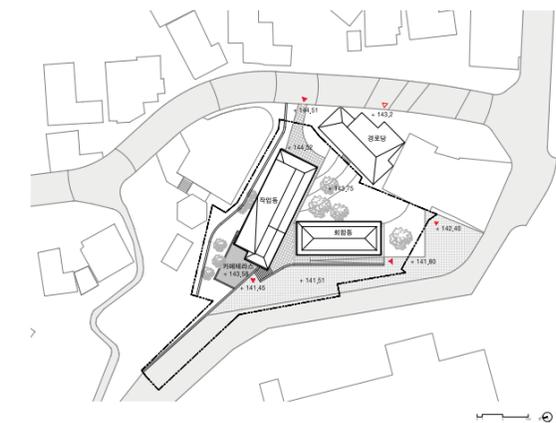


현황과 위치

곶작골 마음센터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앵커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 주민들은 이 건물 작업동의 작업장에서 마을의 특산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품을 작업동의 카페에서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이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대지는 각각각색의 옹벽으로 싸인 경사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대지 뒤로 펼쳐진 옹벽은 위압적이고, 그 위로 대지와 관계 맺지 못한 건물들이 두서없이 서있다. 이런 환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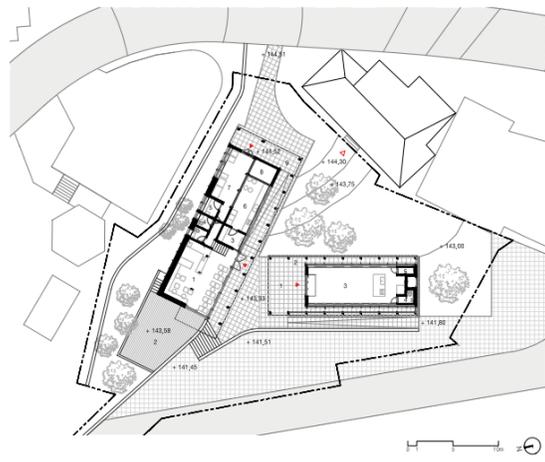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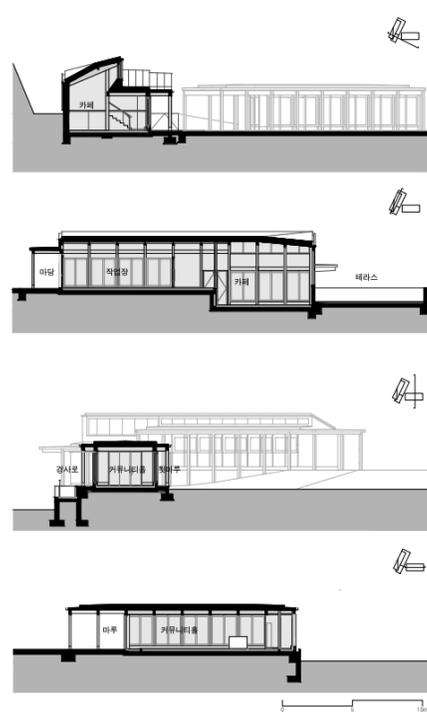
우리가 대지에 건물을 배치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라는 점, 경사지의 윗면과 아랫면 모두에서 접근이 쉬워야 한다는 점, 그리고 건축물이 마을에서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전제로 대지의 레벨을 두 개로 나누고, 그 위에 단층 목구조 건축물을 제안하였다. 대지 한쪽에 붙어있는 기존 경로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삼각형의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작업동과 회합동을 나누어

배치하였다. 마을을 연결하는 외부공간은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 경사진 외부공간을 통행하고 휴식하며 다양하게 경험한다. 두 개의 레벨에 걸친 두 동의 건축물은 회랑과 처마를 통해 연결되며, 그 사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고 배치하였다. 작업장 전면에는 작업의 특성에 맞게 넓은 마당을 두었고, 카페공간의 외부에는 휴게 테라스를 두어 확장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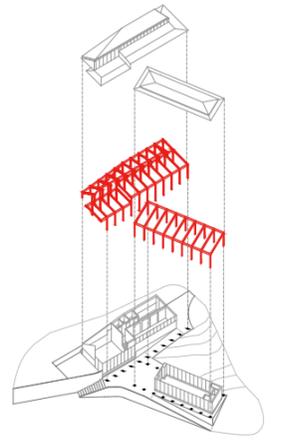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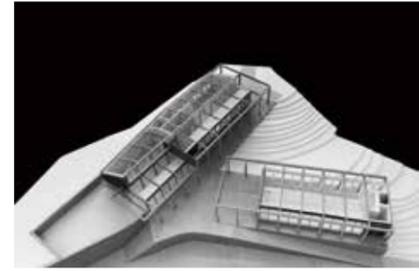


삼각형 공간

곶작골 마음센터는 내부공간의 사용성도 중요하지만, 마을을 연결하는 외부공간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다. 주민들이 늘 통행하는 곳이고,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곳이기도 하다.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경사로 인해 기울어진 외부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 작업동**
- 1. 카페
 - 2. 테라스
 - 3. 휴게실
 - 4. 회합실
 - 5. 복합실
 - 6. 조상작업실
 - 7. 음악작업실
 - 8. 영상촬영고
 - 9. 무대
- 회합동**
- 1. 라운지
 - 2. 동아리
 - 3. 커뮤니티룸
 - 4. 회합실
 - 5. 보일러실



구조와 레벨

140 × 200mm 나무기둥은 내부에서 떨어져나와 열주를 형성하고, 처마와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깊은 그림자를 형성한다. 작업동의 지붕은 가파른 지붕경사를 주어 고측창으로 빛이 유입되게 하였고, 회합동은 전면도로에서 보았을 때

부담스럽지 않도록 가급적 낮고 편편하게 계획하였다. 전면도로에서 1.8m 위에 회합동이 놓이고, 작업동의 카페와 같은 레벨로 연결하였다. 다시 1.2m를 오르면 생산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리듬의 경험

다양한 레벨로 쪼개지고 낮은 높이로 압축된 내부에서의 경험은 외부와는 다르다. 발목양말을 신은 것처럼 기둥은 땅과 만나지 않고, 서로 다른 높이가 주는 목구조의 선들을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경험한 리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무에 부딪혀 맺히는 음영은 콘크리트나 금속의 경우와는 다르다. 재료가 갖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다. 건축물이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동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묻히길 기대한다.

KOREA WOOD DESIGN AWARDS

2022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계획 부문 수상작

대상 |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하는 TCP Complex

(TCP 유닛이 적용된 목조-콘크리트 혼합형 구조의 고층 복합문화업무시설 계획안)

최우수상 | 고궁박물관 리노베이션 (전통건축의 현대적 가능성)

최우수상 | 트리드 하우스 (난민과 이재민을 위한 목조 모듈 재난거주시설)

최우수상 | 아크 (도심 속 사람과 철새의 휴식처)

최우수상 | 도심 속 도서관, 삼목 (목재 활용의 다양한 스케일)

우수상 | 법고창신 (지속가능한 목조건축 계획안)

우수상 | 들林 (광화문광장의 새로운 시민청 제안)

우수상 | 木·造·建·築 박물관 (한국 목조건축 산업화와 활성화를 위한 건축적 제안)

특별상 | 삶과 죽음의 중개적 장소

(죽음에 대한 재해석과 글루램 활용을 통한 후암동 납골당, 커뮤니티 복합시설)

특별상 | 플로팅 온 한강 (목구조를 활용한 한강 수위 상승 대응 방안)

입선 | 빛과 그림자의 구조 (용도에 맞춰 변주하는 빛, 정자의 현대적 재해석)

입선 | 우회하다 (목구조를 활용한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계획안)

입선 | 기억 이-음 (목구조를 이용한 광화문 시민청 & 전시관 계획안)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하는 TCP Complex

TCP 유닛이 적용된 목조-콘크리트 혼합형 구조의 고층 복합문화업무시설 계획안

우정윤, 박성우, 조승완(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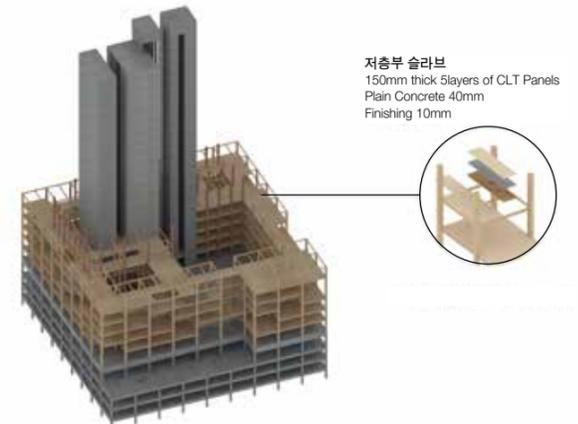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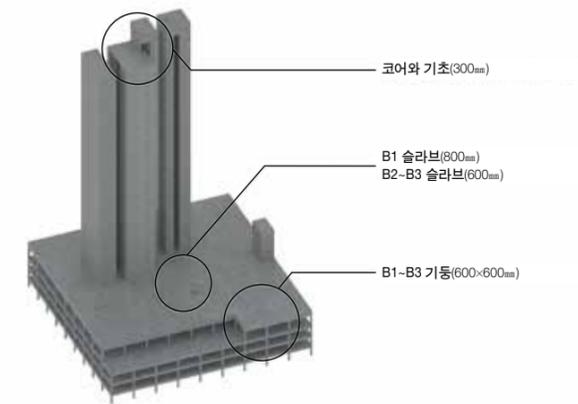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가벼움과 무거움의 속성을 적극 활용한 목구조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계획안이다. 목구조는 기존 콘크리트구조를 완전히 대체하기 이전에 경제성과 시공에 유리한 방식으로 혼합시켜 사용할 수 있다. 코어를 제외한 구조체 전체가 목구조인 공공도서관 및 상업시설은 나무가 주는

심미성 및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 속에서 누구나 마음 편히 들어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가벼움의 속성을 가진다. 건물 상단에 위치할 공유 오피스와 호텔은 조금 더 업무와 개인에게 집중되는 공간이 되도록, 경제적 효율적 설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무거움의 공간이다. 상반되는 프로그램과 상반되는 속성은

구조체에서도 보인다. 목조로 된 보와 기둥, 가구들은 가벼움을 느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육중한 콘크리트와 금속은 이와 대비되는 무거운 속성을 가진다. 이들은 단순히 경계를 지어줄 뿐 아니라 건축물의 복합적인 고려사항들을 모두 충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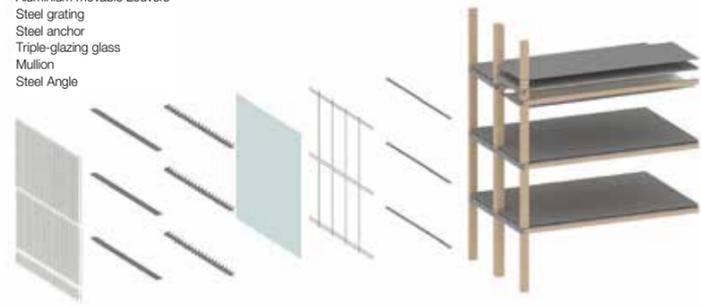
다양한 이용객의 중심 사당역



계단실,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포함한 건물의 코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이다. 풍압에 대한 수평적 저항성과 내진성을 충분히 갖추도록,

그리고 공간의 활용을 위한 배치이다. 건물의 기초에 해당하는 지하층 및 층 슬라브, 기둥, 그리고 벽체 또한 콘크리트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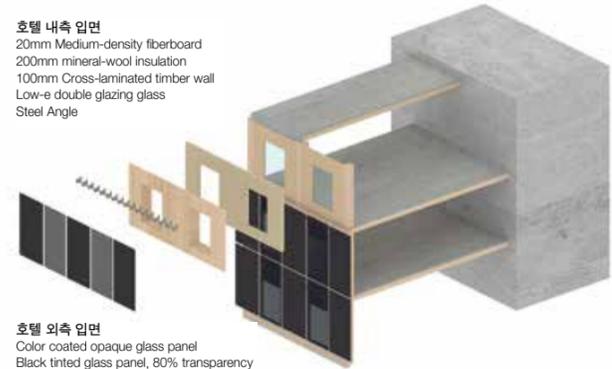
오피스 입면
Aluminium movable Louvers
Steel grating
Steel anchor
Triple-glazing glass
Mullion
Steel 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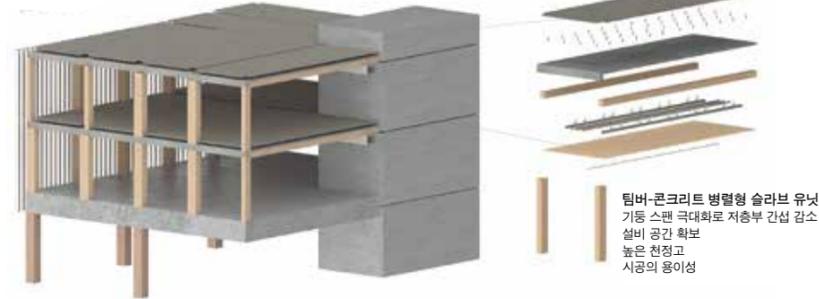
공유오피스가 필요로 하는 실내공간의
가변성을 살리기 위하여 오피스의
기둥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의
목조-콘크리트 하이브리드형 구조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이브리드형
슬라브는 코어와 직접적으로 연결해
기둥 간격을 넓히면서도 설비공간을

보 사이에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뼈대 사이 빈 공간은 층고 확보 뿐
아니라 내화성능 보장과 함께 자연광
이용률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목구조의 최대 강점인 친환경성은
물론이고 경제성과 안전성도 기대할
수 있다.

호텔 내측 입면
20mm Medium-density fiberboard
200mm mineral-wool insulation
100mm Cross-laminated timber wall
Low-e double glazing glass
Steel Angle



TC 구조, Timber-Concrete Hybrid Structure
기존 목구조보다 높은 강직도
부하 용량 혹은 내하력의 증가, 향상된 방음력
진동에 대한 민감도 감소, 수평 브레이싱
콘크리트 부피 감소



팀버-콘크리트 병렬형 슬라브 유닛
기둥 스페인 극대화로 저층부 간섭 감소
설비 공간 확보
높은 친환경
시공의 용이성

호텔 외측 입면
Color coated opaque glass panel
Black tinted glass panel, 80% transpa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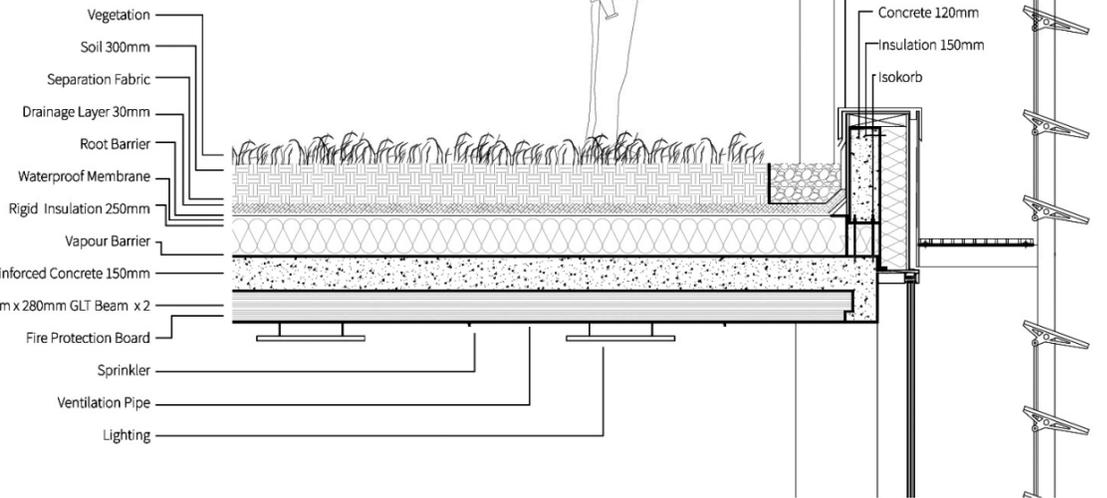


저층부의 문화복합시설은 상부의
고층 건물을 떠받친다. glt는 기본적인
기둥과 보, 거더로 이용되었으며
하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실리는
부분에 psl 기둥이 자리하게 된다.
저층부의 슬라브는 cft패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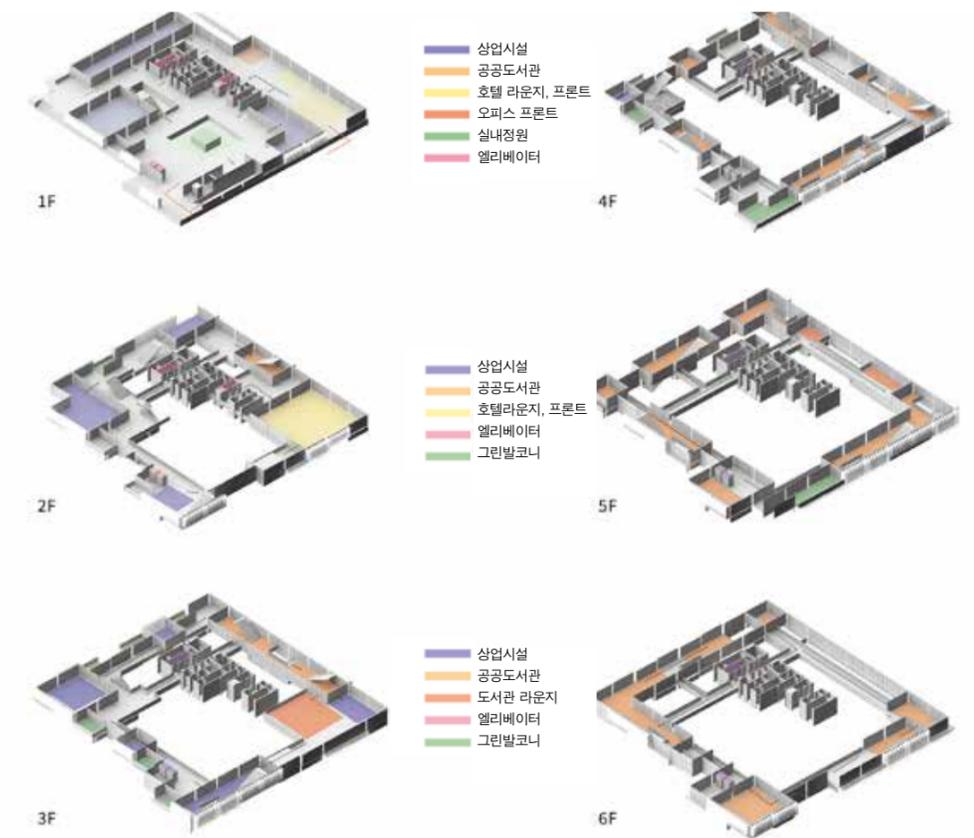
이루어진다. 패널의 크기는 폭 미터,
최대 미터 길이로 구성되며
교차 배치된다. 무거움의 속성을
부여하는 콘크리트와 금속, 가벼움의
속성을 부여하는 투명한 유리와
나무재질이 모두 사용되었다.

건물의 저층부는 도심 속
공공도서관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업 시설은 건물의
출입구 주변으로 배치되고 도서관실은
가운데에 커다란 아트리움을
둘러싼다. 아트리움은 대형 반외부

공간으로, 수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화단과 벤치로 된 쉼터로
이용될 수도 있으며, 북콘서트가
열리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상단부에는 공유오피스와 호텔이
자리한다.



가벼움과 무거움으로 대변되는 재료,
그리고 프로그램 상에서의 대조가 극명히
나타나는 경계는 각각의 물성에 맞는
완벽한 짜임새가 되어 이용자에게 이질감
없이 자연스러운 조화와 균형을 미를
제공한다. 외부공간을 활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옥상녹화를 계획한다.
저층부와 고층부 사이의 옥상 공간은
가벼움과 무거움이 만나는 경계점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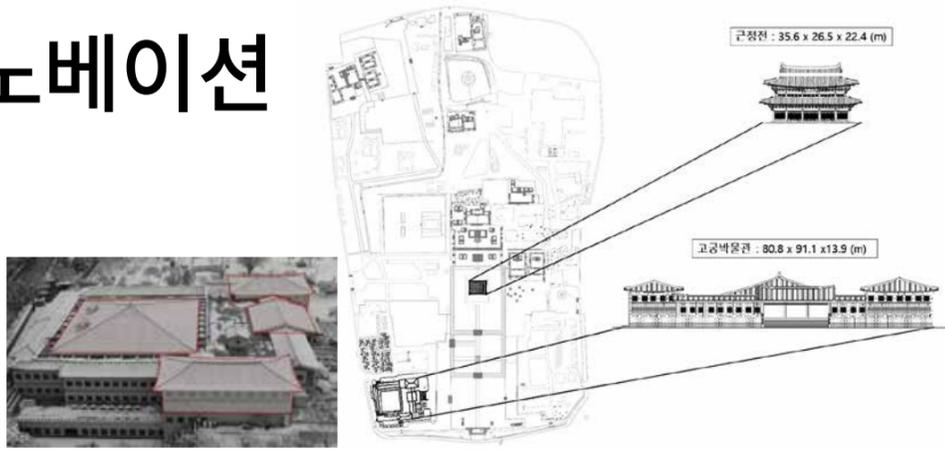


계획 부문 | 최우수상

고궁박물관 리노베이션

전통건축의 현대적 가능성

이재윤, 유영주(한양대학교 건축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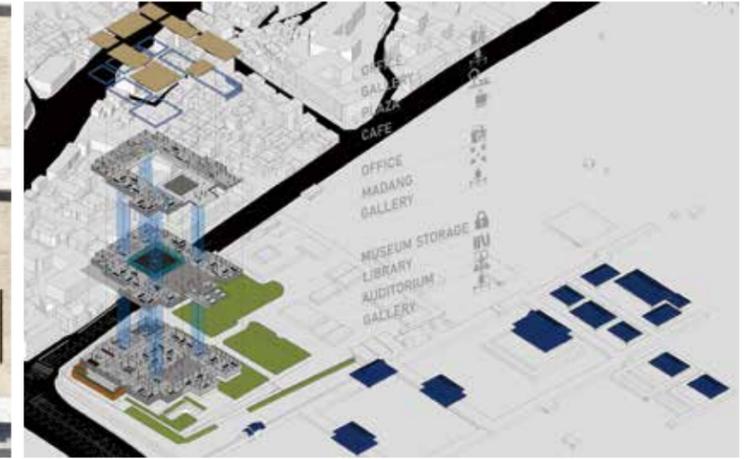


전통 건축에서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나무로 이루어진 구조부분과 기와와 흙으로 이루어진 벽, 지붕 부분이다. 지붕의 기와는 비를 효과적으로 흘려보내고,

흙은 단열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두 요소는 결구방식으로 결합된 목조를 둘러 구조적 안정감을 더한다. 현대의 전통건축을 모방한 건물들을 보면 벽, 지붕, 구조의 구분이 없이 무거운 인상을 준다. 한옥의 스케일을

무시하고 모든 요소가 콘크리트를 사용해 하나의 거대한 매스로 양생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한옥을 흉내만 낸 직설적 복고주의 건물들이 재해석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중 하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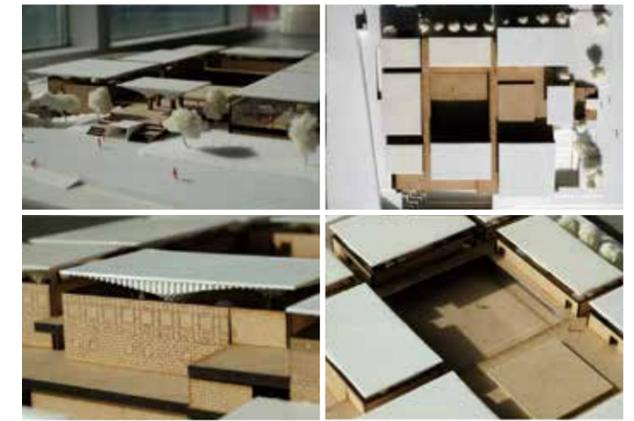
고궁박물관을 선택했다. 고궁박물관은 경복궁 담장 안에 있는 건물로 한옥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경복궁의 컨텍스트와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며, 궁 안에 있기에는 적절치 못한 건물이라고 생각했다.



평면 계획

가장 먼저 리노베이션이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았다. 첫 번째는 벽체다. 경복궁의 질서 안에선 경복궁의 메인 건물인 근정전이 가장 커야 한다. 하지만 경복궁 안에서 가장 큰 건물은 고궁박물관으로 부피가 근정전의 5배나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보존할 수 있는 벽체를 최대한 살리되, 벽체를 분절시켜 여러 채로 나누기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지붕이다. 한옥의 기와지붕을 흉내낸 고궁박물관의 지붕은 구조와 무관한 디자인일뿐더러 한옥의

지붕들보다 기울기가 훨씬 낮아 납작해 보인다. 새로운 지붕은 한옥 지붕의 생성원리를 따라 자연 발생적인 지붕으로 디자인했다. 한옥 지붕은 보와 기둥에 걸리는 모멘트 하중에 따라서 지붕 모양이 디자인됐다. 이렇게 디자인된 지붕은 목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옥과 같지만, 결구방식으로 지어진 한옥과는 달리 현대 기술인 언더텐션 구조를 이용해 훨씬 가벼운 부재로 마치 지붕이 부양하는 듯 디자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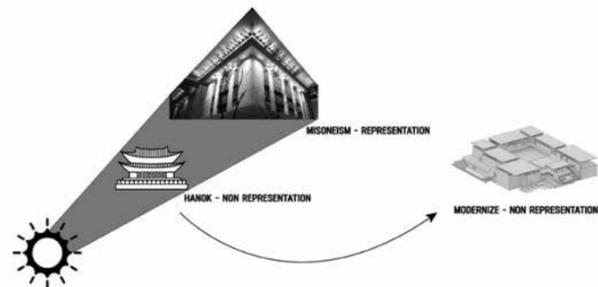




1. 새로운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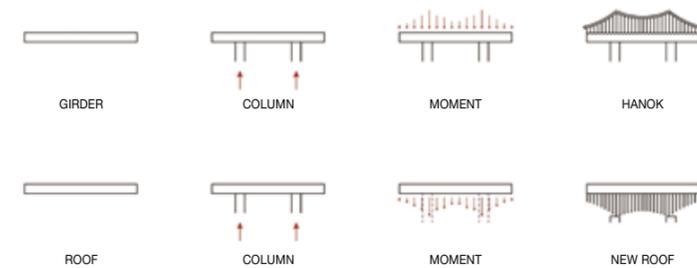
디자인 목표 : 한옥의 내재적 특성과 생성원리를 비표상적으로 구현

한옥을 표상한 복고주의 건축물을 반성, 한옥과 동등한 위치인 비표상적인 건축물로 극복한다.



자연발생적 비표상의 지붕

한옥의 형태는 보 부재에 걸리는 모멘트와 자연적 영향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형태이다. 새로운 지붕은 한옥의 지붕을 표상한 것이 아닌, 새로이 발생된 비표상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기와지붕의 형태가 판에 지점이 걸리는 곳에 모멘트가 생겨서 자연스레 휘어진 형태인 것에 모티브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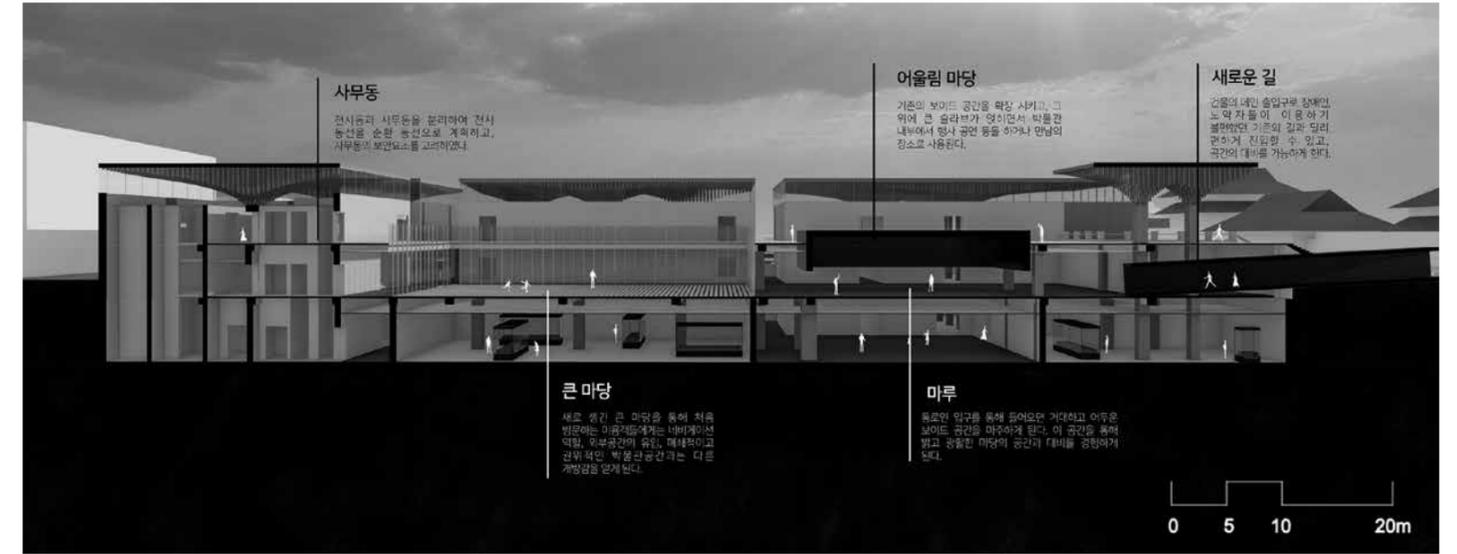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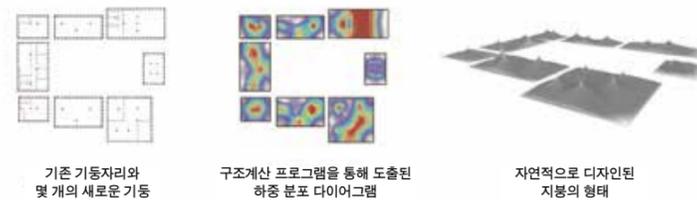
디자인 전략 : 전통건축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한 재해석

마당의 생성, 분절된 채, 새로운 지붕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하여 고궁박물관에 전통건축의 기능적인 특성과 외형적인 특성 모두 도입한다.



구조계산을 통한 디자인

기존의 기둥자리에 평지붕 슬라브를 얹었을 때, 슬라브에 포인트 하중이 생기게 되고, 구조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하중이 제일 많이 실리는 부분에 비정형적인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를 뒤집어서 천장부를 디자인한다.



2.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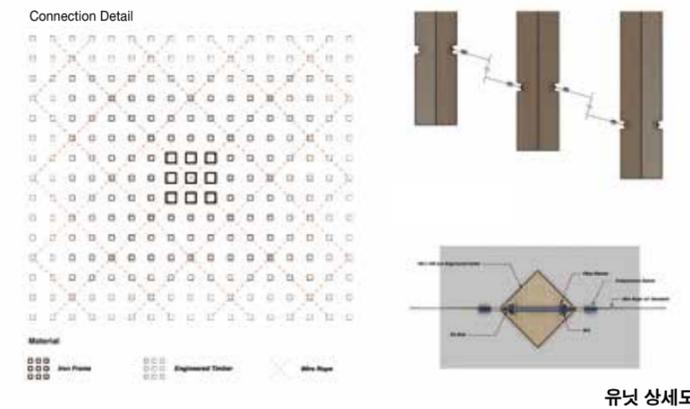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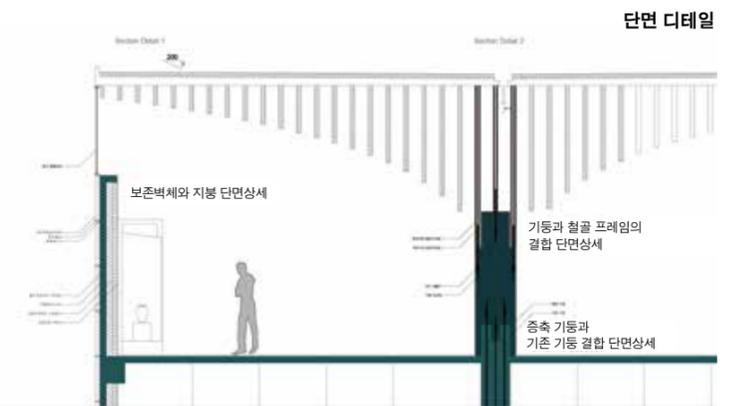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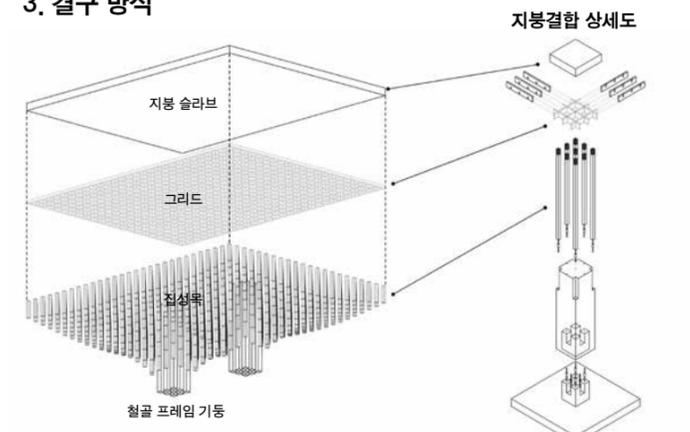
외부 공간을 끌어들이는 개방성

사무동과 전시동을 명확히 나누고, 통로, 마당 그리고 2층의 열린 공간을 통하여 확보한 개방성으로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게 느껴졌던 박물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신(新)과 구(舊)의 연결 디테일

기존의 지붕과 기둥을 최대한 살리는 구성에서 새로운 지붕과 기둥이 결합된다. 박물관 이용객들은 재료와 구조의 대비를 통하여 고궁박물관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다.

3. 결구 방식



트리드 하우스 (Tree + Grid)

난민과 이재민을 위한 목조 모듈 재난거주시설

우나경, 현동은(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국내의 각종 재해재난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형재난 이후 초기 단계는 인명 피해와 기존의 주거지 파괴 등으로 극도로 혼란한 시기이다. 따라서 난민과 이재민에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주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 난민을 위한 시설은 건축 정책적 처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난민과 이재민에게 개선된 거주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주 모듈의 목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구성의 맞춤형 주거를 빠르게 제공하고, 한국 전통 가옥의 가변형 공간 구조를 접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거주시설에 부산 시민과 난민, 이재민간의 교류공간을 더하여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완화해 보고자 한다.



Site Analysis

한국항공협회 등에 따르면 연간 32억원이 입국 불허자 등의 체류비와 송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포화 상태인 김해공항은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가 턱없이 부족해 인권침해 논란까지 우려되지만, 관계기관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이트는 김해공항 근처에 위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교통중심지인 사상에 근접하여 난민과 이재민들을 위한 이용객의 접근을 돕고 부산 시민과 난민, 이재민간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의 한 축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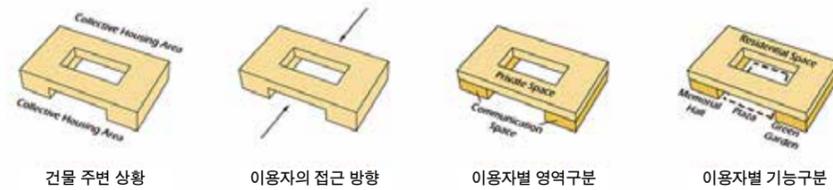


5층에서 중정을 바라보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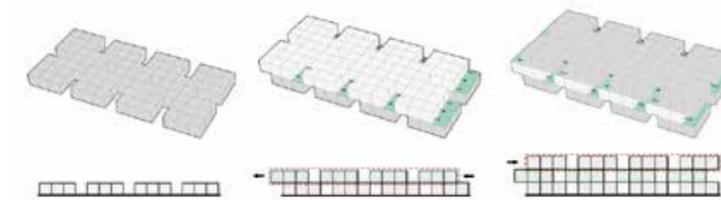
녹색정원에서 모습

Space Configuratio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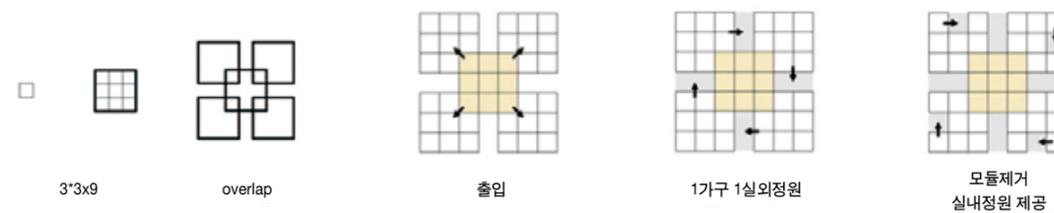


Residential Mass Design Strategy

주거매스는 적층 시 한 층씩 밀어서 쌓아 야외 테라스가 생길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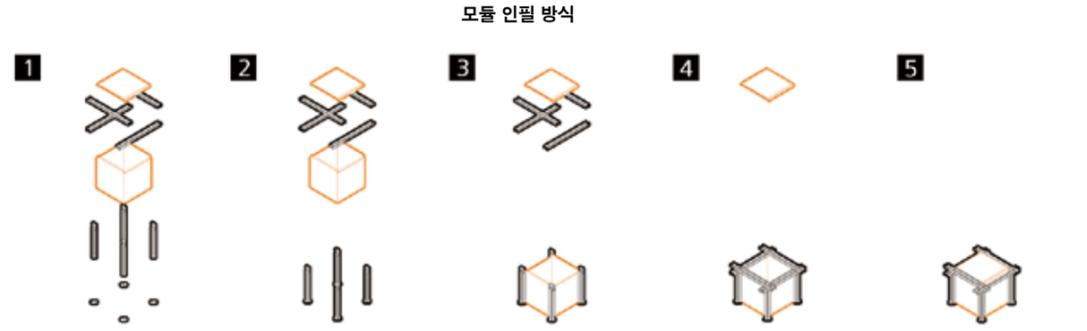


Plan Design Strategy



Structur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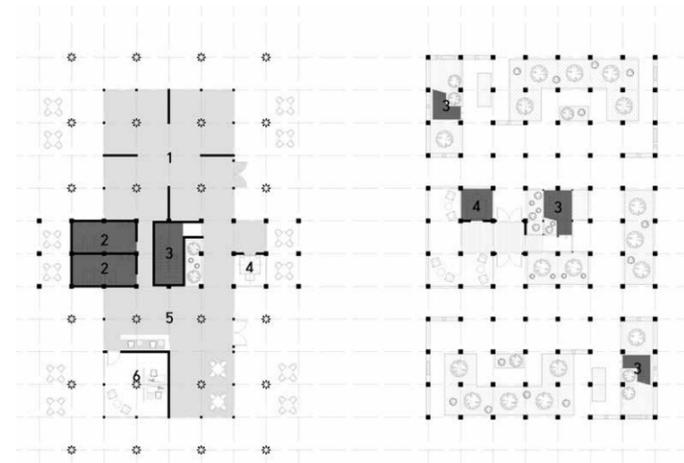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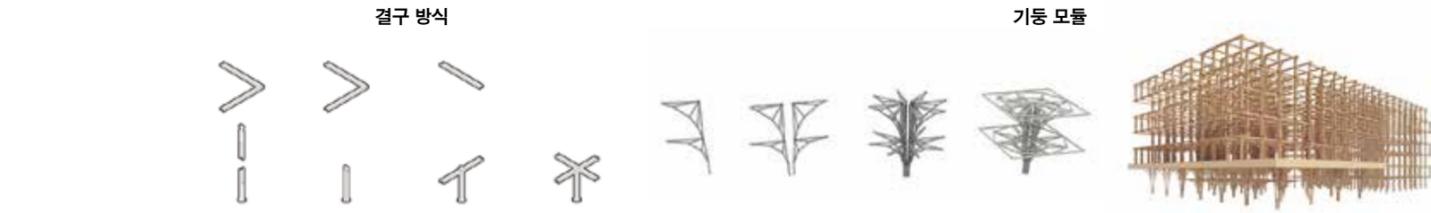
신속한 이동을 위해 모듈의 부재는 차량에 탑재되어 이동되어야 하며, 이는 모듈러의 최대 허용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도로교통법상 최대 허용 폭은 3.2m이나 주거시설의 설치 장소까지의 도로 사정을 감안하여, 본 계획에서는 부재의 길이를 3.0m 이하로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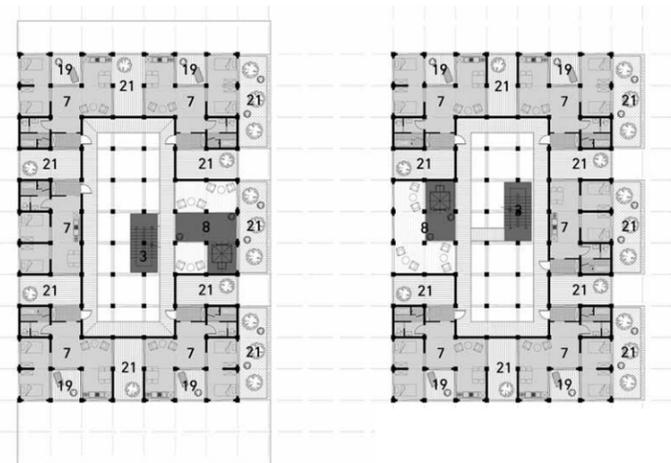
모듈 인필 방식

결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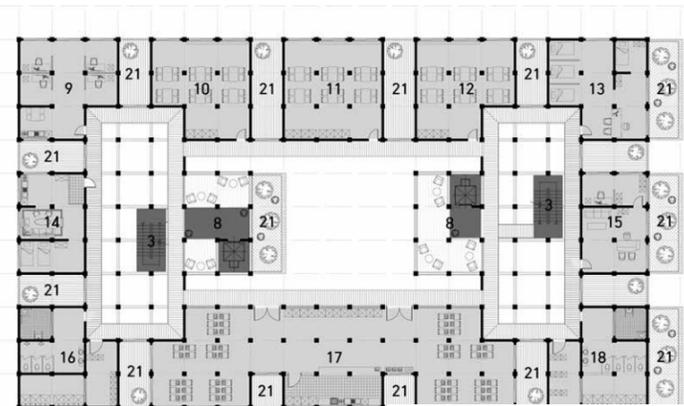
기둥 모듈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6층 평면도

가벼움과 무거움

01. 퍼블릭 vs 프라이빗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은 골조에 모듈이 비어있어서 공간이 트여 있다. 그에 반해 소유주만 사용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은 모듈을 삽입하여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

02. 가벼운 목조 모듈들이 모여 묵직한 하나의 건물을 구성한다.

03. 거대한 규모로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불규칙적으로 모듈을 비워 가벼운 느낌이 느껴진다.

04. 목조화를 통해 쉽게 해체, 조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조의 가벼움이 드러나지만, 쉽게 해체 조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무거움을 느낄 수 있다.



데크에서의 모습



기념관에서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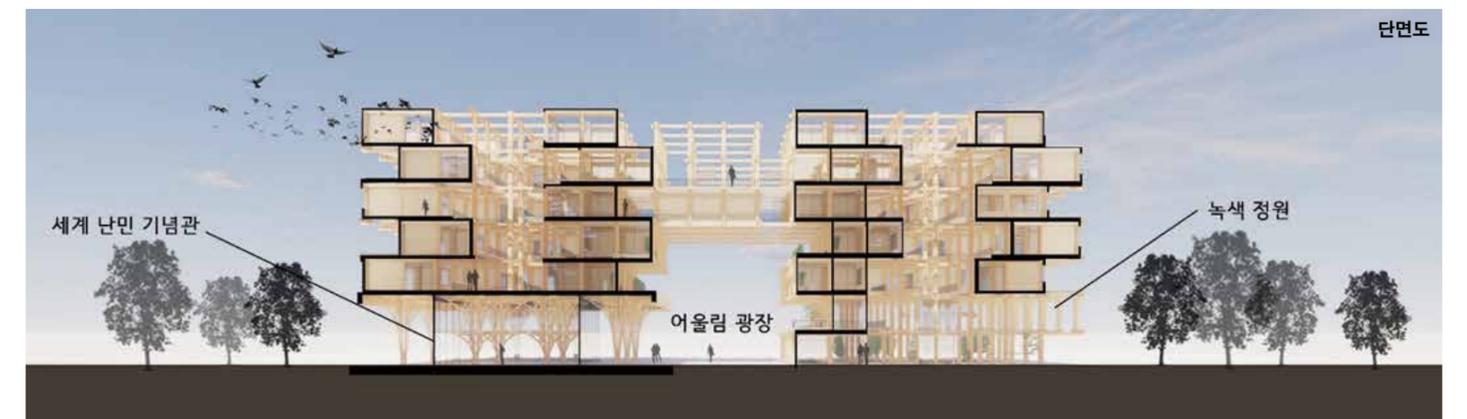
05. 중목구조 vs 경량목구조

중목구조: 경량목구조에 비해 더 무겁고 두꺼운 목재 사용하여 기둥과 보 중심으로 연결하는 리멘구조를 기초로 하여 벽식구조를 결합한 구조

경량목구조: 얇고 가벼운 목재와 osb합판을 사용하여 내력벽으로 설계하는 벽식구조



입면도



단면도

세계 난민 기념관

녹색 정원

어울림 광장

계획 부문 | 최우수상

아크: 도심 속 사람과 철새의 휴식처

The ARK: The Healing Space in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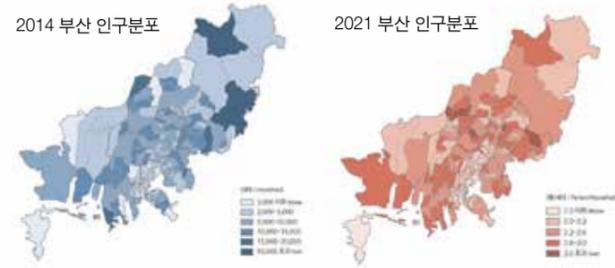
김민준, 백승인, 조성호(동서대학교 건축학과)

PROLOGUE

지역별 인구밀집도

2014 부산 인구분포

2021 부산 인구분포



SITE PLAN



도시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



교통체증
수평, 수직적 포화
각종 오염과 공해



차별 발생
팬데믹 발생
성별, 세대별 집단 갈등



도시 황폐화
환경오염 발생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SITE ANALYSIS



River



Green Area



Building



Road

CONCLUSION



도심의 확장

도심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부족한 땅, 강을 활용함으로써 제한적인 땅을 확장하여 도심지의 공간 부족 현상 극복



이색적인 수공간

도심 근처 수공간에 건축물이 배치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도심으로부터 받은 피로를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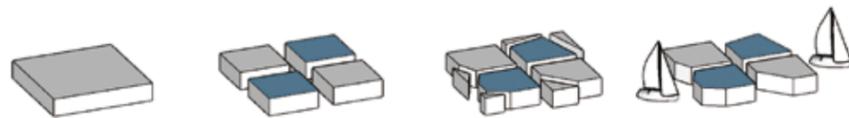


자연과의 조화

건축물의 일부는 자연의 것으로 설계, 사람과 자연간의 소통을 유도, 다양하고 색다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자연 파괴를 최소화한다.



PLATFORM PROCESS



CONCEPT



ARK:도심에서 떨어진 조각
복잡하고 혼잡한 도심에서 떨어져 나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공간



PROGRAM



CONCEPT PROCESS(가벼움&무거움)

자연
가볍고 편안함을 주며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역할



도시
무거운 건축물들이 준비함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함을 제공

갈대
가벼운 느낌
목재의 무거움을 중화



가벼움/무거움
소재나 주변
환경을 통해
무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무거움과 가벼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을 구축



목재
무거운 건축재료이며
튼튼하고 물에 뜨는 성질

철새
을속도는 철새 도래지로
인파의 무거움을 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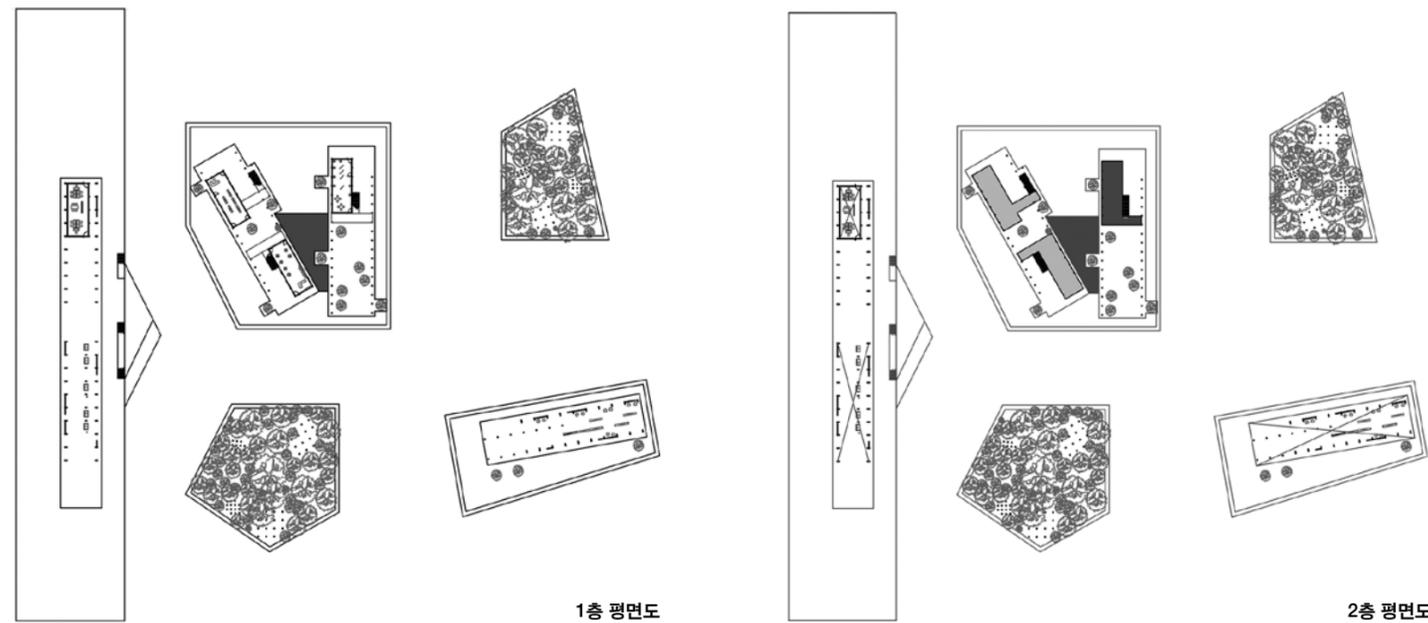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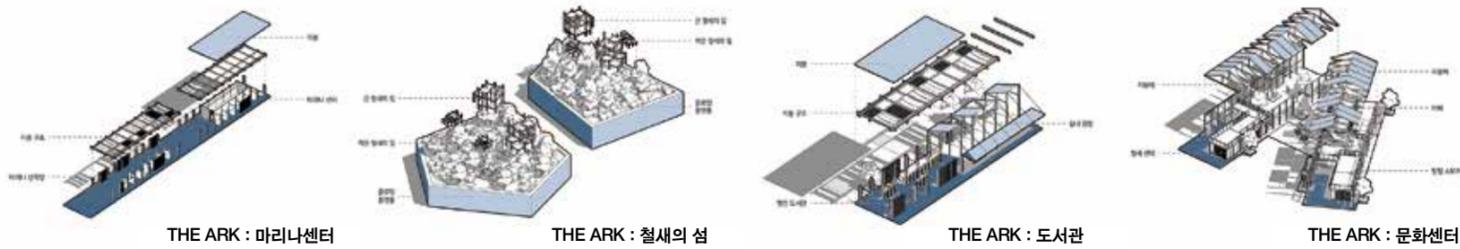
사람
도심지 많은 사람
많은 인파의 중량감

강
가볍고 편안함을 주며
시각적 피로 개선



육지
건고하고 무거운 느낌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발판 역할

ISOMET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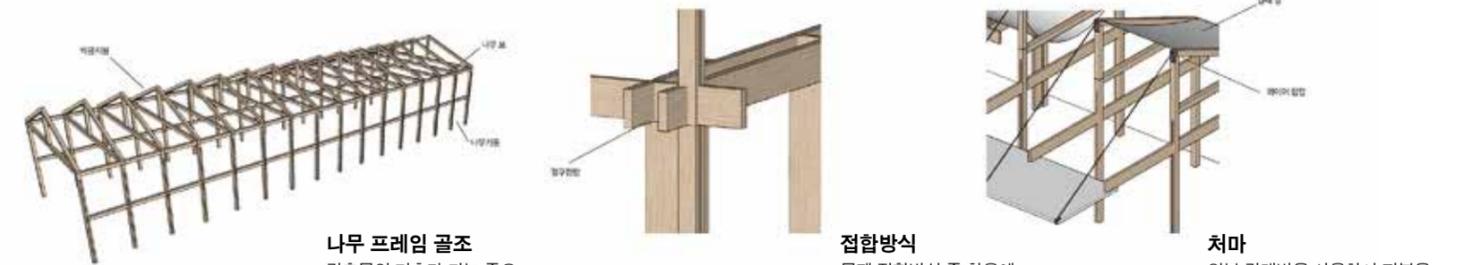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BUILDING STRUCTURE



나무 프레임 골조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주요
구조체를 나무로 사용하였으며
이외의 재료는 사용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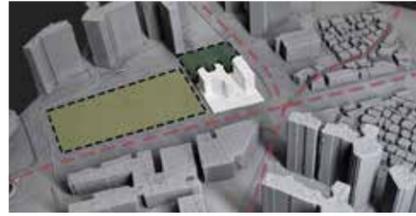
접합방식
목재 접합방식 중 한옥에
사용되는 결구법을 사용, 나무
이외에 못이나 평철이 사용되지
않는 접합방식이다.

처마
일부 갈대발을 사용하여 지붕을
덮고 와이어를 사용하여 넓은
처마를 확보했다.

도심 속 도서관, 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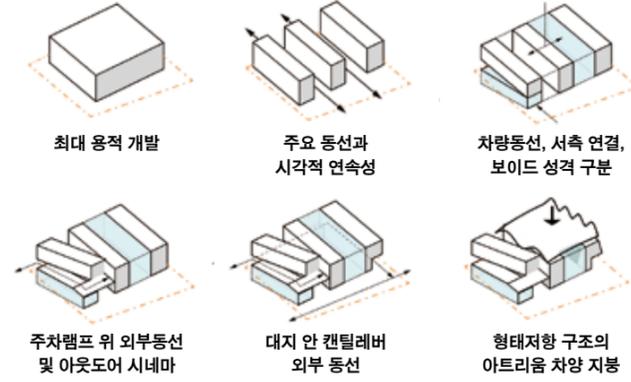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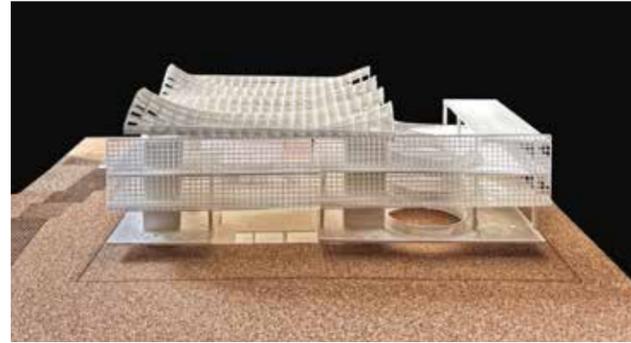
목재 활용의 다양한 스케일

여태영(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미래의 도서관은 더 이상 책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다. 책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나무(木)로 가득해 안과 밖의 풍경이 눈(目)을 즐겁게 하고 그 속에서

화목(睦)한 교류가 오고 가는, 책이 있는 문화공간이다. 도서관 삼목에서는 가벼운 재료, 무거운 재료 모두 무거움과 가벼움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스케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이자 미래의 공간점유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 삼목은 아파트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도시의 결절점에서 공공프로젝트로서 시민에게 다양한 활동을 품은 양질의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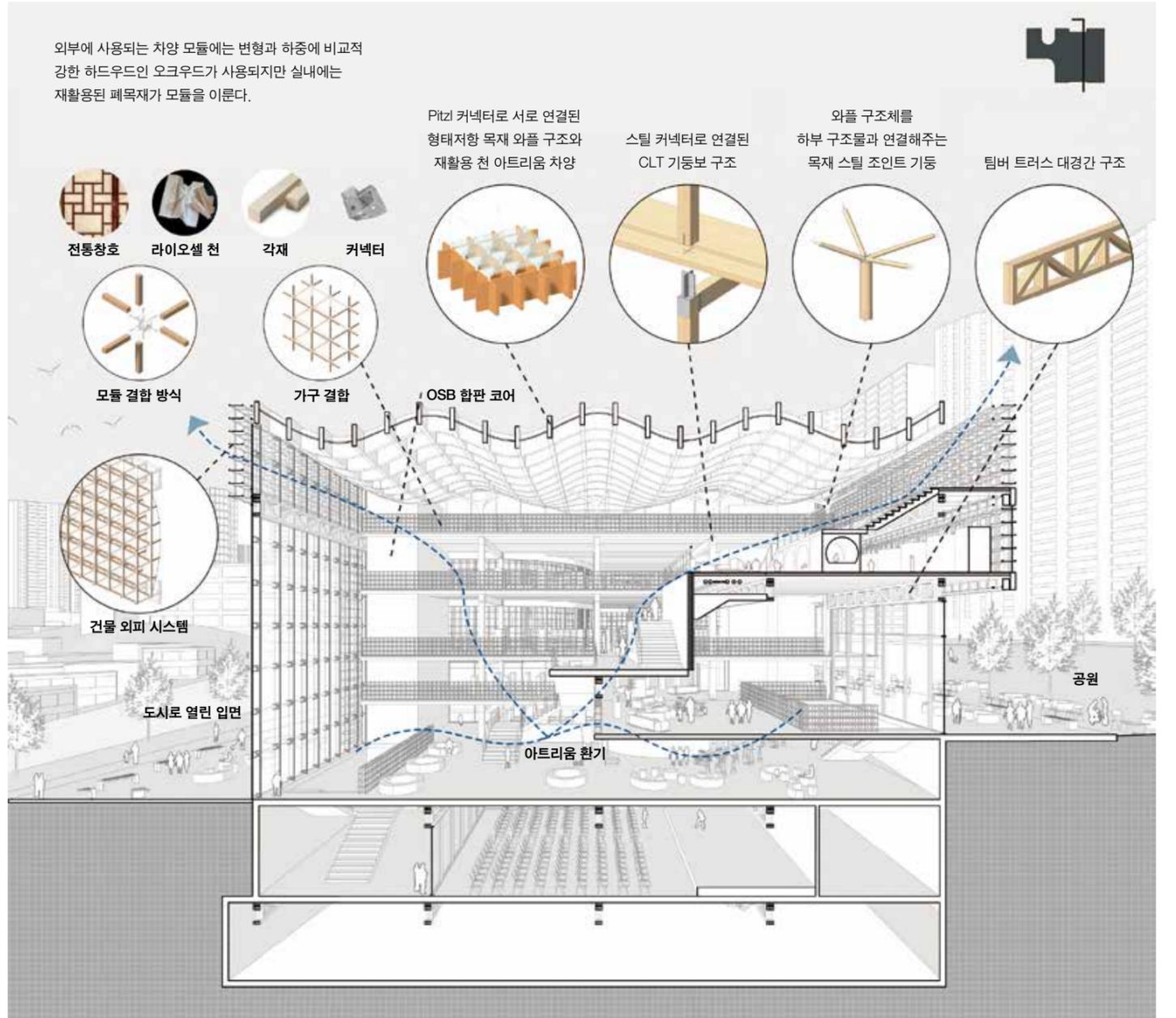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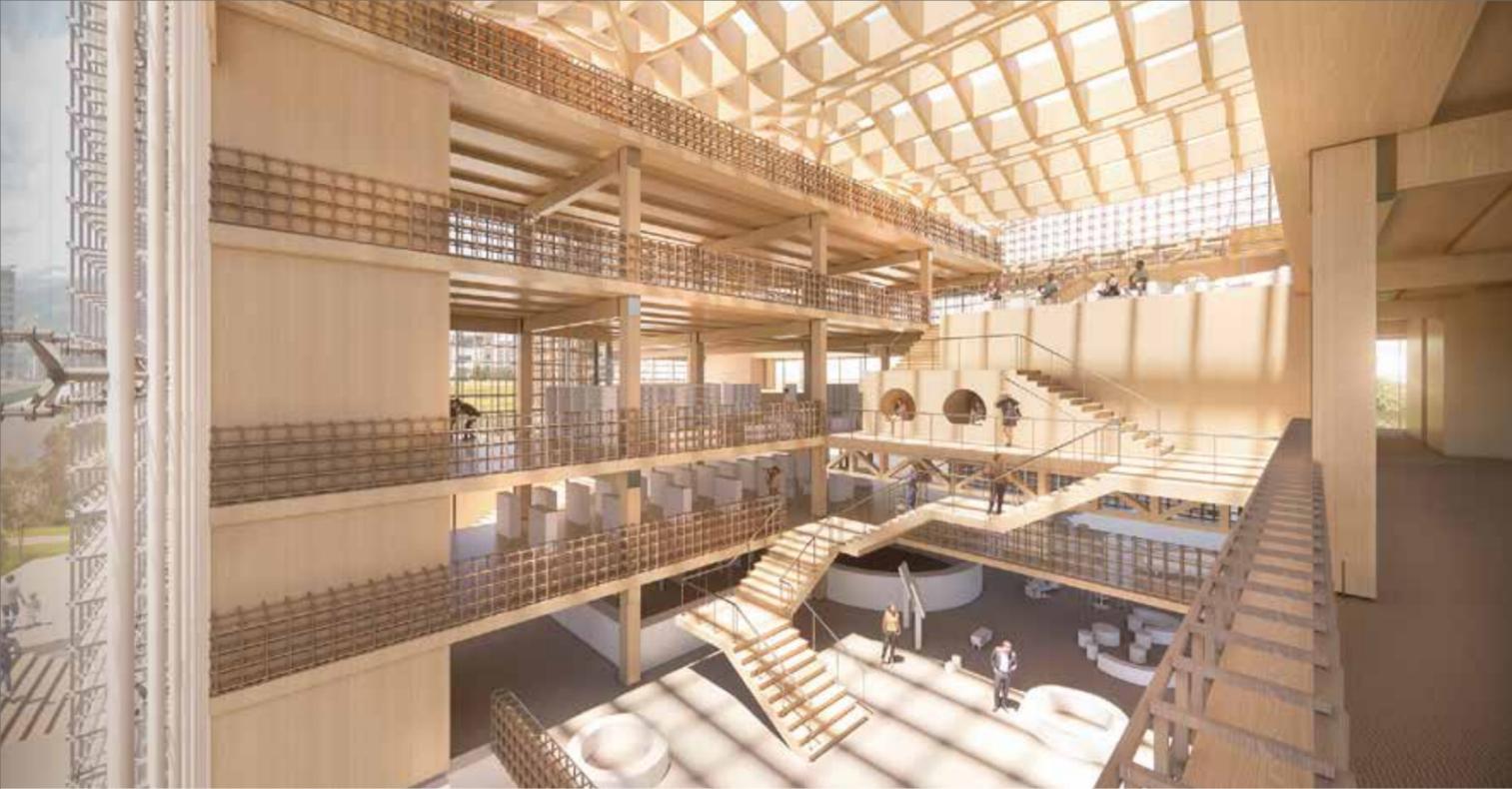
구조

한옥에서 느끼는 시선의 확장은 도서관 삼목의 공간 모티브이다. 세 개의 분절된 장방향 매스는 각각 8m 그리드의 기둥-보 CLT 구조로서 열린 공간을 만들고 각 매스의 사이 대공간은 팀버 트러스 대경간 구조가 건물의 입면이자 동선이 되는 계단 다리, 그리고 연결통로를 지탱한다.

구조의 보완

순수한 목재만을 구조재로 사용하기에는 형태와 공간의 요구를 따라가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하중이 작은 가구 모듈에는 고강도 PLA가, 하중을 받는 기둥과 거더 혹은 외부 차양에는 철이 커넥터로 사용되어 그 단점을 보완한다.





설비와 구조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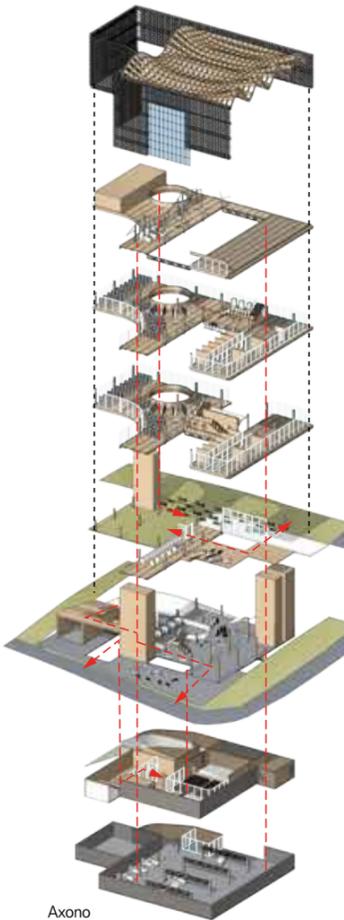
목구조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점은 구조체를 최대한 노출하여 재실자가 나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비 공간과 내화성능 등의 이유로 목구조체 노출이 어렵지만 거더 위에 순서대로 3겹, 5겹의 CLT Beam을 올리고 그사이에 설비를 두어 장방향의 매스 건물을 따라가도록 하여 구조체를 노출시켰다.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은 기둥과 보에 탄화층을 두어 내화성능을 확보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재료

가구부터 구조체, 마감재까지 목재를 사용하여 건물이 머금고 있는 탄소량을 최대화했다. 특히 큰 하중을 받지 않는 실내 마감과 가구는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폐목재로 펄프로 만들어진 MDF와 PB, 그리고 라이오셀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 시공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 또한 최소화하였다.

단면 스터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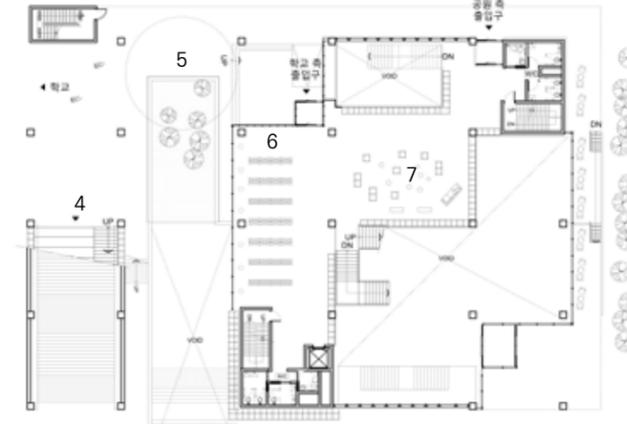
- 5F 메이커랩
목공소
오픈 클래스룸
피트니스룸
- 4F 자료이용공간
가상학습부스
대그룹실
대그룹실
- 3F 자료이용공간
위주일반도서
대그룹실
소그룹실
- 2F 야외 시네마
생태조경중정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라운지
- 1F 사무공간
북카페
- B1 보존서고
- B2 기계실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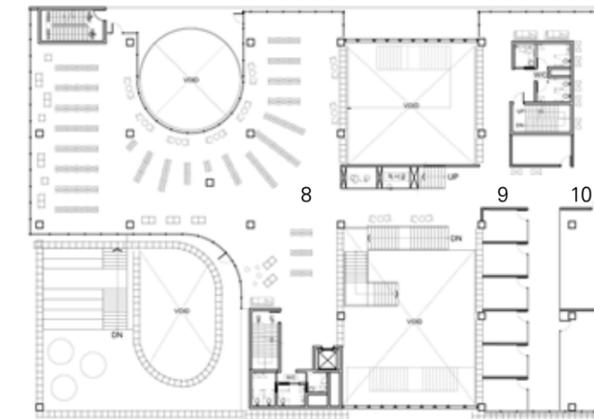
Axono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목조를 체득하고 다뤄보는 도서관

도서관 삼목은 가구부터 구조, 그리고 외장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목재가 활용된다. 목공소에서 3D프린팅 모듈로 만들어볼 수 있는 실내의 책꽂이와 난간 모듈은 건물을 감싸는 외피이자 차양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형태저항 구조의 육중한 외골구조 지붕을 철골로 보강된 얇은 기둥으로 받치며 공간의 역동성을 더한다.



일조 렌더 차양 전



일조 렌더 차양 후

- 1 사무실
- 2 북카페
- 3 로비
- 4 3층 로비 및 야외극장
- 5 생태 조경
- 6 어린이 도서관
- 7 파크뷰 라운지
- 8 자료이용공간
- 9 소모임실
- 10 대회의실



북동측 입면도

법고창신

지속가능한 목조건축 계획안

이상민, 이권희, 김강인(조선대학교 건축학과)

'법고창신'이란 옛것을 분받아 새것을 창조해 낸다는 뜻을 지닌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발전하는 식물의 특성을 본떠 새로운 목구조체를 구상하여 지속가능한 복합문화센터를 제안한다.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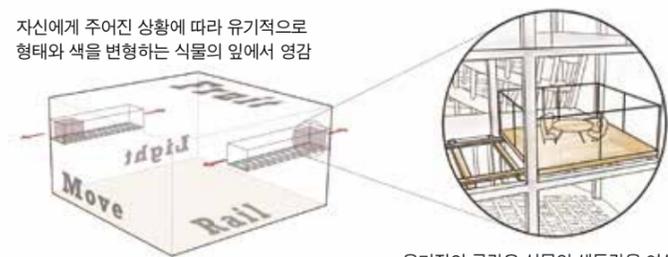
Prologue

높은 콘크리트 건물들이 빼곡히 모여 전경을 이루는 현재 도시는 사뭇 답답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준다. 우리는 그러한 도심 속에 가벼운 한 알의 씨앗을 심어 변화를 줄 것이다. 한 알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 싹을 틔울 것이고 겹겹이 쌓인 나이트가 줄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비로소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된다.

건축물은 초기에 콘크리트가 기초 구조체를 이루어 건물을 지탱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는 부식이 진행되고 빈 공간들은 목조들을 감싸는 '나무'들이 채워나가 또 다른 건축물로써 다양한 이벤트를 가진 건물이 되고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될 수도 있다.

무브 부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형태와 색을 변형하는 식물의 안에서 영감



유기적인 공간은 식물의 생동감을 연상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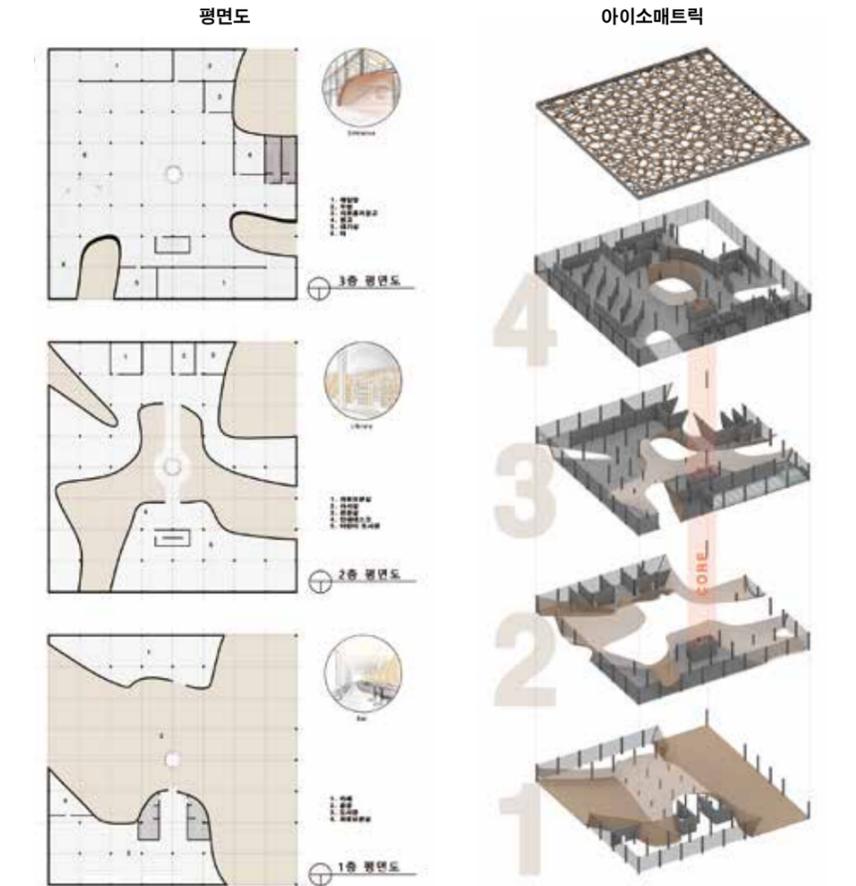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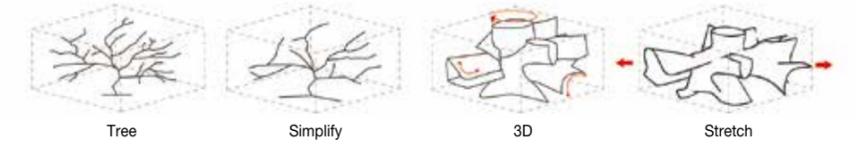
유전자 변형 식물



유전자 변형 식물은 토양 깊숙히 뿌리를 박아 자란 뒤 목조 틀을 타고 올라서 목조 틀을 받쳐주며 새로운 구조체로 형성

〈유전자 변형 식물〉 성장력과 강직도를 강화시켜 강도를 높임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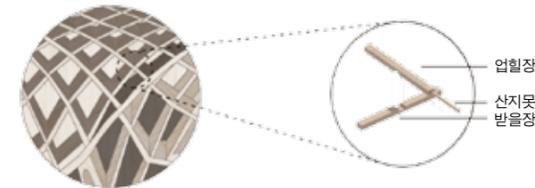


천장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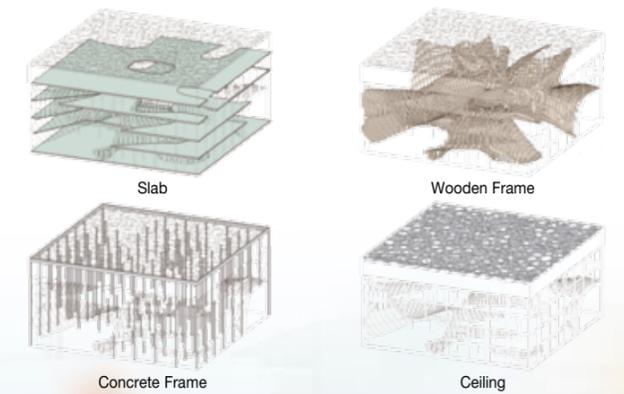
조용한 분위기로 인해 무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공간에 들어오는 빛은 자연의 산뜻함과 자유로움을 더해줌

목조구조



목재 그리드 셀 구조와 반턱맞춤 결구 방식을 연결하여 여러 곡률에 유리한 목재 구조체를 이루고 교차하는 지점에 산지못을 박아넣어 안정성을 극대화함.

건축구조



계획 부문 | 우수상

들林

광화문광장의 새로운 시민청 제안

김지원(명지대학교 건축학전공)

프로로그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광화문광장은 새롭게 조성되어 서울을 대표하는 장소이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장소로 발돋움했다.

'들림'은 이와 인접하여 지어지는 시민청 프로젝트로, '숲과 조화되는 경관'이라는 광화문광장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려 했다.

분절된 매스로 스케일을 줄임으로써 건물이 주는 위압감을 줄이는 동시에 주변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였으며 분절된 틈으로 자연을 끌어들이며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주하는 모든 장면 속에서 삽입된 자연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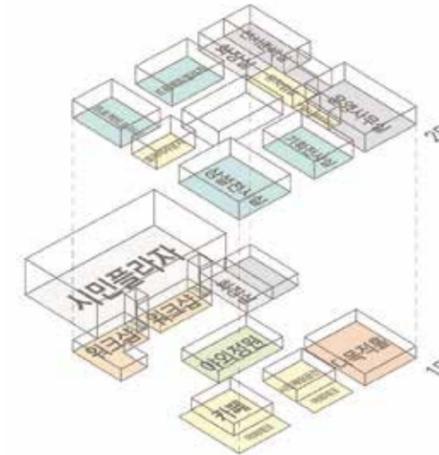


건물개요

위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9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구조 : 하이브리드 목구조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1층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2층은 전시실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동선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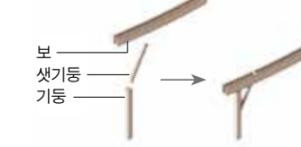
- 시민들과 직원용 동선을 따로 설정하여 시민청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 야외정원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순회하게 동선을 만들었다.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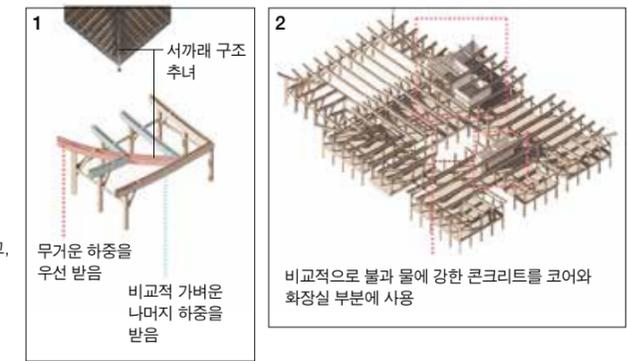


구조 다이어그램

-기둥의 기본 구조



1. 한옥의 지붕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요소인 서까래 구조의 형태에서 가져온 보형태 구조로 추녀형태의 보가 무거운 하중을 받고, 나머지 보들이 가벼운 하중을 받는다.
2. 상대적으로 무거운 재료인 콘크리트와 가벼운 재료인 목재를 함께 사용
3. 하이브리드 목구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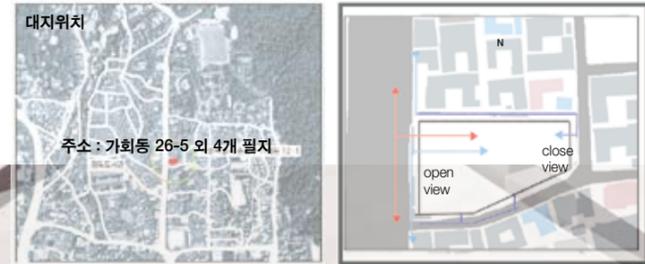
단면 상세 모델링



木·造·建·築 박물관

한국 목조건축 산업화와 활성화를 위한 건축적 제안

전해인, 김유경, 서지형(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건물개요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 2,911m²
 규모 : 지상2층/지하2층
 구조 : 목구조, 철근콘크리트
 건폐율 : 49.6%,
 용적률 : 145.7%

현재의 목조건축
 목조건축은 1m³ 1t의 탄소가 저장되는 친환경 저탄소 건축이다. 또한 현재 쓰이는 목재들은 보편화된 글루램이라는 집성목부터 요즘 각광받는 CLT 등 첨단공학목재가 개발되어 친환경적인 미래 건축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에서는 18층 기숙사 및 25층 고층 목조건축은 이미 건축되었고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은 건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형 목조건축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옥을 간직한 목조건축 선진국이다. 더 늦기 전에 목조건축 박물관을 건축하여 과거의 역사와 흔적을 기록하고, 현재의 첨단기술들을 수집하고, 연구 토론하고, 발표할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건축구법과 현대목조기술이 통합된 한국형 목조를 통해 서구 목조건축의 기술 식민시대에서 벗어나 과거의 목조건축 선진국의 지위를 재현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1. 디자인 개념

나무의 길 : 걸어온 길, 걸어갈 길

3층 전시홀에서 시작되는 나무의 길은 한옥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 목조건축의 다양한 주두 모양을 우리나라 자생나무 기둥 위에 재현하며,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기술, 미래의 한국목조건축의 앞날을 상징한다.



2. 외부 공간 설계 개념

마당 많은 집

목조건축박물관은 건물 외부로 전정, 중정, 휴게마당, 후정 및 하늘마당을 가진다. 전정은 건물의 입구 회랑으로, 박물관을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입구에서 뒷마루와 함께 구성되며, 중정은 가장 큰 마당으로 행사나 버스킹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휴게마당은 오르막길을 오르다보면 2층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쉬어 가는 공간이 된다. 후정은 부출입구에 위치하며 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되며 하늘마당은 3층에 위치하는 전망대로 북한 한옥마을을 조망할 수 있다.



3. 내부 공간 설계 개념

3개의 공간 : 무거움과 가벼움

박물관은 세 가지 공간과 구조를 가진다. 전면동은 메인홀로서 소경재를 이용한 대공간으로 가벼움 목구조를 상징하는 경쾌한 공간을 연출한다. 중간동은 빗보름

통해 기둥으로 하중이 직접 전달되는 소위 서까래 구조로 전통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동이다. 최신 목조기술을 도입하여 현대적으로 구성한다.



4. 평면 설계 개념

건축물이 전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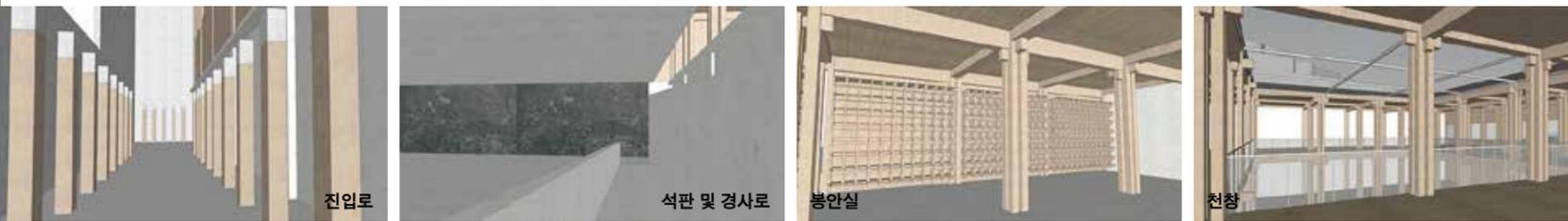
중목구조에서 C.L.T까지 3층 전시홀에서 시작되는 건축물 자체가 전시물이 되는 개념을 적용, 계획 초기부터 목구조물이 전시물이 되도록 평면 구성을 하였다. 기능별, 용도별 동선 분리를 통해 영역성과 접근성을 확보하였고, 건축 공간으로 관입된 마당들은 각종 평면들과 연계되어 역동적인 실내 공간을 연출한다.



삶과 죽음의 중개적 장소

죽음에 대한 재해석과 글루램 활용을 통한 후암동 납골당, 커뮤니티 복합시설

이상규(충남대학교 건축학과)



Huam-dong Charnel House and Community Complex through Reinterpretation of Death and Utilization of Glulam

삶의 공간들은 사람들의 요구와 삶의 변화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죽음과 관련된 공간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혐오시설로 구분되어, 삶과 떨어진 공간이 되어왔다. 조선시대 국사당 터이며, 현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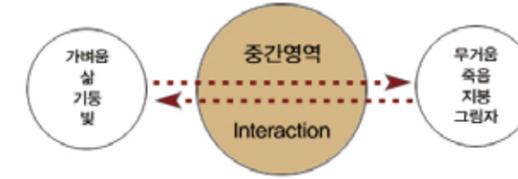
주거밀집지역인 후암동에 지역이 요구하는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계획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죽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납골당을 계획하고자 한다.



대지 선정 및 분석

남산의 남쪽에는 조선시대 국사당이 위치하여 있었으며, 현재의 후암동은 주거밀집지역이다. 이처럼 삶과 죽음,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하고 있는 후암동에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해 사유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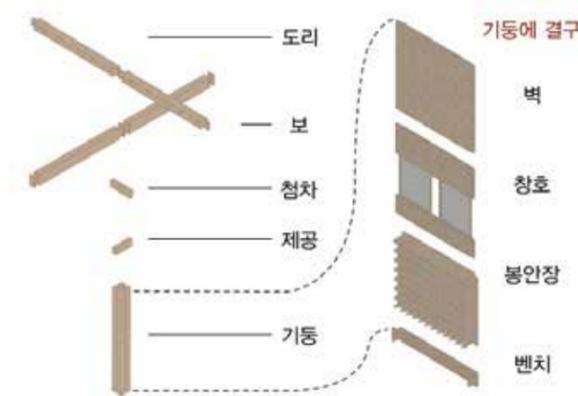
INTERACTION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서로의 부재는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가벼움과 무거움, 삶과 죽음,

기둥과 보 지붕, 빛과 그림자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산자와 죽은자 기둥과 지붕의 중간영역인 공포와, 기둥과 벽,

기둥과 가구와의 관계를 현대화하여 결구시키며, 하나의 가구식 구조로 삶과 죽음의 중개적 장소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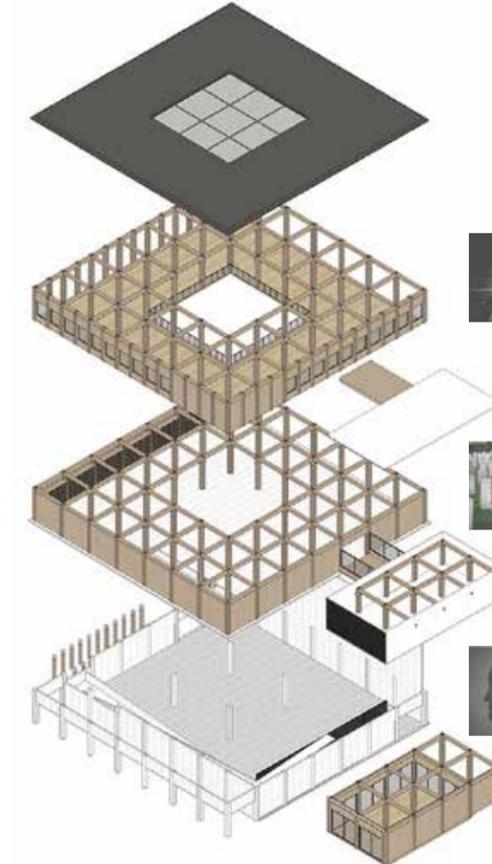
결구 방식



- 1. 보 :** 기둥과 기둥 사이 (4,800×4,800)의 모듈을 통해 동일한 형태의 구조로 시공성을 증가시켰다.
- 2. 공포 :** 한옥의 가벼움(기둥)과 무거움(지붕)을 결구시키는 공포의 구조를 간략화하여 시공성을 증가시키고, 글루램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3. **기둥 :** 정사각형 기둥 4개에 간격을 두어 하나의 기둥으로 사용하여 보, 도리, 첨차, 제공뿐 아니라 벽, 창호, 가구까지도 하나의 구조로 결구시키는 가구식 구조로 계획하였다.

공간의 테마



지붕층/빛의 유입

빛은 항상 그림자와 함께이며, 삶은 항상 죽음과 함께이다.



3층/사유의 장소(미래)

죽음과 삶은 항상 붙어있다. 도시인들에게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2층/만남의 장소(현재)

산자와 죽은자가 만나는 장소이며, 삶의 일부인 커뮤니티 공간과 연결되는 장소이다.



1층/회상의 장소(과거)

죽은자를 회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장소가 된다.

목재의 시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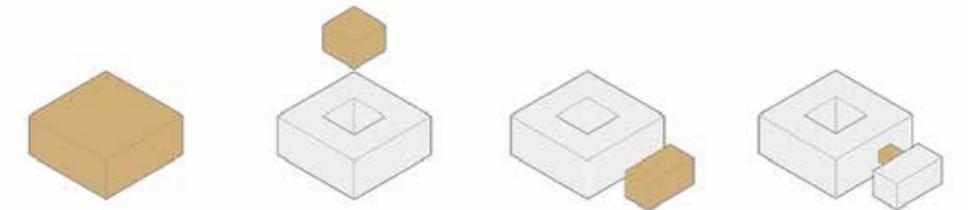


온도
습도
나이
강수량

나이테에는 나무가 자라온 온도, 습도 등과 더불어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 즉, 나무는 각기 자신의 생애를 나이테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생애를 가진 목재가 모여 하나의 건축물로 결구되어 관계를 가지는 것은, 서로 다른 생애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납골당에 모여있는 모습과 닮아있다.

형태의 발전



모듈과 프로그램에 따른 크기 산정

목구조의 일반적인 모듈인 4,800×4,800의 모듈로 기하학적 형태로 배치

공간의 개념에 따른 형태의 변형

아트리움 공간을 통하여 층과 층의 공간을 연결하고, 빛을 유입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 추가

납골당과 주거 밀집 지역의 중개적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 배치

납골당과 커뮤니티 공간의 연결

납골당과 커뮤니티공간의 연결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공간을 직관적으로 연결

플로팅 온 한강

목구조를 활용한 한강 수위 상승 대응 방안

박예진, 최승주(광운대학교 건축학과)



Prologue

강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계속해서 범람하고 회복되는 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나일문명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항상 중요한 도전 과제였다.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로 인한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왔고, 한강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건축적 대응 방안으로 '플로팅 건축(Floating Architecture)'이 대두되었다. 플로팅은 사전적으로 '물 위에 떠있다'는 의미이며, 플로팅 건축은 물에 뜨는 부유식 함체(pontoon) 위에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 오늘날 플로팅 건축은 한강 소재 편의시설, 복합문화시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그들은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주며 주변의 강과 나무 즉 자연과는 이질감이 느껴진다. 따라서 우리는 한강의 문화시설이 하나의 풍경으로 어우러지도록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플로팅 건축에 접목시켰다. 평상시에는 자연 속에 무겁게 자리 잡아 푸르른 경관을 보여주고, 수위가 상승하여 가볍게 떠올랐을 때에는 유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목구조를 활용한 한강 수위 상승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Concept Principle

플로팅 건축과 목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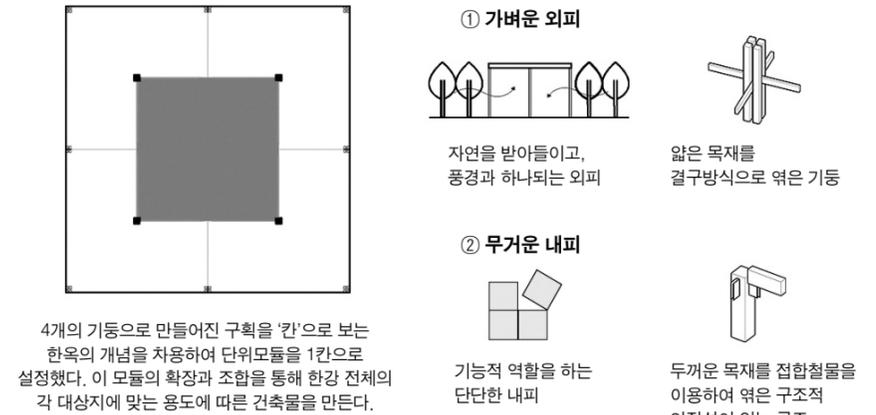
Site Propo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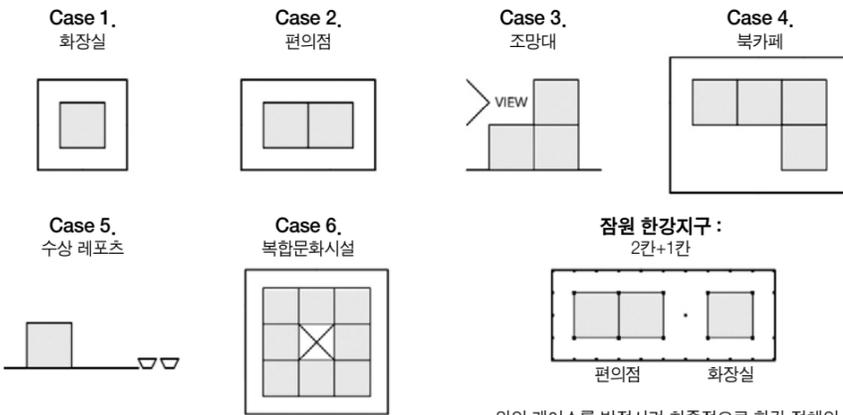
우리는 한강 소재 자전거도로 인근 곳을 선정하여 대상으로 제안한다. 단순하지만 모듈화된 각각의 조각들이 한강 전체의 풍경에 녹아들어 하나의 자연이 되길 기대한다. 본 계획안은 그 중 잠원한강지구의 대상지에 대한 것이다.

Concept Plan

'1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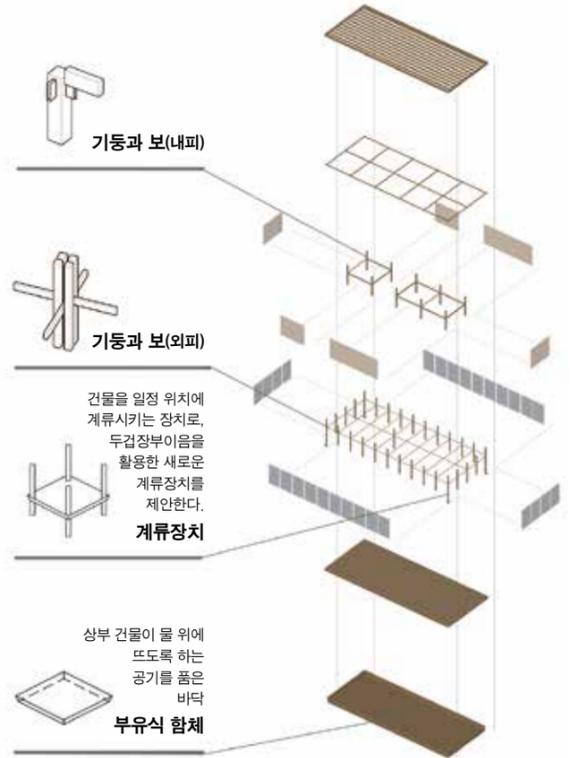


1칸 활용 제안



위의 케이스를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한강 전체의 대상지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Structural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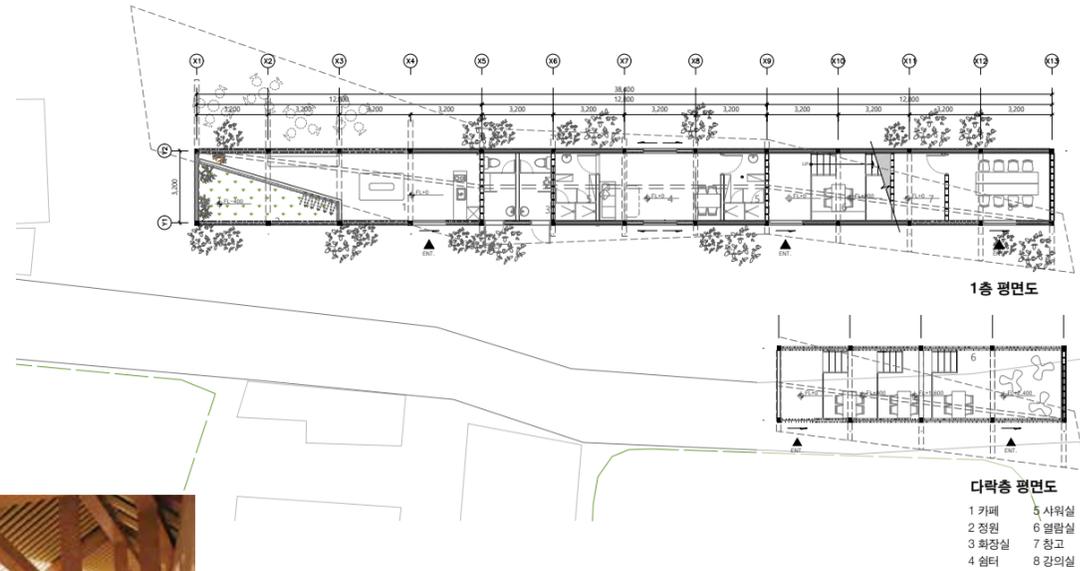


빛과 그림자의 구조

용도에 맞춰 변주하는 빛, 정자의 현대적 재해석

권나희, 유채린(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시골 마을 곳곳에 있는 정자는 우리에게 친숙한 커뮤니티 장소이다. 한국의 정서에 딱 맞는 정자가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길게 늘어 전통 구조를 재해석하였다. 정적이고 기다란 직사각의 공간에 빛과 그림자의 조절을 더해 다채로운 활동이 이뤄지는 쉼터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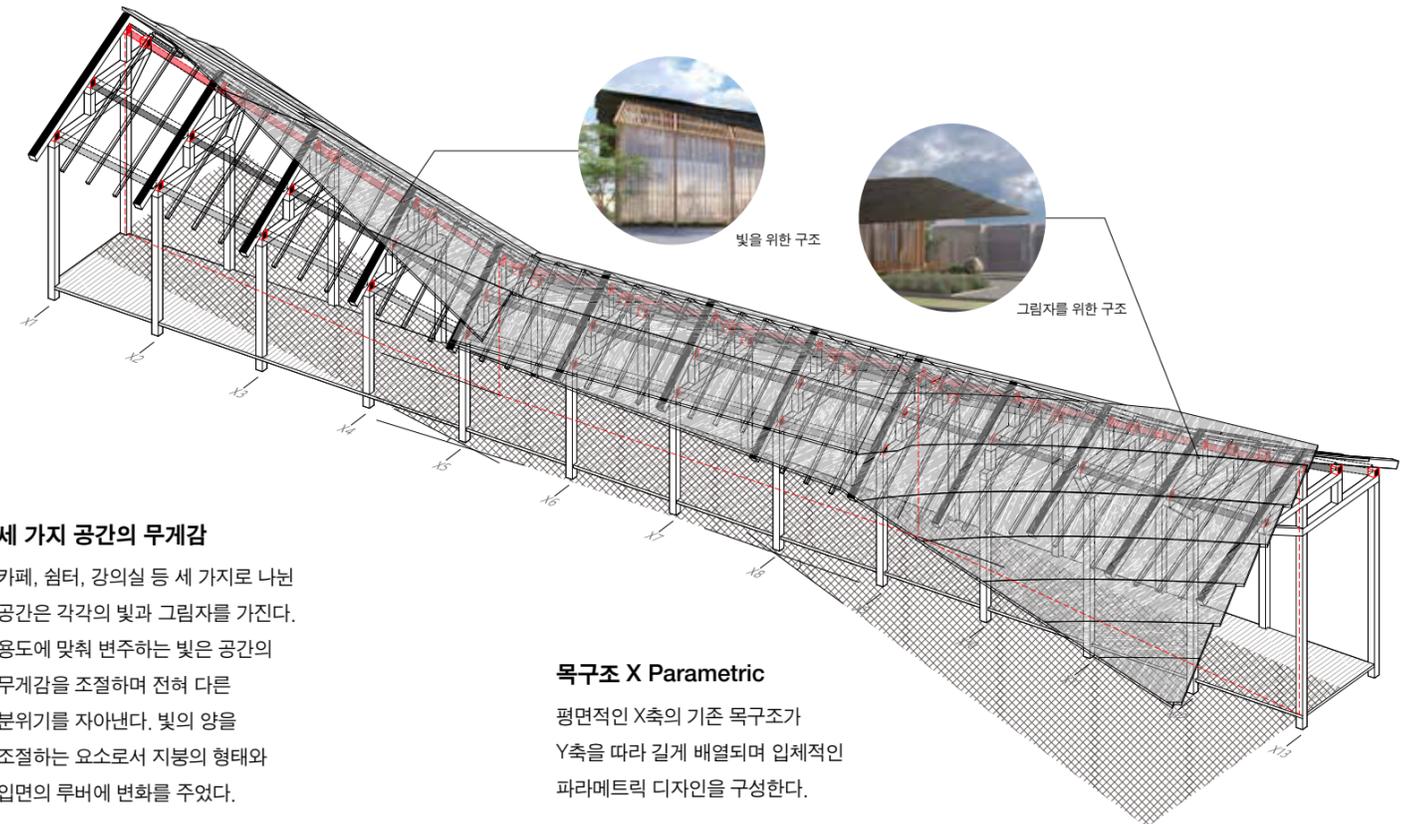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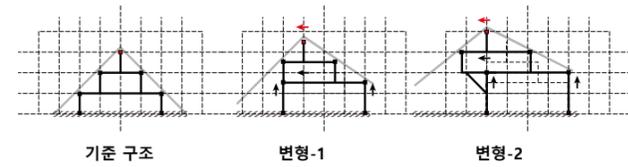


빛의 조절: 지붕, 루버



빛과 그림자를 위한 구조 해석

2개 축으로 위치가 변하는 도리와 보를 일렬로 배치하여 입체적인 지붕의 형태를 만들었다.



세 가지 공간의 무게감

카페, 쉼터, 강의실 등 세 가지로 나뉜 공간은 각각의 빛과 그림자를 가진다. 용도에 맞춰 변주하는 빛은 공간의 무게감을 조절하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요소로서 지붕의 형태와 입면의 루버에 변화를 주었다.

목구조 X Parametric

평면적인 X축의 기존 목구조가 Y축을 따라 길게 배열되며 입체적인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구성한다.

우회하다

목구조를 활용한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계획안

김민제, 정여원(부경대학교 건축학전공)

건물개요

- 명칭 : 우회하다
- 구조 : 중목구조
-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918 외 일대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용도 : 청소년 문화센터
- 대지면적 : 8308.66m²
- 건축면적 : 2744.11m²
- 연면적 : 6602.38m²
- 건폐율 : 33%
- 용적률 : 79.5%
- 규모 : 지상 4층

프롤로그 : 가벼움과 무거움

고민의 무게는 절대적인가?
 청소년들은 진로, 학업, 교우관계, 가족관계 등 다양하면서도 크고 작은 고민들을 가진다. 어른의 시각에서 그들의 고민은 한없이 작고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무거운

고민거리들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무게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표현인 "가벼움과 무거움"을 통해 인문학적으로 접목시켜, 청소년이 고민의 짐을 덜고 멋진 어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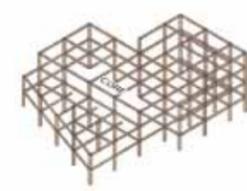


컨셉 & 프로그램 : 우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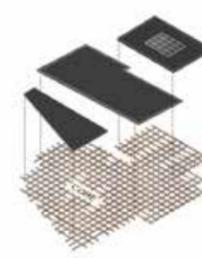
- [동사1]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다.
- [동사2] 뜻하지 않게 서로 모이다.
- [명사3]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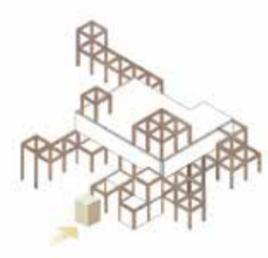
구조 분석



1. 목재 포스트-빔 구조
 기둥-글루램 140140
 보-집성목 글루램 205×245 h=245
 기본 스패ن 간격 8000mm



2. 장선, 지붕
 2방향 장선 바닥 구조를 채택하여 8m의 긴 스패를 목재가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체를 노출시켜 천장 디자인으로 활용한다.
 (I-Joist)



3. 목조 모듈 프레임
 4000×4000의 In-Fill 모듈러 공법을 기본으로 목조 구조체에 모듈을 삽입하여 그 자체로 지지가 가능하고 가변성이 있어 증축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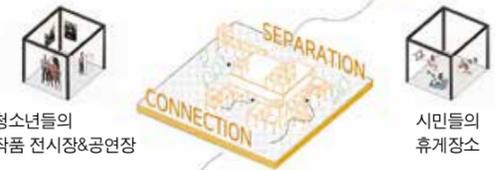
4. 우주공간(극장,체육관) 트러스

5. 목재 결구법 (스카프 조인트)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수한 아이라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아이들은 같은 길을, 빠르게 가로질러 건도록 강요받는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쉬어가거나 자신의 길을 찾아 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활동의 매스

활동의 매스에서는 지역사회 멘토멘티 시스템이나 공연, 체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 만나고 소통한다.



건축적으로 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격이 다른 동을 분할하여 배치한다. 또 모듈 프레임은 각 동을 나누기도 하고 연결 짓기도 하며 동선을 의도적으로 구획하며 그 자체로의 기능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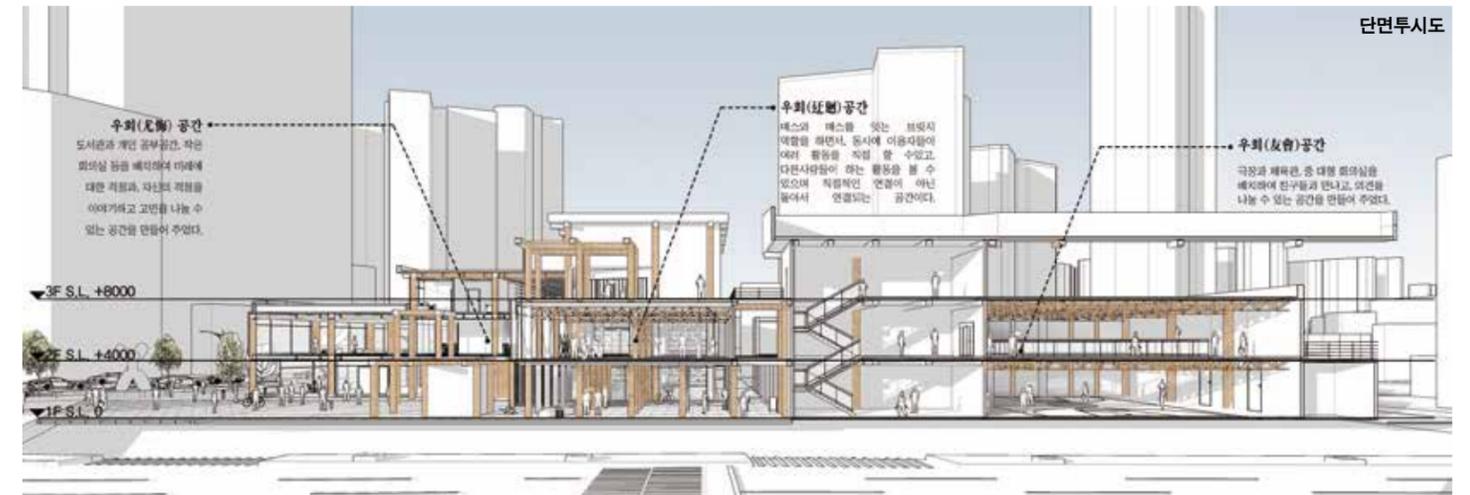


사색의 매스

사색의 매스에서는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이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담센터나 진로 찾기, 도서관을 배치한다.



배치도



단면투시도

우회(迂廻) 공간
 도서관과 개인 공부공간, 작은 회의실 등을 배치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과,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우회(迂廻)공간
 매스의 매스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들이 여러 활동을 적당 할 수 있고, 다른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연결이 아닌 곳에서 연결되는 공간이다.

우회(迂廻)공간
 극장과 체육관 등 대용 용도를 배치하여 인기몰이 만들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기억아-음

목구조를 이용한 광화문 시민청 & 전시관 계획안

김수정(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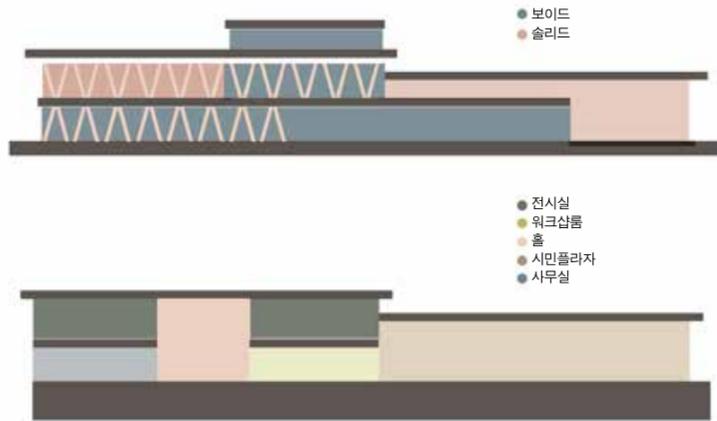


사이트분석

사이트는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외교부, 경복궁에 둘러싸여 있다. 사이트 앞의 광화문광장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오는 육조거리로서 행정적 중심지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시민들의 문화의 장이며 의견이 표출되는 시민들을 위한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발전될 광화문 광장은 인도에 면한 도로가 사라지고,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변모한다. 도심 속 녹지공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목조 건물의 열린 시민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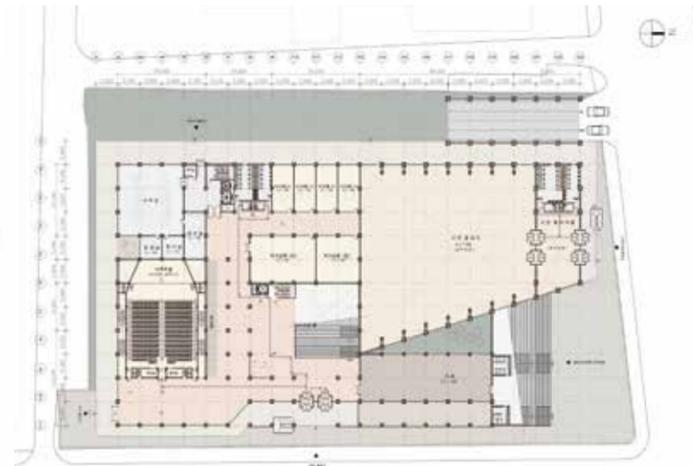
입면 단면 컨셉 다이어그램



평면 개념

1층은 시민청, 사무실, 다목적 홀, 워크샵 룸, 카페 등 공공영역으로 구성하였고, 2층은 전시실로 구성하여 기능에 따라 평면 공간을 분리하였다. 따라서 서로의 동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각자의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는 광화문 광장과 수평이 되는 부분에 하나, 외부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나로 총 2개로 구성했다.

유리 목조 아트리움홀을 건물 중앙에 배치하여 개방성을 부여하고, 자연스럽게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동선을 구성하였다. 외부와 연결되는 대형 야외 계단 부분은 출입의 목적뿐 아니라 조망을 할 수도 있고, 작은 공원, 카페와 같이 구성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 즉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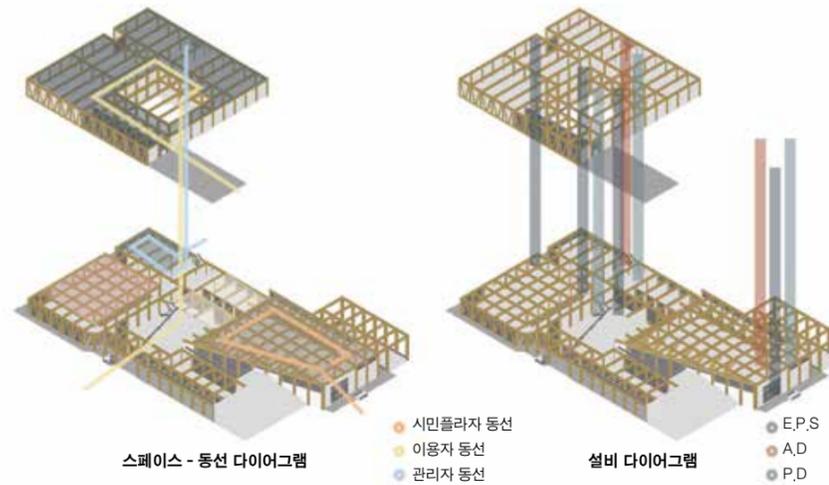


경복궁 회랑과 기둥의 느낌을 차용

경복궁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민청을 배치하였다. 시민청의 구조는 무겁게 느껴지는 두꺼운 부재를 사용하여 경복궁의 회랑과 기둥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시각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 구조로 적용하면서, 이 사이트의 스토리와 지역성을 살리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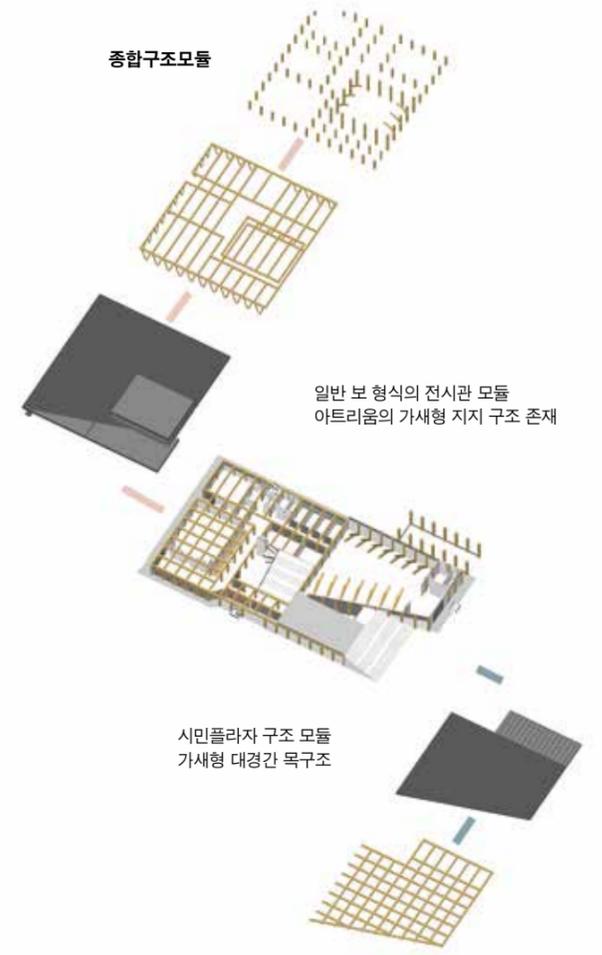
동선설비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구조컨셉 다이어그램



종합구조모듈



일반 보 형식의 전시관 모듈
아트리움의 가새형 지지 구조 존재

시민플라자 구조 모듈
가새형 대경간 목구조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하는 일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연구기관

산학공동연구
부설기관 설치운영
실연연구
대학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정부

목조건축 진흥을 위한
법령, 제도 개선 건의
단체표준 등 표준화
산림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수탁사업
기술자 양성
MOU체결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학회/협단체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주관
에너지 저감책 교류
단열기준 기술 교류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한국페시브건축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목재문화진흥회
한국목재공학회

해외 협력기관

정보교류
국제 대외협력
Canada wood
일본주택산업협회
JETRO
BC우드
WCTE

목조 건축업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우리나라 목조 건축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장 경험 중심의 목조건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최신 건축자재 및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목구조 기술자 기술인력 양성

한국형 목조건축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목조 건축업의 설계·시공·수리·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목조건축 품질 표준에 따른 감리 및 인증 연구

목구조 건축기술의 핵심이 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 우수한 목조건축 보급을 목적으로 민간 차원의 감리 제도인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목조건축 관련 정부 지원 요청 사업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의 목조건축 관련 기관들의 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 및 정책 등을 지원한다. 관련 법령의 개선 및 정책 마련을 선도한다.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등 홍보 활동

목조건축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목조건축포럼 및 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목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자료 간행물 등을 발간한다.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목조건축 관련 각종 법령, 제도, 기술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현장 실무에 근거하여 조사·연구하고 결과물을 회원사에 제공한다.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주최

회원의 효과적인 홍보와 공동 이익 도출을 위해 각종 전시회를 공동 참가 또는 공동 주최한다. 매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을 주관하여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목재 교육 전문가 국가 자격 양성과정 운영

목재 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양성된 목재 교육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구조 건축물 품질인증
QUALITY APPROVAL OF WOODEN ARCHITECTURES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도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도는 부실 건축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막고 더 우수한 목조주택 보급을 위해 국립삼림과학원,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협회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목조건축 감리제도로 2009년부터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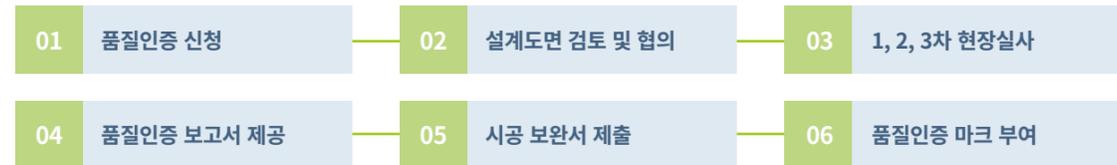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과정은 목구조 건축기술의 핵심이 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하고, 사전 도면 검토 후 시공단계별로 현장

을 방문하여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술적 지원을 더 하여 목구조 건축물이 100년 주택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현재 중목구조 및 대단면구조로 시공되는 공공시설물에도 5-Star 품질인증이 적용, 확대시행 중이며 2021년에는 단체 표준으로 등록되어 목조건축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인증 절차



현장 방문 시기 및 점검 사항

<p>1차 실사 - 외벽 벽돌개 못박기 후 / 외부 투습방수지 설치 전 방문 - 부재 간 못박기 시공 등 점검</p>	<p>2차 실사 - 외부 투습방수지 설치 후 / 골조 시공 및 설비배관, 전기배관 완료 후 방문 - 전체적인 구조, 부재의 따냄 및 천공 등 점검</p>	<p>3차 실사 - 단열재 시공 후 / 외부 마감 시공 중 / 내부 석고보드 설치 전 방문 - 단열 및 수분 관리, 외부 마감 등 점검</p>
----------------------------------------------------------------------------------	------------------------------------------------------------------------------------------------------	------------------------------------------------------------------------------------------------

신청방법 및 문의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신청은 시공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공사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주나 건축사사무소도 신청할 수 있다.

나, 반드시 사전에 시공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는 인증 과정에서 건축주, 시공사 및 협회 간의 사소한 분쟁이나 오해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

함이다. 건축도면 및 구조도면 검토를 위해 최소한 착공 한 달 이전에는 신청해야 하며, 이미 착공된 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목조건축 수퍼-E 주택인증 제도



한국 수퍼-E 주택인증은 목조건축물에 특화된 저에너지 인증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에너지 소비 시뮬레이션 모델 적용, 습기 방지를 위한 벽체 디자인, 주택 내부 자연 환기 시스템, 실내 공기의 질을 최적의 상태로 조절하는 방식 및 쾌적 시스템 등과 같은 고도의 첨단기술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인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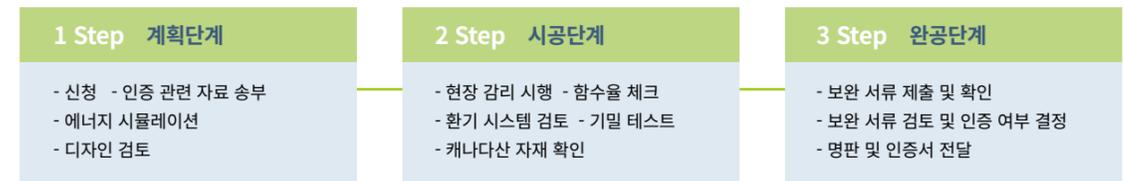
표 기관인 캐나다에너지효율수출기업연합(EEEA)과의 기술 및 교육 지원 협약 내용을 담은 MOU를 맺고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 수퍼-E 표준을 제시했다.

(사)한국목조건축협회는 국내 유일의 수퍼-E 주택인증 운영기관으로 EEEA, 캐나다 수퍼-E사무국,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16년 (사)한국목조건축협회는 캐나다 정부에서 인증하는 대



인증 절차



한국 수퍼-E 표준(Korea Super-E standard)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 수퍼-E 주택인증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을 통해 구조

및 기본적인 수분 관리, 단열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한국 수퍼-E 주택인증 신청은 건축도면, 기밀막, 창호 및 각종 장치(보일러, 환

기장치 등)의 스펙 확인을 위해 최소한 착공 한 달 이전에 시행해야 하며, 이미 착공된 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목조건축에 더 깊은

가치를 담습니다”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활동 회원사 리스트

설계 업체

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와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02-3143-0057	경기도 고양	www.kawadesign.net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미	02-534-1471	서울시 서초	www.gsarchi.co.kr
(주)노바건축사사무소	강승희	02-333-5863	서울시 마포	studio-nova.co.kr
(주)건축사사무소 스무쉴	홍진희	02-515-7106	서울시 강남	www.smusoop.com
(주)하우스스타일	김주원	02-564-7012	서울시 용산	hausstyle.co.kr
(주)생각나무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강주형	02-6487-3338	서울시 서초	www.thinktr.com
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02-2051-1677	서울시 강남	kddh.kr
광야건축사사무소	박대일	062-361-9745	광주시 광산	www.gwangya.com
(주)에이디모베건축사사무소	이재혁	02-511-5854	서울시 종로	admobe-myportfolio.com
(주)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천국천	02-2113-7800	서울시 영등포	cafe.daum.net/haninar
(주)건축사사무소 다솔	이성배	02-552-9962	서울시 송파	www.daasolee.com
플라잉건축사사무소	서경화	02-6013-5063	서울시 서초	www.flyingarch.co.kr
그루건축사사무소	정주광	02-333-4549	서울시 마포	www.designgroo.co.kr
종합건축사사무소백석그룹	전보영	031-8015-4595	경기도 화성	bs779900@naver.com
건축사사무소 이인집단	이영재	070-7706-5100	서울시 마포	www.othersA.com
건축사사무소 예감	강미현	063-288-9380	전라북도 전주	www.cckang.kr
(주)조한준건축사사무소	조한준	02-733-3824	서울시 성북	the-plus.net
마루건축사사무소	우현배	031-771-2964	경기도 양평	www.mahru.co.kr
소하건축사사무소	최성호	02-2038-4758	서울시 서초	www.sohaa.co.kr
건축사사무소 이루안	김기행	042-271-0126	대전시 중구	www.한옥설계.net
홈플랜건축사사무소	김소연	031-275-5296	경기도 용인	www.homeplan.co.kr
건축사사무소 리얼랩 도시건축	허길수	02-318-4001	서울시 중구	www.reallab.kr
연이종합건축사사무소(주)	김종기	070-4101-6871	경기도 성남	paulkimm@hanmail.net
건축사사무소 재귀당	박현근	02-408-6045	서울시 송파	www.jaeguidang.com
정감건축사사무소	김구태	031-707-8988	경기도 성남	blog.naver.com/kim9eh
(주)단감건축사사무소	감은희	02-6217-8754	서울시 강남	www.edangam.com
가운건축사사무소	김은경	042-637-2458	대전시 동구	ekk1231@naver.com
(주)케이즈종합건축사사무소	강태웅	031-8067-7118	경기도 용인	www.case-archi.com
소솔건축사사무소	왕성한	02-457-0218	서울시 광진	www.sosol.co.kr
피원건축	장진희	02-2135-2627	서울시 서초	www.p1architecture.com
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더원	원계연	070-4239-7009	강원도 원주	www.thewon.kr
건축사사무소 인디	김광수	042-637-2458	대전시 서구	kks2458@naver.com
Lsj건축사사무소	이석재	010-2496-3345	경기도 용인	lsjats@naver.com
마로안건축사사무소	이옥정	02-2051-9330	서울시 강남	www.maroan.com
하늘	유영선	02-546-3584	서울시 강남	sua0130@naver.com
(주)광장건축사사무소	이현욱	02-717-3390	서울시 서초	cafe.naver.com/duplexhome
b2 Shapes	김계숙	02-554-2122	서울시 강남	b2shapes@gmail.com
(주)오월건축사사무소	심정열	02-2676-0827	서울시 영등포	owolarchi@naver.com
(주)유타건축사사무소	김창균	02-556-6903	서울시 광진	www.utaa.co.kr
투닷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조병규, 모승민	02-6959-1076	경기도 양평	todot.kr
건축사사무소 청목재	서정수	02-2058-3339	서울시 서초	https://blog.naver.com/soomok737
(주)두항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김각경	02-578-4462	서울시 강남	dhsc@chol.com
G&H Design Workshop	황경주	02-544-2406	서울시 동대문	www.ghdw.org
터구조 주식회사	박병순	02-6426-1600	서울시 종로	thekujo@thekujo.co.kr
(주)위너스BDG	이 석	02-322-0438	서울시 영등포	www.w-bdg.com
HAUSTEC Ltd.(하우스텍)	주종범	587-777-5230	캐나다	david@haustec.ca
(주)금나구조기술사사무소	마영민	02-6949-4651	서울시 금천	gumna2017@gmail.com
튼튼구조엔지니어링	박상욱	02-462-3620	서울시 성동	sdeng20018.modoo.at
도야구조기술사사무소	서연주	02-6412-1004	경기도 용인	doya1eng@daum.net
명구조	강원규	02-582-1626	서울시 용산	2000-sunny@hanmail.net

시공 업체

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스튜디오건축연구소	김갑봉	02-584-1090	서울시 은평	www.stugahouse.com
(주)뉴타임하우징	강대경	02-472-4169	서울시 서초	www.newtimehousing.com
(주)시스홀종합건설	이국식	02-704-0482	서울시 서초	cafe.naver.com/mokjocafe/3492
(주)중부이엘에스	김경환	043-533-1335	충청북도 진천	jbloghomes.co.kr
(주)케이에스피앤씨	장길완	031-771-1343	경기도 양평	jang-ks2013@hanmail.net
(주)스마트하우스	이영주	031-971-4818	경기도 고양	www.smarthousing.co.kr
(주)더존하우징	이용진	1644-3696	경기도 화성	www.dujon.co.kr
(주)제이디홀플랜	오권만	064-747-2178	제주시 도평동	jdhomeplan.com
(주)브랜드하우징	문병호	031-714-2426	경기도 성남	cafe.naver.com/metalwood
니드텍건설(주)	유창민	1577-0192	부산시 부산진구	needhaus@naver.com
우드선	원유상	1644-0523	경기도 남양주	www.woodsun.co.kr
삼림하우징테크	김태국	053-313-3388	대구시 남구	slhousingtech.itpage.kr
화미건축	김태엽	031-772-7845	경기도 양평	www.whami.co.kr
호멘토	이건	1670-6234	경기도 성남	www.homento.co.kr
꿈꾸는목수	소태웅	1599-1723	광주시 남구	www.woodenhouse.kr
팀버하우스	이천로	043-853-4997	충청북도 충주	팀버하우스.kr
원원하우징	이재국	1599-4323	세종시 금남면	www.winwinhousing.co.kr
HNH건설	김대영	1522-3723	경기도 이천	cafe.naver.com/withhnh
네타건설	배용근	010-2662-5870	서울시 양천	www.neta.kr
나무집공작소	윤세웅	010-3528-4661	경상북도 영주	cafe.daum.net/countrywoodhome
살구마을(주)	박은국	031-772-3305	경기도 양평	cafe.naver.com/ypjforesthill
(주)아크로스	권순일	010-6239-4115	경기도 광주	www.archros.net
(주)에이치원(이건창호)	정해승	031-997-0103	경기도 김포	blog.naver.com/hone9970103
코빌하우징	양수복	031-775-7277	경기도 양평	www.cobil.co.kr
한솔건축	김상현	051-583-8697	부산시 금정	www.i-hansol.com
예홈건설(주)	이병환	1688-5407"	충청남도 천안	yehome.co.kr
나무이야기	홍규택	010-3890-3751	경기도 하남	hongnamoo@naver.com
(주)에이치티종합건설	김강일	1588-9704	서울시 서초	www.house-talk.co.kr
디자인 하우스	김민기	055-583-6035	경상남도 함안	dscckom@hanmail.net
(주)윤성하우징	윤용식	1566-0495	경기도 안산	yunsunghousing.co.kr
리더스건축	송용욱	1599-0481	경기도 양평	song3580@naver.com
모노건축	김병길	055-388-6643	경상남도 양산	logpia@hanmail.net
스타큐브 디자인	이경호	1800-3932	부산시 금정	www.starcube777.co.kr
가원하우징	김태희	053-964-5355	대구시 동구	blog.naver.com/gw5355
(주)NH건설	조동준	031-211-1118	수원시 영통	www.newhousehousing.com
제주목조건축 협동조합	고규식	064-742-0799	제주시 애월읍	wood-go@daum.net
(주)아름단단	최동우	044-864-9665	충청남도 서산	www.armdan.co.kr
휴먼홈	최통일	1811-7995	충청남도 천안	cafe.naver.com/no1tongil
골드홈공업주식회사	김진용	031-797-3005	경기도 광주	www.goldhomes.co.kr
한국농촌개발(주)	이원덕	1577-8823	강원도 홍천	www.ekrd.co.kr
별하스하우징	허해용	010-2202-6287	경기도 평택	www.byeolhasarchi.com
(주)더일공일	이오형	02-534-0901	서울시 서초	the101.co.kr
(주)공간기록	전현우	1544-1553	서울시 강남	www.ggglog.com
모던코트시스템	심재섭	031-618-2509	경기도 평택	blog.naver.com/moderncoat
(주)수피아건축	이주석	032-504-1025	인천시 서구	www.supiacon.co.kr
하우스컬처	김호기	044-867-7562	세종시 나성	www.hausculture.com
(주)위드하임	윤경일	031-774-4745	경기도 양평	www.withheim.co.kr
데코에이	김탁일	070-8838-8705	경기도 성남	www.decopainting.co.kr
화이본(Whaibon)	박근량	055-267-5631	경상남도 창원	blog.naver.com/grpark0686
(주)제이종합건설	정재민	02-400-3594	서울시 마포	www.j-cons.co.kr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활동 회원사 리스트

주이에코건설	정병은	02-3431-8600	경기도 성남	blog.naver.com/y0482
휴인주식회사	최규웅	062-945-0036	전라남도 신안	www.huin.kr
아름하우징	유진우	010-6694-5445	제주시 영평동	blog.naver.com/y9513088
주푸른숲	임영국	031-771-6700	경기도 양평	vnmfstuv73@naver.com
공간연구소-집"	서문원	070-5129-2055	서울시 송파	www.spacehouse.kr
주더원하우징	이윤범	033-264-1147	강원도 춘천	theonehousing@daum.net
망치소리	송동선	010-8590-8778	경상남도 거제	www.mangchisori.kr
이아이에프에스 컴퍼니(EIFS COMPANY)_이건마루	김대현	031-715-6500	경기도 성남	https://blog.naver.com/anyboy77
주제이콘 종합건설	황소진	032-567-1610	인천시 서구	www.jconhousing.com
진성이엔지(주)	장관영	033-435-0477	강원도 홍천	jinsung1004@hanmail.net
주미건하우징	김대기	02-897-7717	경기도 광명	www.meegun.co.kr
더홈 파트너스	김현덕	053-525-3580	대구시 달성	https://m.blog.naver.com/kimscall7/222460433104
팀버이엔씨	이기노	043-853-5004	충청북도 충주	명예회원

자재 업체

업체명	주요품목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경민산업(주)	구조용집성재	이한식	032-575-7871	인천시 서구	www.kmbeam.co.kr
주엔에스홀	종합건축자재	박찬규	031-767-9400	경기도 광주	nshome.net
영림목재(주)	목재내외장재	이경호	032-811-9051	인천시 남동구	www.younglim.com
주삼익산업	독일창호디크닉	김중근	1588-3648	경기도 광주	www.siwood.com
주우딘HAUS	Eco-friendly	강원선	032-578-8500	인천시 서구	www.wood.co.kr
주우드존	목구조내외장재	선 행, 서양오	1600-1432	광주시 서구	www.woodzone.co.kr
주우드뱅크	석고각재방부목	이태호	032-581-4494	인천시 서구	www.woodbank.net
주진흥인터내셔널	종합외장재	박진영	1644-2111	경기도 이천	www.jhint.co.kr
주식회사 케이씨에스	건축용타이백	이상욱	02-467-8740	서울시 광진	www.koreacns.com
주명성우드	목조주택자재	조영찬	1899-3327	경기도 양평	www.mswood.net
주원코	불연스카이텍	이연세	02-3272-0661	서울시 마포	www.winco.co.kr
한림에이치우드(주)	목조주택자재	최정상	1544-0488	충청북도 청주	www.hnhwood.com
전일목재산업(주)	목조주택자재	김병진	063-545-3131	전라북도 김제	www.jiwood.co.kr
주해강인터내셔널	기밀/단열/방수	이정현	02-416-1511	서울시 송파	www.hibm.co.kr
유니우드(주)	세르파/스타코	구본성	02-478-7504	경기도 하남	www.uniwood.kr
애니우드	목구조내외장재	곽은혁	031-321-0366	경기도 용인	www.anywood.net
주더원우드	목조주택자재	김기범	052-922-3234	울산시 울주	theonewood.modoo.at
우림주택	연결보강철물	권기병	031-764-6799	경기도 광주	www.megatie.com
주채우림	편백나무전문	최성근	031-821-1662	경기도 의정부	www.chaewoorim.co.kr
패시브웍스	열회수환기장치	이성근	031-5186-6158	경기도 수원	www.smartvent.co.kr
주에이스홈데코	내부도어몰딩	최순진	032-814-2223	인천 서구	www.ace-door.com
주지이그룹	프리컷중목구조	김병훈	1577-0790	경기도 양평	www.gehome.co.kr
주케이디우드테크	건축목재마감재	홍 활	02-3401-5525	서울시 송파	www.kdwoodtech.com
더나이스코리아(주)	중목구조제조	이타니 케이고	055-548-8811	경상남도 창원	www.the-nicecorp.com
주현성종합목재	목조주택자재	상기연	031-798-4455	경기도 광주	www.hyunseongtimber.co.kr
주서중인터내셔널코리아	목조주택자재	Cho Pauline Sara	031-631-1198	경기도 이천	www.seojoong.com
주하농	마루, 주방, 가구	이정빈	02-515-2626	서울시 강남	www.haanong.com
캔포코리아 엘티디	캐나다구조재	유정숙	02-2190-3757	서울시 서초	www.canfor.com
아시바의 남자	비계	최창활	010-8335-5080	경기도 여주	ch9549@empal.com
주미도커뮤니케이션즈	마루바닥재	임훈택	032-213-6832	인천시 동구	www.marucall.com
이우코퍼레이션(주)	종합자재시공	이우정	02-6081-2528	서울시 금천	www.ewcorp.kr
주커널시스템	단열현관문	전재완	031-366-0871	경기도 화성	www.kehy.co.kr
주윙기	시스템창과문	김응규	031-852-2100	경기도 의정부	www.yungki.com
일진하우엔플랜	현관문/차고문	김인근	02-992-3205	서울시 강북	www.iljinhounplan.co.kr
가온우드	방염및난연목재	김영윤	063-224-7400	전라북도 전주	www.gaonwood.com

주이루카씨엔티(유로벤트)	투습방수지	이동훈	010-5261-9889	서울시 성동	www.eurovent.de
주가조띠코리아	이태리원목마루	박정호	02-540-0886	서울시 강남	www.gazzotti.co.kr
주지복득마루	수입원목마루	임윤호	02-576-7736	서울시 강남	www.jibokdeukmaru.com
주케이에스우드	목구조내외장재	박종원	031-333-5100	경기도 용인	kswood.co.kr
호아온돌	호아온돌바닥난방재	박진철	02-539-7411	전북 군산시	www.hoyaondol.com
주케이오에스	건식온수온돌판넬	박병서	043-534-2932	충청북도 진천	www.ondoly.kr/index.php
리부라다스(주)	캐나다구조재	이정복	010-4378-2141	서울시 중구	명예회원

Photo Copyright

빛의 루 © 노경

종암스퀘어 © 박정환

하동 한옥문화관 © 박영채

묘각형주택 © 노경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 신경섭

춘천시 지역먹거리 직매장 © 박완순

켈크하우스 © 김창목

곱작골 마음센터 © 노경

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www.kwda.or.kr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

기 획: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운영위원회

발행일: 2022년 11월

* 본 작품집에 소개된 사진과 원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각 작품의 건축가와 사진작가의 서면 허락 없이 사진 또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